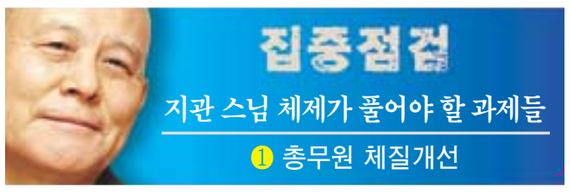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제작사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1월 9일(음력 10월 8일) 수요일 (주간) 제 551 호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체제가 출범했다. 총무원장 선거가 '뒤탈' 없이 끝난 가운데 한국불교의 모든 염원이 '종단의 화합과 안정'으로 쏠리고 있다. 조계종은 그간 도약을 향한 다양한 움직임을 끌어안은 채 새로운 종단 면모 갖추기에 심혈을 기울여 오면서 내적인 갈등도 함께 키워왔다. 기존의 갈등구조를 일소하고 종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지관 스님 체제의 당면 과제들을 진단한다.

권위 버리고 '서비스'로

'총무원 주도' 보다는 지원 체제 필요… 동국대 문제 묘수 찾아야

●행정의 자세 교정

일반 기업체들이 '관리 행정'에서 '서비스 행정'으로 변화를 꾀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 또한 '작은 정부' '전자 정부'를 표방하며 몸집은 줄이면서 높은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관리 행정'에서 '서비스 행정'으로, '작은 총무원' '전자 총무원'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총무원은 각 사찰 주지 임면권과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의 감독과 처분 승인권을 갖는 등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로 인해 총무원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교구본말사는 총무원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총무원의 권력화로 이어져 과열선거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총무원의 체질개선을 위해선 집중된 권한을 일정부분 교구본사로 이양해야 한다. 또 각종 사업 주체를 단위 사업체로 넘겨야 하고, 총무원은 주요 정책결정 기구로 남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총무원은 자연스럽게 '슬림화'되고 교구는 '활성화'될 수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각 교구본사 특성에 맞는 분권종무행정 기틀 마련 △말사주지 인사권 이하 주요 종무 권한 교구본사 상황에 맞게 이양 등을 10대 분야 종책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원 성관 스님(前 총무부장)은 "율장이나 청규 등 불교 고유 전통은 도외시한 채 일반 사회이론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자종단 이데올로기' 벗어야

조계종은 한국불교 대표종단, 장자종단임을 표방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주요 종단들의 모임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당연직 회장을 맡는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불교계를 대표할 뿐 아니라 종교계를 대표하기도 한다. 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한국종교를 대표하는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직을 맡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조계종이 '장자종단 이데올로기'에 빠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즉 권한과 이익만 강조한 채 책임은 도외시한다는 것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국불교 전체 발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조계종'에만 국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前 종단협 사무국장)은 "조계종의 현실적인 위상은 인정하지만 지금보다 많은 역할론이 요구된다"며 "그래야 다른 종단에서도 조계종을 한국불교 대표종단으로서 믿고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 활동 뒷받침

조계종에는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각종 산하단체들이 있다. 또 외곽으로는 신행단체와 불교시민사회단체, 각종 학술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는 대사회 활동을 직접 펼치며 교육과 포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역할한다.

종단 위상이 높아지려면 각종 단체 활동이 보다 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 요구가 더욱 증대되는 요즘 '공공성'이 강조되는 종단보다는 '목적성'이 분명한 단체들의 활동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불교계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이 예산상의 이유로 유보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관 스님은 △'불교시민사회센터' 설립 지원(불교 인력풀로서의 역할)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법(가칭) 법제화 추진 등을 10대 분야 종책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불교계 단체 활동이 활발해야 종단 외연과 위상이 높아진다"며 "종단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국대 위상 높이기

동국대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연간 3000여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할 뿐 아니라 산하 기관장 선임 및 교원 임용, 수익사업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13명의 이사 중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이사 정족수인 9명의 스님 이사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동국대 이사회에 종단 각 계파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인사, 예산, 행정 등 거의 모든 결정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학교도 안정될 수 없다. 또 학교가 안정되지 않으면 종단 또한 안정되지 않고, 종단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동국대 발전을 위해선 현 이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님 이사 수는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재가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재정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인사 중심으로 이사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국대 교수는 "과거 3대 사학 중 하나였던 동국대 위상이 현재처럼 떨어진 것에는 이사회 책임 또한 크다"며 "더 이상 종단 정치에 학교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1월 3일 열린 제25차 원로회의에서 의장 종산 스님(사진 왼쪽)이 만장일치로 지관 스님 인준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새 총무원장 중심 화합을"

조계종 원로회의 지관 스님 '인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회의에서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총무원장에 당선시켜 준 사부대중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명을 다하겠다"며 "특히 종단 화합과 수행, 포교 등 내외형적 불사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원로의원스님들은 "불교중흥의 큰 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총무원장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새 총무원장스님은 종단 개혁과 사회참여활동 및 종단 투명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로회의에서는 또 △모든 승려들은 새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 △새 총무원장은 능력 있는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문중과 계파의 골을 메우는 한편 정치적 견해 차이 등으로 징계됐던 스님들을 사면하는 대화합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다시 후보자격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종단을 분열시키는 해종행위에 다름 아니다 등을 결의했다.

지관 스님은 인준 후 현고 스님에게 총무원장 직인을 인수하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남동우 기자

14일 총무원장 취임식

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식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이 11월 14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된다.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취임식은 약력소개, 종정 스님 법어, 취임사, 각계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관에 열리는 개관식은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및 제막식, 조계종 근현대사 기록물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세상을 향한
열린 대화! 자비
-논의제일 가전연
지운 스님 | 11월 9일 오후 7시 |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할'



그림 · 조태호

진철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천수경"은
우리 가슴속에 자리한 부처님의 지혜와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천수경의 비밀
김호성 지음 | 신국판 | 값 7,500원
천수경의 비밀
관음신앙의 근본경전. 신앙생활의 필수가 되어 버린
천수경은 불자님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경전입니다.
천수경과 함께라면 당신도 이제 진정한 불교의 세계로 초대된 불자입니다.

민족사 732-2403~4 minjoksa@chol.com
철·우·스·님·이·풀·어·가·는·계·율·단·상
욕심을 버리는 방법
영산율원의 철우스님께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삶 속에서 느낀 경험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계율이야기
철우스님 지음 | 신국판 8,500원
풍족함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의 복을 누리고 사는 지혜"
철우스님은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의 율주스님으로서
젊은 스님들과 오래도록 한 회상에 같이 살면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배움을 바탕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다.

알기 쉬운 불교입문서에 유쾌하게 빠져봅시다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영섭 지음 | 신국판 | 값 9,000원
불교공부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을 위한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벗어버리는 책"이
1500만 불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불교 개론서처럼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망라하면서도
아주 읽기 쉽게 씌어진 교리와 수행의 핵을 짚은 불교입문서

찾아가고 찾아오고…

바쁜 지관스님

종정·원로의장스님 예방, 정계인사들 잇따라 방문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1월 1일 오전 해인사 퇴설당에서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한 후 오후에는 청주 보살사에 주석하고 있는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종정 법전 스님은 지관 스님에게 "화합이 근본이며, 화합과 안정이 있어야 종단 발전도 있다. 우리는 모두 일불제자니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남을 도와야지 헐뜯어서는 안 된다"며 '화합'과 '안정'을 강조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모든 대중과 함께 종단이 화합하고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정스님의 지도와 격려를 요청했다.

종산 스님도 "유시에서 밝혔듯 모두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지관 스님도 다른 후보자들의 뜻을 포용해 화합하고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모든 후보자의 뜻을 포용해 종단이 화합하고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도움을 구했다.

이날 종산 스님은 사면과 복권문제, 승려노후대책문제 등 종단에 산재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중진 스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원로회의 의장을 맡는 동안 종단의 위계질서만은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법전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는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등 20여 명이 배석했다.

한편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4일 잇따라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의장이 "현재(열린우리당) 사정이 어려워 좋은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왔다"고 말하자 지관 스님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뒤이어 따라오며,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고 뭉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도 "야당이지만 당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자 지관 스님은 "불교 정신에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배지선·김강진 기자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현판 오른쪽) 등이 현판 제막식을 봉행하고 있다.

군종특별교구 '이름표' 달고 도약 다짐

국방부 호국원광사서 현판식…29일 군승총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현판식이 11월 3일 서울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봉행됐다. 현판식에는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 부주지 계성 스님, 군종교구 각 국장법사들, 국군불교종신도회 전인구 사무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군포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오후 2시 국방부 원광사에서 2005년 사업을 결산하고 신년사업을 보고하는 '2005년도 육·해·공군 군승총회'를 개최한다. 제37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하림각에서 봉행된다. 강유신 기자

탁연스님·김형남변호사 규제개혁위원에 위촉

문화관광부는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당연직)과 법률전문위원 김형남 변호사가 규제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탁연 스님과 김형남 변호사는 최영갑 성균관 총무처장,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재위촉)과 함께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통사찰과 향교 등 종교업무 분야 규제개혁 자문을 맡게 된다. 남동우 기자

부산 선암사 검수인계 주지에 원범 스님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11월 1일 조계종 호법부의 입회하에 선암사 주지직 인수 절차에 들어가 검수인계 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가 선암사 前 주지 정야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및 주지 해임 처분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선암사는 1년 전 주지 임명장을 받았던 원범 스님이 주지직을 맡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고침 본지 550호 14면 기사 중 '서울 승가사 주지 상륜 스님'을 '서울 승가사 회주 상륜 스님'으로 고칩니다.

선거 끝난 조계종 '선거법 개정' 목소리 확산

선관위원도 '투표'하다니…

'공직' 유지한채 출마 등 비합리적 조항 "빨리 손봐야"

'조계종 선거법 이대론 안 된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모여졌던 의견이다. 이번 선거에서 종단의 관행과 종헌종법 미비 사항에서 오는 충돌 현상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선거 폐지론'에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우선 현행 선거법부터 보완·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종무원 선거권 등 제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스님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일반 사회로 보면 대법원장격인 호계원장과 국회부의장격인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이 '공직'을 유지한 채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와 청정선거문화정착운동본부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과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선거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구 선거인단 기준 정해야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 종회에서 선출하는 10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즉 사미나 사미니가 교구 선거인단으로 선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승랍 몇 년 이상의 비구 또는 비구니 등 교구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 규정이 종헌종법에 명확하게 적시돼야 한다.

▲선거공영제 입법화해야

이번 선거에서 4개 단체가 종책토론회를 준비했지만 각 캠프에서 난색을 표시해 종책 토론회가 무산됐다. 선거가 대결로 가기 위해선 종책 토론회 의무 개최 등 선거공영제가 입법화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등이 선거 감시기구로 활동했지만 임의단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또한 공식기구로 입법화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후보 자격 기준 명확히

이번 선거에서 후보 자격 시비로 불거졌던 종헌 9조 3항과 종무원법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종헌 9조 3항에 따르면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사회법과 충돌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세부사항이 명기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종무원법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후보난립 규제방안 마련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피선거권으로 '종단 재적승으로서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로 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 여러 후보들이 출마했지만 두 스님은 한 표도 못 얻었고, 한 스님은 겨우 한 표를 얻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따라서 총무원장 출마 시 일정 금액의 종단발전기금을 기탁하도록 해 어느 정도 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한다든지, 교구본사 주지나 중앙종회의원 추천을 통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11월 3일 열린 제25차 원로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임해보니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의원스님들과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청정선거운동 단체들…직선제·공영제 등 촉구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기간 동안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들이 잇따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상임대표 수완, 이하 청정선거 운동본부)는 ▲비구(니)계 수지 5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로의 전환 ▲후보 출마 시 말사 주지를 제외한 모든 공직의 사퇴 ▲간선제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이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의 선거인단 출마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정선거 운동본부는 또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감시단 구성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한 후보자 추천제 도입 ▲종책토론회 의무적 개최를 비롯한 선거공영제 전면 도입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의정 등)도 11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직선제 도입과 일부 스님들의 공직사퇴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비구(니)계를 수지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스님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는 또 신임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종단운영의 투명화 ▲종단의 위의와 질서 확립 ▲종단의 정체성 정립 ▲포교 및 포교연구개발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철주 기자

대학생 간화선 연구개발팀 발족

조계종 포교연구실, 맞춤프로그램 등 개발계획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청소년에 이어 대학생을 위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연구 개발팀을 구성하고 청년포교에 나섰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진명)은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대학생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연구개발팀'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개발팀은 대학생에게 맞는 간화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지도자과정,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에게 맞는 영상 자료, 음악 자료와 심성프로그램 자료를 수집, 개발할 예정이다.

포교연구실은 특히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을 종립대학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정규 커리큘럼 형식과 사찰 청년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발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연구개발팀은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과 청아 스님, 황수경, 김호귀, 서재영씨 등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강사, 박영희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홍근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으로 구성돼있다. 실무요원으로 포교원 고명석 연구과장, 이상규 신도과장, 김병주 포교과장, 송주실 연구주임 등이 참여한다.

진명 스님은 "계층 간 포교를 정착할 방안을 연구하고 기본수행 및 지도자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포교·교육·복지·기도를 실천하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조 실 휴암 정천
부조실 경하 현성
회 주 진불장 혜성
주 지 선묵 혜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02)993-3161~3 팩스 02)993-3164 / 홈페이지 : http://www.dosunsa.or.kr

사패산 관통 터널 피해보상금 일부
전용 여부 논란

"판공비·장학기금 명목으로 전용" 경찰 고발
"자체 경비 사용액 회수…연구소 설립 의뢰"

의정부 사패산 관통 터널 건설공사와 관련한 피해보상금이 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피해보상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업체인 (주)서울고속도로가 '수행환경보전' 명목으로 2004년 10월 봉선사를 거쳐 회룡사에 지급한 10억원. 회룡사는 사패산 관통 터널 공사가 진행될 당시 본사인 봉선사 등과 함께 수행 · 자연환경 보전운동을 전개했었다.

이 돈에 대해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보성 스님이 "피해보상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봉선사 주지의 판공비와 장학기금 명목 등으로 전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과 회룡사 주지 성견 스님을 10월 25일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철안 스님은 "지난해 10월 교구 말사인 회룡사의 위임을 받아 (주)서울고속도로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회룡사에 전달했다"며 "보성 스님의 말처럼 전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철안 스님은 또 "일부 자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한 것은 있으나 모두 회수했다"며 "돈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지금은 돈을 모두 회수해 조계종총무원에 연구소 설립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 회룡사도 11월 3일 해명서를 내고 "1차로 수령한 10억원을 봉선사로부터 건네 받아 이 중 2억원은 회룡사의 수행환경 개선과 사패산 관통터널 반대활동 경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8억원은 '회룡사 수행환경기금' 명의의 통장으로 보전돼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사패산 터널 보상금 전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이것은 고발자의 내용만을 보도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1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판공비', '대중보시' 등으로 돈을 지출한 철안 스님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총무원을 비롯한 종단의 책임있는 기관은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과 봉선사, 회룡사는 10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차 피해보상금 10억원과 올해 안에 지급될 2차 보상금을 합쳐 '환경사회연구소'(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의정부 홍법사 대형공사로 몸살

교량건설로 수행환경 침해… 대책마련 촉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정부 홍법사(주지 지섭)가 10월 30일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수행환경 보전 방안 수립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법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들의 수행환경은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웃 종단의 사찰들과 함께 수행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법사 주지 지섭 스님도 "사찰 바로 앞에 대형 교량이 들어서면 스님과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불가능해진다"며 "관계 당국은 사찰 이전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주)서울고속도로는 10월 26일 홍법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사찰 바로 앞 부지에서 대형 교량 건설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유철주 기자

북한 경제살리기 불교계 앞장

불구공장 설립 · 석재광산 개발 추진

불교계가 북한에 비누 및 불구공장 설립과 석재광산 개발등 남북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1월 1일 "북한동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추진중인 비누공장은 생활필수품인 만큼 평양에 설립될 예정이며 해주지역에 석재광산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도 11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와 만나 승복, 등, 염주 등 불교용품을 생산하는 불구공장을 평양에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원우 · 유철주 기자

사경전문가 김경호씨 부다피아 갤러리 오픈

사경전문가 김경호씨의 작품세계를 부다피아 갤러리(www.buddhapia.com/_Service/gallery/_000000006/)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김경호씨의 사경은 경전의 문구를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구들이 불화 만다라 등과 결합해 예술로 승화된다.

11월 초 오픈한 사경 갤러리에서는 불상의 복장이나 납탑봉양으로 작성되는 두루마리 <금강경>을 비롯해 <백화도량발원문> <길상팔보도> <보현보살도>에 <화엄경>보현행원품을 사경한 응용 사경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 사경 작품 중에는 가정에 모셔두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작품들도 있어 관심을 끈다.

강지연 기자



먼 이국땅 독일에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다 타계한 윤이상 선생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11월3일 조계사와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동시에 열렸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윤이상 선생의 바이올린곡 '리나가 정원에서'를 연주하는 다니엘라 윙. 사진=박재완 기자

윤이상 추모음악회 남북 사찰서 동시에 열려

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타계 10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식과 추모음악회가 11월 3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같은 시간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도 윤이상 추모제가 개최됐다. 사찰에서 추모식과 음악회를 한 것은 선생의 타계 10년 만에 처음이다.

조계사 추모음악회에는 안숙선 명창의 회심곡,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베를린-평양-베이징 공연에 이어 조계사에서 무대에 선 윤이상 앙상블은 "평양과 서울 공연을 통해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이상 앙상블은 1997년 독일 오보이스트 부카르트 글레츠너의 제안으로 생긴 전문 연주단체이다.

강지연 기자

지방경찰청 불자회 경사났네

경불회 출범 4년만에 전국에 모임 결성

전국 250여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불자들의 신심을 다져온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 이하 경찰불교회)가 경사를 맞았다.

지방경찰청 가운데 불자모임이 없어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이 11월 5일 김제 금산사에서 불교회를 창립했다. 이로써 경찰불교회는 출범 4년여 만에 서울을 비롯해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든 지방경찰청에 불교회를 결성했으며, 2001년 4월 47개였던 소속 불교회도 130여개로 늘어났다.

전북지방경찰청 불교회가 창립함에 따라 전북지역 각 경찰서에 불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방경찰청을 중앙과 일선 경찰서를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 활용하는 조직체계도 완전하게 갖추게 됐다.

경찰불교회는 이를 계기로 각 지방경찰청 불교회를 중심으로 예하 경찰서의 불교회 창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국 220여 경찰서의 불자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 불교회는 앞으로 매월 한차례 정기법회와 회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한 성지순례, 교리강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북지역 각 경찰서에 불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지원활동도 펼쳐 나간다.

백순상 전북지방경찰청 불교회장(정보2계장 · 경감)은 "가장 늦은 출발이지만 전북지역 경찰불자들을 하나로 묶어 알찬 신행활동을 펼치는 신행단체로 키워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100돌 엠블렘 확정

2006년 5월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가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렘을 최근 공개했다. 새 엠블렘은 미래로 도약하는 동국대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청색바탕에 불교와 동국대의 상징인 '흰 코끼리'와 숫자 '100'을 도안한 것이 특징이다.

동국대는 "젊음, 희망, 새로움, 도전을 의미하는 청색과 온기, 학문의 성취와 배움, 행운을 의미하는 노랑색, 힘, 에너지, 변화, 열정, 번영을 의미하는 붉은색을 각각 도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엠블렘은 배너, 건물wrapping, 홍보책자, 포스터, 기념품, 행사안내판, 현수막 등 모든 분야에 활용된다. 조용수기자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좇' 제11회 불교인권상 선정

제11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대책위원회'가 선정됐다.

불교인권위(상임공동대표 진관 등)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땅과 집을 지키기 위해 2003년도에 스스로 단체 만들어서 그동안 활동한 것이 인정되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농민들이 자신의 땅에서 뿌리 뽑히는 상황에서 팽성 주민들의 운동은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돼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21일 오후 5시 한국일보 송현클럽 13층에서 열린다.

유철주 기자

"허물 벗고 情 나눴어요"

철도공사 불자회-탈북 새터민 만남

10월 29일, 한국철도공사 불자회(회장 김해수) 회원 14명과 탈북 새터민 8가족이 대전 유성구 송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철도공사 불자들의 초청으로 청남대와 문의문화재단지 체험을 떠나기 위해서다.

첫 행선지인 청남대에서 대통령의 별장을 관람한 새터민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내비쳤다. 북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함께 점심을 나누어먹던 철도불자들과 새터민들 사이에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감돌던 어색한 분위기도 문의문화재단지로 옮겨서는 친밀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7시간여의 짧은 만남에서 새터민들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에서 느꼈던 서운함을 털어내는 듯했다. 철도공사 불자들은 8가족의 후견인을 자청했다. 새터민 가족의 아이들과 철도공사 불자가족의 아이들은 한달에 한번씩 만나자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만남은 짧았지만 긴 여운이 남는 아쉬운 작별이었다.

박봉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회 주 성암 종범
주 지 설담 원혜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수도산 봉은사 / 전화 02)3218-4800~5 팩스 02)544-2141 /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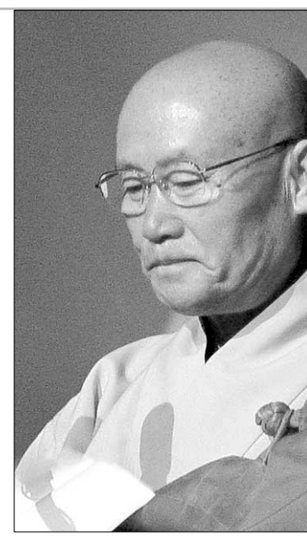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5강 : 함께 가는 진리의 길-설법제일 부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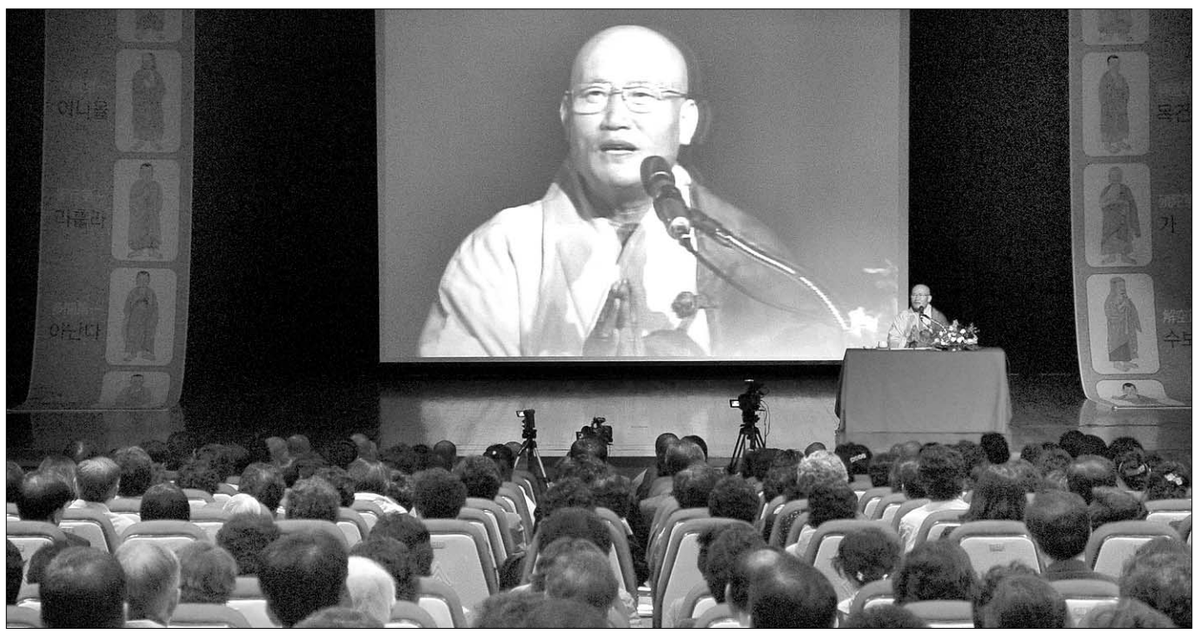
강사 : 자광 스님(김용사 회주)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현대불교

일시 : 2005.11.2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몸 던져 수행하고, 부처님 법 펴라



자광 스님은, 숨소리도 죽인채 경청하는 불자들에게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현대화를 통해 나와 이웃이 모두 바르게 사는 길을 찾을 것을 역설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부처님 제자는 설법제일 부루나(Puran) 존자입니다.

경전에는 '부루나 미다라니자(富樓那彌陀羅尼者)'로 불립니다. 부루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가득하다'는 뜻이며, 미다라니는 어머니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부루나와 어머니 미다라니의 아들을 뜻합니다.

부루나 미다라니자를 의역하면 원력이 충만한 사람(滿願子). 축복을 충만케 해주는 사람(滿祝子),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滿慈子)이라고 합니다.

부루나는 가비라 성에서 가까운 드나봐투에서 부처님과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바라문으로 큰 부자였으며 가비라 성주 정반왕의 국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여 4베다(리그, 사마, 야지르, 아타르다)와 5명(성명, 인명, 내명, 의방명, 공교명)에 통달하고 우주보다도 더 영원한 존재를 몸과 마음의 영감으로 체득했습니다.

그 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왕사성 죽림정사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출가했습니다.

가진 것 버리는 것이 수행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에게 사성제 가르침을 받고 아라한과를 얻으셨습니다. 사성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멸(滅)'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한 생각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 시간과 공간이 한 시점에서 만날 때 지금까지 맺어온 모든 인연은 없어집니다.

한 순간에 도를 깨쳤다고 하니 안 믿어지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옛 스님들은 '한 생각 잘 가지면 만년동안 잘 산다'고 하셨습니다. 깨치는 것도 순간입니다.

세상은 고통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모아져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없애려면 팔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성제에서 고, 집, 도를 그냥 없애버리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자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루나 존자는 이렇게 '없애는' 수행으로 아라한과를 증득한 것입니다.

부루나 존자는 설법제일에 앞서 부처님 법문을 가장 잘 들었습니다. 부루나 존자는 사리불과의 담론에서 일곱 수레의 비유를 통하여 부처님 법문을 듣는 자신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계율을 익히기 위해서도 아니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며, 의심을 떠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전체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일대사 인연으로 전생부터 부처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루나 존자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없애는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한량없는 구원겁래(久遠劫來)로 함께 살았던 인연이 있어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고 보니 대중가요 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렇습니다, 부처님과 부루나 존자와의 만남이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나 모두가 '굉장한' 만남입니다.

부루나 존자가 '얻은 것을 없애는 수행을 했다'고 해서 행복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행복, 그 까짓 것이 뭐 필요하냐'고요? 부처님은 행복에 관해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일 아함경>에서 "행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행복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니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라. 행복은 불에 타지 않으며, 물에도 젖지 않으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땅에서도 썩지 않으며, 왕이나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사나운 벼락에도 부서지지 않으며, 창고에 두고 지키지 않아도 줄지 않으며,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언제나 좋은 반려자가 되어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는 뗏목이 되고, 소원성취를 하는 자원이 되며 유일한 후세 내생의 자본이 되느니라. 늘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보시하며 맺힌 업을 풀어나가고, 풀어놓은 인연을 더욱 좋은 인연으로 잘 가꾸어 가라. 용기의 근원은 정성들인 마음에 있느니라. 정의의 기초를 둔 용기는 죽음을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안심입명 하느니라. 일분일초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며 꿈은 여기 지금 현재의 일에서 찾으라" 하였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루나 존자는 "행복하고 싶으면, 병이 낫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을 믿고 정진하면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기복신앙이 잘못이라는 분도 있는데 복을 기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부루나 존자는 어느곳에서나, 누구에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고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제일'이라는 인가를 받습니다.

"저는 오랜 겁 전부터 변재가 걸림이 없어 고(苦)와 공(空)을 말하고 실상을 깊이 통달하였으며 항하사 여래의 비밀한 법문을 대중 가운데서 미묘하게 열어 보이기를 두려움 없이 하였나이다. 세존께서 저에게 큰 변재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음성법륜으로써 저를 가르쳐 발양(發陽)케 하였사오니 제가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을 도와 법륜을 굴리며 사자후로 인하여 아라한을 이루니 세존께서 저를 인가하사 설법제일이라 하셨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저의 생각에는 법음으로 마구니와 원수를 항복받고 모든 누를 소멸시킴이 제일이 되겠나이다."<능엄경 육식원통>

우리는 보통 참선과 염불, 진언 이런 기도만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25가지 원통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근과 육진과 육식과 지수화풍 등 25가지 원통을 성취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스물다섯 원통장 가운데 15번째 부루나 존자가 법음으로써 마구니와 원결을 풀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법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대조해 보고 내 마음이 잘못 되었구나 하면 빨리 생각을 바꾸는 공부를 하면 누구나 부루나 존자가 됩니다. 설법 제일 불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부처님은 부루나 존자와 오백제자에게 수기를 내립니다.

<묘법연화경> 제8장 수기품에서 부처님은 '정법을 해석하여 설법하는 부루나 존자는 부처가 될 것이다'는 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불법을 호지하고 불법을 알려서 모두에게 이롭게 하여 부루나 존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부루나가 될 때 가정과 이웃 나아가서 이 지구는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루나 존자가 되고자 하는 오늘의 불자가 해야할 포교는 무엇일까요?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현대화'입니다.

'불교 현대화' 요건은 죄업 참회

불교도 현대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교를 현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이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를 하고나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시원해집니다. 태풍은 단박에 큰 바람이 되어 불지 않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28도가 되면 습을 바람이 일어나서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회에 함께한 인연공덕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자비와 홍익, 순결, 진실, 화합, 사랑, 선행, 보시, 합리, 지혜, 효행, 충성심이 바람일 듯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일어날 때 행복합니다.

이제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가 수로나국 포교를 떠나기에 앞서 부처님과 역사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부처님은 수로나국 사람들이 의심 많고 난폭해 부루나 존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로나국 사람들의 성품이 거칠어서 모욕을 주면 어찌 하겠는가?"

"저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때리거나 돌을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때리거나 돌을 던진다면 어찌 하겠는가?"

"그래도 인정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나 칼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칼을 쓰면 어찌 하겠는가?"

"그들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저를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소로써 포교하자

"만약 그대를 죽인다면 어찌 하겠는가?"

"부처님,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상에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온갖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덧없는 육신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 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 죽는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법망구(爲法亡軀)'입니다. 법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부루나 존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한 가르침은 바로 '몸을 던져 수행하고 법을 펴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문 : 불자는 타종교인에 비해 포교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부루나 존자처럼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불교를 포교하는 이는 웃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꽃을 든 최초의 성인은 부처님입니다. 꽃을 드니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절에 가려면 절에 가서 법당 문고리에 실을 묶고 자기 문을 열면 이가 빠지게 했습니다. 아이는 법당의 부처님을 바라보며 이를 씨익 드러내고 웃습니다. 이것이 안미소 입니다. 가섭 존자는 가장 잘 부처님 법을 받았습니다. 말도 아니 도 아닌 것이 미소입니다. 웃으면 포교이나 포교를 받는 이 모두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 웃으며 꽃을 공양하세요. 계에 사는 사람들은 꽃 공양을 합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지 않은 이에게 꽃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정리 · 사진=이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 본 사 (갓 바 위)

주 지 정 묵

사부대중 일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번지 / 전화 (053)851-1868~9 / 홈페이지 http://www.seonbonsa.org

APEC 성공 '소리없는 기원'

부산농아불자회 80여명 해운대서 삼보일배

부산농아불자회(회장 이혜자)는 11월 2일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를 해운대 일원에서 진행했다.

해운대 선프라자 여래선원 앞을 출발, 해운대 동백섬을 거쳐 백사장으로 이어진 이날 삼보일배에는 부산농아불자회 지도법사 도원 스님을 비롯 농아불자회 회원, 여래선원 신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배덕광 해운대 구청장도 함께 참석해 연등을 들고 행렬을 따라 걸으며 농아불자들을 격려했다.

출발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는 청각장애인 임희규 불자의 수화 발원문이 눈길을 끌었다. 임희규 불자의 발원문은 도원 스님의 통역으로 비로소 소리가 되었다. "부산농아불자회 불자들과 동참 불자들의 3보 1배로써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2005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발원합니다."

삼보일배가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목탁소리로 대열의 속도를 맞추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은 앞서 가는 스님들의 뒤를 따르며 속도를 맞춰 나갔다.

삼보일배의 뒤를 등불을 밝혀들고 함께 걷는 이들은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APEC 성공 개최를 함께 기원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삼보일배를 하는 사람들의 이마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다. 석가모니불 정근소리에 맞춰 진행된 청각장애인들의 삼보일배가 이어지자 지나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을 지켜본다. 간혹 합장하며 반배를 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

임희규씨 수화 발원문 눈길

日 청각장애인 · 시민들 격려

삼보일배를 지켜본 여래선원 신도 고영애(56 · 해운대구 중동) 보살은 "정상인들도 선뜻 하지 못하는 일을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나서서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걸 보니 너무 존경스럽고 마음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청각장애인 유코와 게이코 씨도 "처음에는 일본에 없는 삼보일배가 생소했는데 마음을 모아 길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와 닿았다"며 "청각장애인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들리지 않는 귀 대신 스님들의 보조에 맞춰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부산농아불자회원들.

이날 삼보일배는 여래선원 법당에서 회향했다. 삼보일배를 끝낸 임희규 불자는 "처음 해보는 삼보일배라 힘은 들었지만 내가 뭔가 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고 뒷바라지한 도원 스님은 "여래선원에서 매월 세 차례 열고 있는 농아불자회 법회를 통해 불심이 깊어진 청각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장애를 넘어 밖을 향해 마음을 낸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웃어 보였다. (051)939-3114 글 · 사진=천미희 기자

동문들 십시일반으로 재개원

11월 10일, 부산불교교육원 휴교 1년만에 강의실 마련

17년 전통의 재가 불교 교육 도량인 부산불교교육원(원장 박동범)이 지난 1년의 휴교 끝에 재 개원했다.

새로운 법당 겸 강의실을 마련하고 11월 10일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할 예정인 부산불교교육원은 그동안 배출된 1500여 동문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하마터면 영영 문을 닫을 위기였던 부산불교교육원을 동문들이 지켜낸 것이다.

법당 내부 공사 등에 자원봉사
지역 특성 살린 강좌 준비

부산불교교육원은 부산지역에서는 선구적으로 불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일반시민들에게 불교와 우리문화를 바르고 쉽게,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포교, 교육해온 도량. 특히 부산지역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1990년 6월부터 여래사 탁아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탁아시설 온누리 놀이방 개원 3년간 운영했으며 1990년 12월에는 여래사 불교도서원을 개원 불서 읽기 운동도 함께 벌여왔다.

포교와 교육의 선봉적인 위치를 점해왔던 부산불교교육원의 재개원 소식이 전해지자 동문들의 노력 봉사가 줄을 이었다. 성재도 초대 원장을 이어 원장이 된 박동범 원장 또한 부산불교교육원 1기 출신이다.

동문들이 이처럼 부산불교교육원에 애착을 느끼는 것은 부산불교교육원이 불교와 첫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아 초발심의 소중함이 잊지 못하기 때문. 게다가 현재까지 32기를 배출한 동문들이 기수별 모임을 통해 나름의 수행과 봉사를 이어오며 부산불교교육원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회주로 추대하고 부산불교교육원 출신 동문들로 운영위원회를 꾸린 부산불교교육원은 불교입문(6개월), 수진 스님의 경전광좌(6개월), 참선교실(3개월) 등을 개설한다. 또한 매월 한차례 큰 스님 초청 법회 및 친견 법회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강좌, 사찰음식 강좌 등과 토련 수련회, 어린이 한문강좌를 준비중이다. (051)466-4080 천미희 기자

교리 통한 인성교화 방안은?

불교교육연합회 교학연구발표회 개최



불교교육련 주최 교학연구발표회에서 청소년을 교화시키는 다양한 방법 등이 발표됐다. 사진은 능인중학교 교법사 일륭 스님이 첨단미디어교구를 활용한 교학연구수업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불교교육연합회(회장 홍기삼)가 주최하는 제35회 교학연구발표회가 10월 28일 조계종립 대구 능인중 · 고등학교에서 열렸다.

불교교리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교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이날 행사에서 일륭 스님(능인중학교 교법사)은 불교멀티미디어실의 첨단 미디어 교구를 활용한 교학연구수업 방안을 발표했다.

또 아용 스님(능인고등학교 교법사)은 불교초기경전인 아함경을 중심으로 '불타의 대화법을 통한 교화 방법 연구'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능인학원 이사장 장윤 스님과 불교교육련 조용길 수석부회장, 능인중 김용태 교장을 비롯한 전국 종립학교장과 교법사 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27일 앞서 불교교육연합회 종립학교장 총회와 교법사 총회에서는 청소년포교를 원활히 하기위한 불교정신 함양과 친목도모를 위해 매년 성지순례를 개최하는 안과 새 시대에 맞는 청소년교화 포교매체, 포교교재 개발에 지출을 늘리는 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대구 묘적암 진신사리 봉안



경북 영천 팔공산 묘적암(주지 성인)은 11월 1일 적멸보궁과 명부전 낙성식 및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다(사진).

점안식, 권공, 법문, 시식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前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과 봉정사 수좌 성묵 스님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낙성식을 봉행한 적멸보궁은 2평 남짓한 규모의 전통사찰양식으로 1년 6개월 만에 지어졌고, 10년간 미얀마에서 유학한 스님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됐다.

내년 봄에는 60평 규모의 임시 건물을 지어 재가자를 위한 선방 '마음수련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성인 스님은 "재가자들은 스님들처럼 오랜 기간 정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수련원을 개원하면 1개월 단위로 선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대구불교방송 개국 9주년

대구불교방송이 개국 9주년을 맞아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 기원 전창걸의 뮤직편치' 특집공개방송을 10월 29일 조계종립 능인중 ·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었다.

대구불교방송과 능인중고등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음악회에는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 이사장 법타 스님, 능인고등학교 김태욱 교장, 능인중학교 김용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학생 일반시민 등 3천여 명이 모여 인기가수 공연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배지선 기자

제4회 도선사 청담문화제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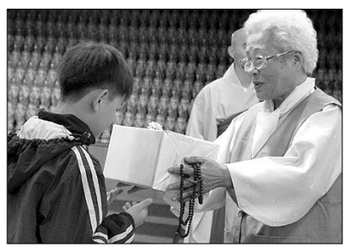


제4회 서울 도선사 청담문화제가 11월 4일 성황리에 개최됐다(사진).

이날 행사는 1부 도선사 창건주인 도선국사를 기리는 1143년 개산대제, 2부 동국대 이강준 교수의 도선국사 사상 특강, 3부 산사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혜자 스님을 비롯, 조계종 종회의원 동광 스님,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을 비롯해 2천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도선사는 11월 15일 도선사 중창조사인 청담 스님 열반 34주기 추모대재와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청담대종사 사리탑 주변 3천 지장보살 조성 봉안 법회를 봉행한다. 강유신 기자

공덕원 개원 25주년 기념법회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주지 효선)이 11월 2일 공덕원 대법당에서 개원 25주년을 기념하며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의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실천승가회 회장 효림 스님을 초청 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부경대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 박무흠 지도교수를 비롯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효림 스님은 법어에서 "지장근본도량인 공덕원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들은 지장보살의 자비심과 원력을 받들어 어렵고 소외된 곳을 보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980년 용산 스님에 의해 창립된 공덕원을 이날 개원 25주년을 기념하며 용호초등학교, 용산 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에 총 3백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보현암 불사금 마련 일일찻집

대구시 수성구 상동 보현암(주지 선진)이 불사기금 마련 일일찻집을 11월 18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대명동 대구불교회관 1층 청류다원에서 개최한다.

주지 선진 스님은 "최근 보현암 바로 앞 250여 평 부지를 교회가 매입해 4층 규모의 문화관 건립공사를 시작했다"며 "50여 평 단층에 불과한 보현암의 수행공간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을 느껴 창건 50년 만에 처음으로 불사원력을 세우고 기금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현암은 불사금이 마련되는 대로 보현암 뒤 약 50여 평 규모의 영남불교문화연구원 건물까지 모두 합쳐 100평 규모의 대지에 보다 여법한 규모의 수행도량을 조성할 계획이다. (053) 767-0274 배지선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조 실 지 유 대선사
주 지 대 성
부주지 계 전
박물관장 경 선
총무국장 정 산
기획국장 성 중
교무국장 범 원
재무국장 지 선
사회국장 무 관
포교국장 지 문
호법국장 혜 수
연수국장 안 도
총무부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전화 051)508-3122~5 / www.beomeos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제 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 인 사



주지 현 응

총림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4-3000 / 팩스 055)934-3010

축제로 꽃피운 '다선일여'

초의문화제 대흥사 일원서 열려

육법공양 및 전국다도회 들차회 행사도

다성(茶聖) 초의선사 유지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된 제14회 초의문화제가 지난 10월 29~30일 양일간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 일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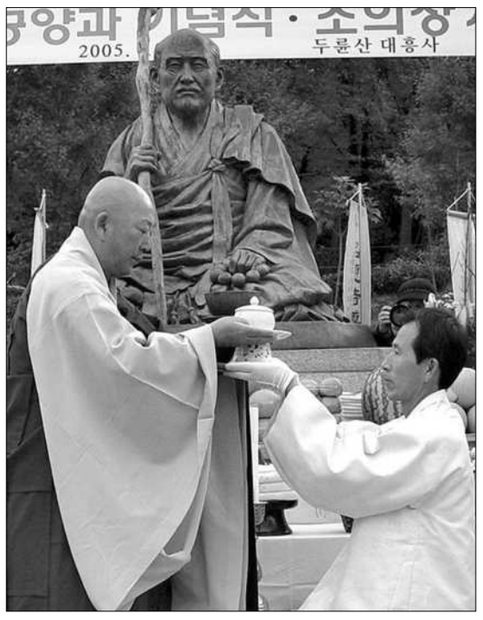
첫날 초의 문화제를 알리는 육법공양에서 몽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차문화 단체가 함께 모여 초의선사의 뜻을 계승하고 다양한 차문화를 널리 보급하는데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는 제14대 초의상 수상자로 선정한 하승완 보성군수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남천다회 회원과 다인들은 일지암에서 초의선사 열반 139주년 추모재를 봉행했다. 동산불교대학 다도반 학인들도 전국에서 모인 다인 300여명과 함께 초의동상 앞에서 육법공양 의식을 갖고 초의선사의 다선일여(茶禪一如) 사상을 기렸다.

이번 초의문화제에서는 부도전 조사다례, 차인 천도 다례재를 비롯해 여연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선담, 어린이 차문화교실, 차음식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으며 전국에서 모인 10여개 다도회는 경내 곳곳에서 들차회를 열고 무료시음 행사를 가졌다

또한 대흥사는 초의문화제 일환으로 다구유물 2000년 전시회(11월 15일까지 문수전)를 개최하고 있다. 해남/글 · 사진=이준엽 기자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이 초의선사전에 차를 올리고 있다.

초의상 수상한 하승완 보성군수

상금 전액 차발전기금 '쾌척'



"이 상은 제가 받는 다기보다 다성(茶聖) 초의선사가 우리차를 대중화하는데 힘써온 보성군민을 격려하는 상으로 군민 모두와 함께 받겠습니다."

10월 29일 해남 대흥사에서 열린 제14회 초의문화제에서 초의상을 수상하고 상금 300만원 전액을 초의선사 정신계승 사업을 위해 내놓은 하승완 보성군수(사진)는 수상소감을 통해 "우리차 전국 생산량 1위의 보성 군민이 함께 받아야 할 상이다"며 수상의 기쁨을 군민에게 돌렸다.

이날 하 군수는 다향제 개최, 녹차 생산기반 확충, 중국과 미국에 녹차 수출로 우리차 세계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초의상을 수상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3기에 걸쳐 보성군수를 역임하고 있는 하 군수는 "초의선사의 뜻을 받들어 우리차 문화와 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시흥 혜진선원

생활불교가 포교 키워드


혜진선원은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사찰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지 승헌 스님과 발전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이웃종교 · 시민 함께하는 행사통해 지역화합
스님 · 신도로 이뤄진 발전위 모든 종무처리

대부분의 수도권 신도시가 그렇듯 시흥은 아직도 불교 불모지다. 실질적인 신행활동을 하는 사찰이 10여개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교회는 1000개 이상이다. 거리에서 포교하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 이웃종교 극성 신도들은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에 물을 뿌리거나 거리에 걸어 놓은 연등을 잘라 버리기까지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도심포교로 불법(佛法)을 전하고 있는 사찰이 있다. 바로 혜진선원(주지 승헌)이다. 1990년 10월 14일 '원력' 하나로 시작된 혜진선원의 도심포교는 어느새 500여 신도들의 공동체로 발전했다.

혜진선원이 진행하고 있는 포교의 핵심 키워드는 '생활불교'. 도시민들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혜진선원은 불교행사를 '비불교적'으로 진행한다. 연등축제에는 개신교, 천주교 등의 이웃종교인들도 참여하며, 시흥시민을 위한 합창단 공연에는 불교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연주된다. 또 동짓날에는 혜진선원 신도들이 준비한 팥죽을 시민들이 함께 나눠먹고 있다.

이와 같이 대외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해서 신행활동을 등한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초하루 · 보름법회와 같은 기본 활동 외에도 어린이 · 중고등 · 거사회 법회는 각각 50명 이상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12기를 맞은 불교대학과 시흥시 각종행사에서 솜씨를 뽐내고 있는 합창단원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하다. 불교대학은 시흥시내 사찰 중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혜진선원에는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참여해 구성된 혜진선원 발전위원회다. 혜진선원 주지 승헌 스님과 각 신행단체 대표자들은 항상 머리를 맞대고 모든 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박현담 기획처장은 "대부분의 종무는 신도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다"며 "큰 행사 역시 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진행된다"고 귀띔한다. 박 기획처장 역시 자원봉사로 종무일을 보고 있다.

승헌 스님은 "처음 포교를 시작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졌다"며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위한 공부방을 개설해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작은 바람을 털어놨다.

불자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달려간다는 혜진선원. 그래서 시흥불교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다.(031)313-3326 유철주 기자

혜은사 · 청원군 함께 경로잔치 열어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이 지용준 위원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사찰과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경로잔치를 열어 화제다.

청주 혜은사(주지 덕산)와 청원군 남일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지용준)는 10월 29일 공군사관학교 잔디광장에서 '제3회 화합의 경로잔치'를 열었다.

20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덕산 스님은 "더 많은 어른들을 모셨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더 좋은 곳에서 어른들을 모시겠다"고 인사했다.

남일면 주민자치위 지용준 위원장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라며 "여러 어르신과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발전하는 남일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원=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나눔으로 청소년들에 희망을
조계사, 장학금마련 바자회

조계사 신도회(회장 대각심)는 '청소년 희망의 장학금' 마련을 위한 작은 가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조계사 백송 앞에서 개최했다.

이와 함께 신도회는 동절기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비의 선물' 나눔의 행사를 12월 31일 까지 진행 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과 12월 2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쪽방생활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자비의 쌀, 김치,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계사 신도회는 이를 위해 경내에 자비의 선물 모금함을 설치했으며, 온라인 계좌를 통한 모금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인다. 계좌번호 : 농협 053-01-252363, (02)732-2183 조용수 기자

전주 '참좋은우리절' 상량식
내년 부처님오신날 낙성 예정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지난 10월 30일 삼천동 법당 신축현장에서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사부대중 500여명과 함께 상량식을 봉행한 회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건립하는 도량은 중생과 함께하는 전법도량으로 기도와 교육, 포교에 힘써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세우는데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4년전 전주역 앞 상가건물에서 도심포교당으로 문을 연 참좋은우리절은 2000여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00평 규모이다. 낙성은 내년 부처님 오신날이다. (063)245-8027 이준엽 기자

도심포교당 서울 홍원사 개원



서울 강서구 도심포교를 위해 설립된 홍원사(주지 성오)가 10월 28일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경로잔치와 축하음악회, 낙성기념 영산재 및 조상천도기도회향 등으로 진행된 이날 낙성법회에서 홍원사 회주 동주 스님은 "서울 서부권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본불교 관련한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원사 낙성법회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광덕사 회주 혜인, 해인사 율주 종진, 통도사 율주 혜남,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과 홍원사 가족법회 문성환 회장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유철주 기자

도갑사 관세음32응신도 집중 고찰

11일 한국종교사학회 국제학술대회서

한국종교사학회(회장 양은용)는 '관세음보살 32응신도의 예술세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11월 11일 10시 전남 영암 영암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월출산 도갑사 관세음보살 32응신도 모사제작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원복 국립광주박물관장의 '관세음보살32응신도에 나타난 산수화 양식', 김승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관세음보살32응신도의 불교회화사적 의의', 우메야마 히데유키(梅山秀幸) 일본 모모야마가쿠인대학 교수의 '저주물로 본 관세음보살32응신도'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도갑사 관세음보살 32응신도는 조선 인조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 일본 교토의 정토종 치온인(知恩院)에 소장돼 있다. 박익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은 적 사

주 지 虛 韻

신도회장 하 보타월 합창단장 권 정행성
봉사단장 문 청량심 문사수법회회장 최 선해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3동 1572 전화 053)653-1572, 9179

은적사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 장 조 대선행

外 교직원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9동 627-5 전화 053)621-1003, 653-9269

대한불교 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통 도 사

방 장 야부 초우

주 지 이산 현문 전계사 중산 혜남
부주지 서원 태봉 선원장 천진 보탑
박물관장 범하 명정 강 주 혜엄 우진

총무국장 문 성 기획국장 오 심
교무국장 보 화 재무국장 지 수
사회국장 명 현 포교국장 영 랑
호법국장 원 진

영축총림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182 / 팩스 055)382-7196

불교 잠재력 무궁무진

인천 · 강화

인천 區별 · 연령대별 사찰 연합체 속속 결성

강화 명찰의 고장…지역문화 발전 이끌어

 # 인천 불교의 불모지로 알려져 있는 인천.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인천불교는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고, 불교세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리 약한 편이 아니다.

인천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화엄종 법륜종 삼계종 정토종 법사종 등 다섯 곳의 총무원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일붕선교종 법사종 화엄종 종정도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 종단의 지도자와 총무원이 밀집해 있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또 하나, 연령대별 스님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자 장점이다. 인천 지역의 65세 이상 스님들의 모임인 '인천불교원로회'(회장 붕해)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40대 젊은 스님들의 모임인 '인천불교쭉비회'(회장 일초)도 수시로 만나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불교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사찰들의 연합체가 많다는 점도 특이하다. 모든 종단을 아우르는 인천불교연합회가 있고, 이중 조계종 사찰들이 별도로 '조계종 사암연합회'를 결성해 이름을 내걸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연수구 등에는 구 단위 사찰연합체가 구성돼 있다.

불교회관을 갖고 있는 것도 인천불교의 특징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인천시청불자회, 인천 법조인 불자회, 인천 신도연합체인 하심회, 지역 군부대 법회가 열린다.

이렇게만 보면 인천불교는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특징들이 하나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힘을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불교회관이 운영문제를 둘러싼 일부 스님들 간의 갈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인천불교연합회와 조계종 사암연합회도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하면서 인천불교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한 스님은 "개별 사찰은 부자인데, 전체는 가난하다"며 이런 현실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스님들은 인천불교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비록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개신교세가 강한 곳이라고 하지만 포교 열의와 인프라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 불붙으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허황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신행도량인 흥륜사는 이제 지역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을 만큼 위치를 확고히 다졌고, 용화사는 수행도량으로서 불교의 정신을 알리고 있다. 또 법립사는 철저한 교육을 통한 정법도량으로, 약사사는 기도도량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고 불자들과 지역민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부루나포교원은 청소년 포교로, 인해전통문화예술원은 불교예술로 대중 속을 파고드는 등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린 활동을 펼치면서 불교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강화 강화군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불교는 사실상 따로 움직인다. 그리고 강화불교는 인천불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유명한 전통사찰이 강화에는 많다는 것이다. 전등사 보문사 백련사 정수사 청년사 적석사 등의 전통사찰들은 강화불교의 힘의 원천이다.

사찰 간 화합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인천과는 다른 점이다. 사암연 차원에서 어린이 · 학생 수련회를 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도교육을 하는 등 강화의 사찰들은 사암연합회를 축으로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경승활동도 활발해 백련사는 강화경찰서에 찻집을 만들어주었을 정도다.

사찰들도 개별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포교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등사는 삼랑성문화축제와 템플스테이 등으로 강화불교를 이끌고 있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적석사는 아름다운 일 · 출몰을 볼 수 있는 낙조대와 함께 기도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불자들과 일반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또 보문사는 용왕기도로, 선원사는 논두렁연꽃축제로, 무애원은 도자기와 함께 군포교로 이름을 높이고 있으며, 법왕사의 '코끼리 유치원'은 강화 최고의 유치원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전등사 보문사 백련사 적석사는 전통찻집을 갖추고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편안한 사찰 이미지를 심고 있다.

사실 강화는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여건은 아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강화도 개신교세가 훨씬 강한 곳이다. 사찰 수 30여 곳과 비교해 교회는 250개가 넘을 정도로 인구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불교를 부러워한다. 강화군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각종 지역행사는 물론 복지활동도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인천 · 강화=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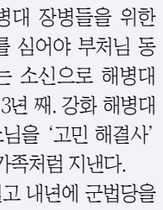


해병대 장병들이 강화 무애원에서 도자기 빚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무애원은 강화 지역 장병들에게 휴식처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군 포교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강화 무애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흥륜사를 포교 1번지로

법륜 스님 (인천 흥륜사 주지 · 관음종 종회의장)



법륜 스님은 인천 불교 포교의 대명사로 불린다. 40년 동안 인천에서 포교에 매진하면서 흥륜사를 인천의 포교 1번지로 자리매김 시켰다. 때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과 만나고, 시대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불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문을 하기 전 이틀을 꼬박 법문준비를 할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신도들에게는 철저한 신심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천불교연합회장을 두 차례 역임하고,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아 불교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해병대원의 고민 해결사

설봉 스님 (강화 무애원 주지)



설봉 스님은 도자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설봉 스님이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도자기 말고 또 있다. 바로 해병대 포교다. 무애원에서 열리는 정기법회와 특별법회는 모두 해병대 장병들을 위한 법회다. 청년 나무를 심어야 부처님 동산이 푸르게 된다는 소신으로 해병대 포교를 한지 벌써 13년 째. 강화 해병대 부대원들이 설봉 스님을 '고민 해결사'로 부를 정도로 한 가족처럼 지낸다.

지금의 법당을 헐고 내년에 군법당을 여법하게 지을 계획이다.

인천불교 토박이

탄공 스님 (인천 보화정사 회주 · 법륜종 총무원장)



탄공 스님은 12년간 인천불교연합회 총무를 맡아 인천불교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인천에 뿌리를 내린 지 30년이 넘은 인천불교의 토박이. 10년 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인천 연수구에 포교당을 마련하고 도심포교에 뛰어들었다. 올 1월에는 법륜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돼 중책을 맡게 됐다.

현재 법륜종 총무원사와 연수원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법 신행 바람 일으켜

현성 스님 (인천 법림사 주지)

18년 전 법림사를 창건, 인천불교에 정법신행의 바람을 일으켰다. 법림사의 불교대학, 일요법회, 산악회, 합창단은 내실있는 신행단체로 정평이 나있다. 현성 스님은 또 신도들에게 수행풍토를 조성해 주기 위해 안거 때는 선방 대중공양도 빠뜨리지 않는다. 인천의 조계종 사암연합회장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지역불교 발전과 화합에도 기여했다.



지역 청소년 포교 일인자

선일 스님 (인천 부루나포교원 주지)



인천에서는 청소년 포교하면 선일 스님으로 통한다. 15년 동안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청소년인권정책개발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선방과 찻집 등을 설립,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9년 인천에서는 유일한 조계종인가 불교대학인 인천불교대학을 개설했다.

적석사 기도도량 탈바꿈

선암 스님 (강화 적석사 주지)



폐사직전의 적석사를 강화 제1의 기도도량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 8년간 도량을 정비하고 전각불사를 통해 적석사를 완벽하게 복원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과 교육국장, 총무원 감사국장과 기획국장을 지낸 실력파이기도 하다. 불교방송에서 1년 넘게 '신행상담실' 코너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다채로운 이벤트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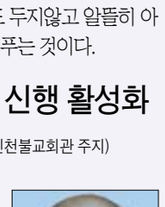
성원 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

황토한증막, 목탁소리 내는 소, 무료 썰매 · 스케이트장, 논두렁 연꽃축제. 성원 스님은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불교와 일반의 간격을 좁히면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蓮)에 대해 관심을 집중, 연꽃을 대중화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연을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또 농민의 소득원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강화군과 협의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예술 대중화 헌신

일초 스님 (인해전통문화예술원 이사장)

인천무형문화재 인천수륙재와 범패 · 작법무 보유자인 일초 스님은 불교전통예술 대중화에 매진하고 있다. 불교전통예술 전수를 위해 인해전통문화예술원을 설립, 서울과 인천에 연수관을 두고 전수생 교육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인천 무형문화재공연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지역문화 창달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5월 삼계종을 창종하고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중장기 발전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을주민의 사랑 한몸에

윤진 스님 (강화 화개사 주지)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 교동도. 교동도의 유일한 사찰 화개사의 주지 윤진 스님은 교동도 마을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경로잔치도 열고 군인들 위문도 자주 가고, 농번기 때는 농사일도 돕고, 마을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추수철에는 마을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그렇다고 화개사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양주도 두지않고 알뜰히 아껴 지역민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특별법회로 신행 활성화

일지 스님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요가족법회 풍물법회 어린이법회 합창단 법회와 함께 기초교리와 경전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를 하고 있다. 또 매년 한 차례씩 '큰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있으며, 염불봉사단도 조직해 자원봉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도들의 신행활성화를 위해 사보를 창간, 11월 9일 창간호를 발행할 예정이다.

기도도량 가꾸기 구슬땀

화응 스님 (인천 약사사 주지)



1999년 약사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약사사를 젊고 역동적인 사찰로 바꾸어 놓았다. 종합불사계획을 추진, 5년 간 각종 불사를 통해 사격을 갖추었으며, 100평 규모의 돌로 쌓은 화엄일승법계도와 지장전을 내년말까지 완공해 완벽한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남동구경찰서 경승위원장, 인천교도소 교화위원을 맡아 지역활동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 2005년도 EPS밸브 설치 현황
부산 남도빌라 · 청주 두진빌라 · 안동 현대아파트 · 목동 우성아파트 · 일산 후곡아파트 · 산본 한양아파트
인천 작전동 동보아파트 · 대전 한밭대학교 신축 기숙사 · 부천 오정지구 주공아파트 현장

• 현재 전국 각 사찰에서 시범설치 점검중이고, 난방비 절감 확인 후 많은 사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율 15%이상 안될 시 환불해 드립니다)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 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개성 영통사 500년만에 복원

천태종 40억 지원 결실 남북불자 600명 참가 낙성



천태종 종조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출가 사찰인 개성 오관산 영통사가 폐허가 된지 500년만에 되살아 났다.

천태종은 10월 31일 총무원장 운덕,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 심상진 스님을 비롯 6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성 영통사(사진)에서 낙성식을 거행했다.

1998년 일본 다이쇼대학 발굴조사 당시 1125년 의천 스님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대각국사비와 3기의 고려시대 탑들만이 존재했던 영통사는 2000년 부터 불사가 시작돼 2004년까지 5년동안 26개동으로 복원됐다. 복원사업에는 북한이 건설을 주도하고 천태종이 기와와 단청 재료 등 40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낙성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대각국사께서 11세에 출가하시어 20년간 주석하셨던 영통사가 수풀만 우거진 지 실로 500년 만에 대가람의 위용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남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자비가 아니다'라는 대각국사의 말씀처럼 내것만 고집하지 말고 민족모두의 공동선을 추구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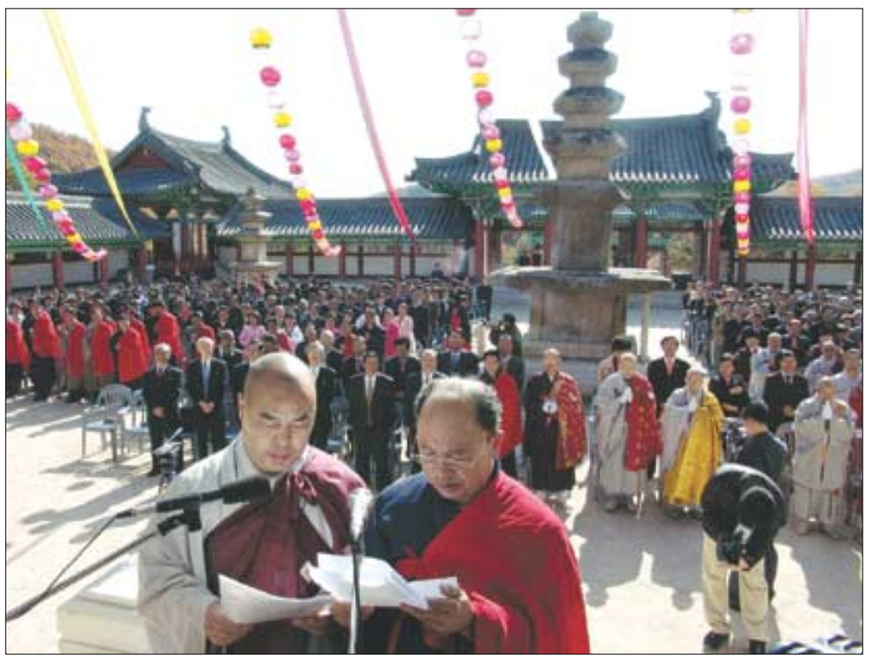
이어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은 "영통사 복원에 동포애적 지원을 하여 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남녘의 불교 천태종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남측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부장 정각 스님은 조국통일기원 공동발원문을 통해 "우리들은 민족사에서 존엄높은 통일국가였던 옛 고려국의 수도 개성의 영통사 복원 낙성식을 인연으로 분단의 고통을 끝장내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앞길을 열어갈 의지를 담아 부처님전에 간절히 서원한다"고 천명했다.

천태종은 종도들을 대상으로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펼치는 방안을 조불련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태종은 1일 고려 천태종 본산인 국청사 복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성 송산 서남 기슭에 절터만 남아 있는 국청사는 대각국사의 모후인 인예태후의 원력으로 7년의 국가적 불사끝에 고려 선종 6년 1089년 완공한 사찰.

글 · 사진/개성=김원우 기자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출가해 주석했던 오관산 영통사 낙성식에서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사진 왼쪽)과 조불련 정각 스님이 공동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고려 정치제도상 보여주는 대표 사찰"

영통사 복원기념 남북 학술세미나

"영통사는 고려시기 대표적 절 건축의 하나로 당시의 정치제도상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당대 국사급 절 건축의 면모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개성 영통사 낙성식이 끝난 뒤 곧바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평양 건재대학 위영철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위교수는 "영통사 주요건물에 복원된 치미 장식은 3국 시대나 조선시대의 지붕 치미(용마루 양끝 장식 기와)와는 달리 물고기 형상의 새로운 시대성을 띠고 있다"며 "영통사 복원과정에 자체의 고유한 합법칙적 과정을 밟아온 목구조 기술수법의 한 측면이 밝혀지게 됐다" 고 덧붙였다.

이어 동국대 김영태 명예교수는 "영통사는 10세기 중반 이전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현존 사료 중 영통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보이는 <균여전>에 균여가 938년에 출가해 영통사 의순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또 "고려사 등 역사적 문헌들을 보면 영통사는 국왕의 신앙 도량이자 왕실의 외호사찰(外護寺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 사회과학원 리창언 부교수는 "영통사터의 묘실터가 의천 스님의 묘실이였다는 것은 <대각국사외집>등 문헌 기록과 대각국사 비문 발굴자료가 잘 말해 준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국대 이영자 명예교수, 재일본 조선력사고고학협회 천호천 회장이 대각국사 사상과 천태종 창종 영통사 복원의 조사발굴 정형등에 대해



미륵종, 승려단기연수교육

미륵종(총무원장 송정) 제7차 승려단기연수교육이 130여 명 말사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10월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남양주시 대원정사에서 개최됐다. 입교식, 용상방 및 교수사 소개, 구족계 강좌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말사운영에 필요한 종무행정, 불교의식, 신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김원우 기자

총지종 스승 전법관정수계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10월 18일 서울 총지사에서 금강삼매야계단을 설치하고 전국의 스승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스승이 아사리가 되는 의식인 전법관정수계를 봉행하였다.

이날 전법관정수계에서는 증계아사리에 불멸심, 일성혜, 의강, 하정, 혜암기로스승이 위촉되고, 전계아사리에 우승 통리원장, 교수아사리에 법공 전 통리원장, 걸계아사리에 시각화전수, 최상관전수, 갈마아사리에 원봉기로스승이 위촉됐다. 전법관정수계식은 개단선언, 삼취정계게송, 참회서원, 오대서원, 수계자 귀명참회, 대아사리 청사봉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수계를 받은 명단은 지공정사, 혜안정전수, 자심관전수, 원당정사, 행원심전수, 혜원정전수, 지정정사, 승원정사, 묘원화전수이다.

한편 총지종은 10월 20일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백월사 불단 이설불사를 봉행했다. 강유신 기자

덕암 스님 부도탑 30일 제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덕암문도회(회장 혜준) 주관으로 11월 30일 오전 10시 태고총림 선암사 부도전에서 덕암당 흥덕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기념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한다. 前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덕암 스님의 부도탑은 태고보우국사의 부도를 본떠서 제작되고 있다. (031) 534-3270

조계종, LA 서래대에 유학승 파견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미국 LA에 소재한 서래대(University of West)에 2006학년도 봄 학기부터 유학승을 파견하기로 하고, 11월 3일 석사과정 근후 스님, 어학과정 신원 범준 효현 스님 등 4명을 선정했다.

이번 유학승 선발은 학사학위이상으로 토플 550점 이상이거나 서래대학의 어학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조계종 소속 비구·비구니를 대상으로 했다.

서래대학은 대만 불광산사에서 운영하는 정규 종합대학으로 1년 과정의 어학연수는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을, 대학원은 등록금과 기숙사비의 절반인 7500달러를 지원한다. (02)2011-1801. 조용수 기자

종단협회장 지관 스님 추대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회장에 추대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1월 3일 서울 하림각에서 이사 간담회를 열고 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지관 스님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최근 회향한 제8차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결과보고, 불지사리 봉행 건 등을 논의했다.

스리랑카 복지센터 조계종, 연내 착공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센터가 이르면 올해 내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부장 현고 스님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총무원장 스님에게 스리랑카 복지센터 착공식을 원래 예정대로 12월 중에 진행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10월 12일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스문화사회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 향후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센터는 아동보육과 불교문화교류, 현지인 직업교육 등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현재 파견돼 있는 지철 스님과 현지 교민들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스리랑카 복지센터는 콜롬보에서 캔디 방향으로 약 40km떨어진 위치의 부지 2만 5000여 평에 건립된다. 복지센터에는 1차로 60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과 방문자 숙소, 식당, 보건소, 유치원, 행정실 등이 들어서며, 2차로 한국 전통사찰과 수행체험센터가 자리할 예정이다. 특히 수행체험센터에서는 한국의 간화선과 스리랑카 위빠사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철주 기자

진각종, 연인만들기 이벤트

진각종이 연인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은 11월 1일 '진각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인연에서 연인 만들기-20~30 진각인 매칭이벤트' 계획을 발표했다. 진각복지재단이 밝힌 '20~30 진각인 매칭이벤트'는 20~30대 젊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연인이 되도록 이어주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첫 만남 행사는 12월 1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빅토리아 호텔 5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다.

접수는 진각복지재단 중앙사무처를 방문해 직접 하거나 팩스(02-942-0146)로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일반인의 경우 6만 원이고, 만월회 회원은 5만원이다. (02)942-0144~5 김원우 기자

제2기 열린불교아카데미 강좌

서울 갈현동 열린선원(원장 법현)이 11월 12일(토)부터 제2기 열린불교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다. 이 번에 제2기 과정은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세계관, 불교예절등 기초교리를 강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제1기 열린불교 아카데미 기초1과정 수료자 및 타 불교 교양대학 수료자이다. 강의는 열린선원 원장 법현스님이 담당한다. 수강료는 무료. (02) 386-4755

김원우 기자

광주 명상상담 아카데미 개원

◆ 2005년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 백운동로터리 광남목재 5층

Ⅰ. 주요 프로그램 안내

1. 명상상담 불교대학
   1) 지도법사 : 인경스님(동국대, 철학박사)
   2) 기초교리 : 매월 셋째 금요일 저녁 7시30분-9시 30분
      토요일 오전 10시 -12시
   3) 개강일 : 11월 18일 저녁 7시 30분
2. 명상요가
   1) 지 도 : 김형구(전남대, 석사)
   2) 시 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8시 30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8시 30분
3. 명상전문 수련과정
   1) 지도법사 : 인경스님(동국대, 철학박사)
   2) 클 라 스 :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3)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4시

찾아오시는길

● 명상상담연구원 광주전남지구 법당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 2동 634-26 광남목재 5층 명상상담아카데미

☎ 062)651-5580 / 011-645-2935

Ⅱ. 프로그램별 주요내용

1. 명상상담 불교대학-기초교리반

월	주요내용	날짜시간
11월	1. 불교예절과 불교 기본관점 - 예배법, 자등명과 법등명	18일(금), 저녁 7시
	2. 인간에 대한 불교의 이해 - 오온과 무아	19일(토), 오전 10시
12월	3.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 - 업, 고집멸도, 애착	17일(금), 저녁 7시
	4. 집착과 연기법 - 12연기	18일(토), 오전 10시
1월	5. 불교의 윤리와 실천방법 - 마음, 말, 행동	20일(금), 저녁 7시
	6. 마음의 고요함과 사마타 수행 - 정진, 알아차림, 바른 고요함	21일(토), 오전 10시
2월	7. 지혜의 개발과 위빠사나 수행 - 바른 견과 바른 사유	17일(금), 저녁 7시
	8. 진정한 행복과 법명의식 - 조건화와 궁극적 진리	18일(토), 오전 10시

※ 상기 학습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명 상 상 담 연 구 원 http://cafe.daum.net/medicoun

Meditation Counseling Research Institute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화 계 사



조 실 숭산 행원

주 지 성광

국 제 선 원

사 부 대 중 일 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02)902-2663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11월6일 이전개원, '창조적 도심사찰' 부산 안국선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돔 형식의 지붕이 가져다주는 독특한 외형미로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끄는 건물이 있다. 산의 고저에 거스름이 없이 앉아 있는 이 건물의 둥근 지붕은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을 가른다.

역동적인 선(禪)의 미학을 잘 살려낸 이 건축물은 2003년 봄 착공, 2년 6개월의 불사를 끝내고 11월6일 이전개원한 부산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이다. 평소 정진 대중이 400~500명에 이르고, 안거 대중은 700~8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안국선원이 도심 속의 선(禪) 수행처를 지향하며 완공된 것이다. 11월 6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대중들의 마음눈을 뜨게 할 수행공간으로 문을 활짝 연 안국선원은 독특한 외형만큼이나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사찰 건축의 새로운 불사 모델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통과 현대·수행과 실용의 조화



돔 모양의 법당. 어느 위치에서나 생생한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설계됐다.

 # 누구나 쉽게 찾아와 편히 수행할 수 있는 곳

건물 안이 밝고 환하다. 환기와 채광에 신경을 많이 썼다. 특히 천정높이를 기존보다 1m 이상 높여 실내의 갑갑함을 느낄 수 없다. 총 건평 2100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이지만 지나치게 개방된 감이 없고, 편안한 동선을 따라 이어지며 수행자들의 고요함을 지켜준다.

또한 동시에 2천여 수행자들이 한꺼번에 참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도 번잡하지 않도록 동선을 처리했다. 3중 유리로 된 창은 완벽한 방음으로 정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안국선원엔 담장이 없다. 곧바로 한 길과 이어져 오가는 이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 산의 경사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가람배치와 건축물을 억제한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한눈에 읽힌다. 전통적인 사찰건축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도심속에 되살려냈음을 알 수 있다.

세 개의 건물이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며 가파른 등고의 흐름을 따라 독립적으로 배치됐고, 유기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다리로 연결해 놓았다. 시공(時空)의 초월과 통합을 건물 배치로 시도한 것이다.

본래의 지형 지물을 최대한 살리며 조경은 주위의 나무들이 주를 이뤘다. 땅을 평평하게 고르거나 조작한 흔적이 없다. 거대한 바위를 깨지 않기 위해 건물을 들여서 지어, 그 바위는 건물 뒤를 감싸는 병풍처럼 자연 조경으로 자리잡았다.

 # 곡선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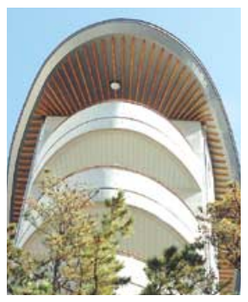
부산 안국선원에 가면 가장 먼저 외벽과 실내의 곡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이 부드럽고 유려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건물의 아웃 라인은 부처님의 눈을 그려낸 듯 하다. 우주와 통하는 눈을 형상화한 것. 그 선 때문에 안국선원 불사에서 가장 고생을 한 사람들은 콘크리트 외장을 담당한 이들. 실이 중력을 받아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곡선을 건축 설계의 핵심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시각적, 건축학적으로 가장 편안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콘크리트로 표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어떠한 외장도 없이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시공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시공 후 원래의 곡선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콘크리트가 만들어낸 유려한 곡선앞에 시공자들조차 감탄을 하며 자부심을 느꼈을 정도.

그렇게 만들어진 베란다는 넓지 않은 마당을 대신해 전통 가옥의 마루 역할을 하며 먼 산을 조망하는 여유를 준다.

 # 유기적 설계로 살려낸 건축의 완성도

안국선원의 가장 큰 특징은 불상, 조명, 음향 전문가들이 설계의 첫 단계부터 공동 작업을 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의 틀을 완성해 놓고 조명이나 음향, 불상 등을 거기에 맞추는 것과는 달리 불상, 조각, 조명, 조경, 음향 등이 유기적으로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공간을 완성할 수 있었다.

단 한번의 설계 변경도 없이 진행되던 불사가 불상 조각의 높이를 고려, 지붕의 돔을 이중으로 변경했을 정도로 상호 유기적인 배려와 조화로 예술성과 기능성을 고루 살려냈다.



유려한 선이 돋보이는 지붕.



실패모양의 곡선형 계단.

2천여명 동시에 참선해도 불편없는 동선
불상, 조명, 음향 전문가 유기적 배려 설계
2100평에 건물 3동이 다리로 연결

특히 음향의 경우, 1000명 이상을 너끈히 수용하는 250평 규모 대법당의 어느 위치에서도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설계됐다. 또한 6m의 석가모니불과 4m의 문수 보현 협시불은 법당의 장엄함을 더한다.

6m 높이의 주불과 닷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붕의 돔을 이중으로 조정했으며 불상을 중심으로 가로 18m, 세로 12m의 입체 목조각으로 부처님 십대제자와 신중을 봉안했다. 설계를 맡았던 박건 소장(건축사사무소 GA 대표)의 안목과 일본 오사카예술대학 카노교수의 조언이 만들어낸 또다른 '법계'는 언제봐도 새롭다.

 # 수행자들 마음과 정진에너지 고스란히 담아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이 던지는 물음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 것인가 하는 물음과 일맥상통한다. 집은 사람과 그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크게는 우주 법계의 에너지가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국선원은 선원에서 생활하게 될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과 그 정진의 에너지를 수용하는데 충실했다.

이제 불사를 마쳤지만 안국선원의 진정한 불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들은 채우고 가꾸어 나갈 사람 불사가 남겨진 까닭이다. 남산동에 세워진 우주의 눈 세 개가 그 미래를 지켜보고 있다. 부산 안국선원(051-583-0993)

글=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우주의 눈을 형상화해서 우주의 기운과 우리의 기운이 합치하도록 고려한 도량입니다. 사람과 자연, 우주가 어우러져 수행하기 좋고 편안하게 정진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11월 6일 개원법회를 가진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밝힌 불사의 핵심이다. 역사속에 남을 불교 건축을 짓겠다는 원력 하나로 150억이라는 불사비를 마다하지 않았다.

"공부위해 지은 도량이니 언제든 찾아 오십시오"

스님은 이번 불사를 통해 "한국불교도 건축 양식의 답습에 그치지 않고 21세기에 걸맞는 창조적인 사찰 건축을 시도해 볼 시점이 되었고 그런 시도를 수용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가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지원만 했을 뿐"이라는 스님이지만 간화선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의 기본 철학이 선원 불사의 뼈대를 이뤘다.

"참선하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두었으니 참선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공부를 위해 지은 건축이니 이 도량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천미희 기자



방송장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신도들 모습.

밀납양초 (Bees Candle)

2005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여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요.

- 1호 59中 × 18cm 約 연소시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約 연소시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約 연소시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約 연소시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 ~ 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 (1 ~ 4호 밀납초 받침대)



야광 용초
뒷줄 6개 = 10-1 70中 × 35 cm
앞줄 5개 = 10-2 56中 × 26.5 cm
그 외 모든 양초 제조 판매합니다.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2교구 본사

효찰 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락
부 주 지 성 직
총무국장 영 명
기획국장 성 호
교무국장 성 무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도 은
포교국장 도 정
호법국장 원 오

대 중 일 동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전화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대한불교 조계종 제 3교구 본사

설 악 산 신 흥 사



회주 **설악 무산**

대 중 일 동

향 성 선 원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033)636-7044, 7393 / 홈페이지 www.sinhu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 곡 사



주지 **진 각**

대 중 일 동

http://www.magoksa.or.kr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마곡사
전화 041)841-6221, 수련원 041)841-6226 / 팩스 041)841-6227

대한불교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은 해 사



주지 **중화 법타**

사부대중일동

www.eunhae-sa.org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 / 팩스 054)335-0293

대한불교조계종 제 21교구 본사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 광 사**



方丈 梵日 菩成
會主 度然 法興
住持 永照

四部大衆 一同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http://www.songgwangsa.org
전화 061)755-0107 / 팩스 061)755-0408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 선 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설산 철안

연수원장 수월 재무국장 혜만
총무국장 가산 사회국장 현봉 능엄학림 대중일동
기획국장 송묵 포교국장 화해 사 무 장 이희준(법운)
교무국장 화광 호법국장 자현 회 계 이영미(일진행)

나만의 법당 www.bongsunsa.net (한글도메인: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TEL 031)527-1951~3 FAX 031)527-8568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벼락맞은 대추나무
워낙 진귀한 것이라,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함. 입시 승진 취업 결혼 사업 성취 매매 건강쾌차 득남득녀 가공하지 않은 진품 그대로 점안하여 드림.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011-9585-4908

당뇨, 고혈압 비만 희소식
(스님에 한해서 원가 제공)
- 제품명 : 비타그린(특허출원)
- 특 징 : 천연식품(환으로 제조)
- 함유영양소 : 천연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 제품크기 : 1통(200g) 1개월분
3개월 복용 후 효과 없을시 환불
- 가 격 : 50,000원
제품시험성적서 및 자료제공
- 홈페이지 www.egreennara.co.kr
- 연락처 : 016-641-5211, 061)901-5211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역학·관상학)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알 림
벌에서(양봉) 채취한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는 우리인체에 항균, 항산화, 면역증강을 시켜준다.
016-779-2237
일림사 도원 합장

자동차 폐차 긴급속보
폐차 프로로 오세요 (압류 볼문+지역정소 구분없음)
과태료+체납세금+압번호판압류차+국민연금+기압류+고장차+방치한 자동차 때문에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 말소 못하고 계십니까? 걱정 고민 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화물트럭+승합차+버스)가능 시정상 우선 급 폐차 환영
이제는 폐차도 어디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최고가 매입(즉시현금지급)
모든 자동차 24시간 무료 출장 견인(공휴일 정상근무)
(국)가유공자 협동 사업장) 수출 부품 판매
대흥산업폐차 TEL 02)3471-4444~5
02)521-7000 / H.P 011-470-3118

발 행 인 모 심
KBS1, SBS TV 광고에 알려진 역학대보감 법상비전 저자 초보라도 알기 쉽고 보기 쉬운 역한 최초로 역은 인연과운명
(국배판 양장본 1,100쪽) 발행인을 찾습니다
문의 051)558-1161
011-842-6123
저자 법상스님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 경력 5년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 컴퓨터 활용가능
- 경기남부지역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및 기획 업무에 자신있는 30대 남자분을 모십니다.
- 이력서 접수 : so0113@yahoo.co.kr
- 서류 심사 후 개별연락 드립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오래된 암자에 사글세 냅니다.
법당,요사채 100평, 용화전, 용왕전,산신각,정각
꼭 원하시는 분만 전화요망
011-9126-2266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좃대, 향로, 다기- 한세트, 조끗이 180개
- 대불조성 6,500만원/대불 모실때 3,500만원,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2회 분할가능)
010-6512-12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지역
016-779-2237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720-5682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보연사가 2005년 9월 15일 오후 2시 40분에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처에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보연사 201061-01-002545 우체국
010-2369-2822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통의 시달림 몸과 마음을 삼보전에 맡기시고 남은 여생 마음편히 살아가실 불자님 모십니다
안락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동참금 3천만원
018-406-3073

절에서 기도하며 계실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예천
011-758-18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찰
041)673-23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불심이 있으신 분
▷서울 지역
010-7225-2537

천일기도 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568-4417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337-250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 대지: 200평(건물만)
- 노스님이나 보살님 적합
- 가액: 1500만원
033)375-1717
011-9280-0778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포교원 안내
- 위치: 노원구 역세권, 상계역 3분거리 최적의 위치, 주거 밀집 지역
- 2,3층 사용시 보증금 1,100만원/월100만원 2층만 사용시 보증금 1,100만원/월8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가능
- 2층-스님방, 종무소 3층-방3, 거실 겸 공양간, 세면실
02)952-8131

사찰안내
-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9-1번지
- 실내평수 60평, 큰법당1, 큰방2, 거실1, 공양간1, 창고2, 화장실2, 옥상 60평 독점
- 가액: 1000만원에 월 60만원 또는 1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개인사정급매
010-7126-8340
032)519-1108

암자안내
- 위치: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평수: 300평, 임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별도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5만원(절충가능)
016-840-3277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시 평리동
- 평수: 36평 2층건물중2층 옥상사용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만원 ●즉시법회가능
011-540-3313
054)481-1033

녹차밭안내
- 위치: 하동군 화계면 (쌍계사 근처)
- 평수: 3140평
- 가액: 1억2천만원
055)883-9321
011-6667-9321

사찰(급)안내
- 위치 : 포천시 소흘읍(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1층 요사채 80평, 2층 대웅전 35평 대웅전앞 반지하 70평
- 개인 위패반 및 부부 위패반 980단
- 가액: 13억5천만원 답사 절충 후 가능
011-9105-724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풍 IC에서 10분거리,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150평, 법당 20평, 요사채 2동, 남향 (사정상 급히 안내합니다)
- 가액 : 1억 3천만원
011-679-217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안락동
- 평수 35평, 불상5불, 각 탱화 모셔져 있음
- 가액 : 보증금 2,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300만원, 집기일체완비, 즉시법회가능
051)514-8108
011-844-9893

사찰안내
- 위치 : 밀양얼음골 부근
- 대지 112평, 건평 거의 100평, 법당뒤 대밭 있고 대구 부산 고속도로 10분거리 하양 20분거리
- 예납 독 학100점 포함, 대지 전체 블레 블럭.
- 황토방전원 시설 전면 수리되어 있음. 2층법당, 1층요사채, 산신각, 심검묘요탑 법수, 심화법수 2개, 황토집 두채, 마을뒤 앞이 트여 전망이 좋음. 평이 20개 개조 고시원 하면 좋음. 비구니, 보살, 노스님, 아주 좋음
- 가액 : 4억 2천만원
010-5572-15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교촌동(시내)
- 대지 : 117평 ● 법당: 인법당 18평
- 시설 : 약사여래불,신중,지장,칠성,산신,용왕당이 좋음
- 특징: 시외터미널인접,포교당으로 적합 방6개(공양간,스님방)심야보일러 설치
- 가액 : 1억 5천만원(답사후가액절충가)
011-595-7360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목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남영으로 자리한 명당의 아늑한 전통한옥으로 꾸며진 법당과 요사채
- 잔디와 향나무가 잘가꾸어진 정원 포장된 주차장을 함께 포함한 일체형 토굴입니다. 드라이가 있는 차을 으르면 낙동강이 펼쳐진 용주지리상 명당입니다.
- 평수: 170평 ●가액: 1억9천만원
- 꼭필요한분만 전화요망
011-245-546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중국중의침구학강좌
중국자격증 학위취득을 위한 무료 세미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침구계(3년) 중의계(5년) 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WTO개방에 대비하고 영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서비스와 해외이민시 병,의원 설립하여 창업을 위한 연수강좌 미국의 한의대(3년~4년)편입 할 수 있으며 NCCAOM고시에 응시할 자격 있습니다.
과목: 체침(전통침), 뜸, 부항, 이침, 양도락기, 건강(약용)식물관리, 활법, 피부관리, 비만침법, 미용침법, 식이요법
- 개강: 매주(화,목) 오전 11시 설명회 입회 (직장인 의료인: 매주(일) 오후2시)
- 재주 분원: 매주(토) 오후 2시
- 중국 연수: 수시(4박 5일) 정기(년 8차)
- 기본세미나: 16주 매주1회 11시~17시
중국 연수유학 전문 중국문화원
02)456-4248, 456-4249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출구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자[예비스님, 남·여]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깨달음(도통)과 불치병·난치병·각종암·신병(빙의·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 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 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무량한 功德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 체험, 빙의·해리 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 천도비법등 신비법 전수.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자비의 손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善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 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現 참선공 협회장

전수반 안내
금요반·토요반
16:00~21:00까지(12회 과정)
- 전수비 : 200만원

특별전수과정
목요반
14:00~21:00까지(6회 과정)
- 전수비 :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神임상최면사 자격증·神치유명상사 자격증·참선공 자격증 발급.
◆ 지도자 과정 전수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신선암 神치유명상센터 神임상최면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 법당 : 18평 포짐
● 부지 : 15,600평
● 요사 : 38평 외 건물다수
● 가액 : 6억
※문화재 보유사찰로 불사금 10억이상 투자된 사찰임

● 위치 : 부산
● 법당 : 18평
● 요사 : 45평
● 부지 : 195평
● 가액 : 4억 7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53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종로구산밑큰절-30억
2.용인목조사찰500평-9억
3.분당포교당34평-3천/140
※ 노전,부전스님, 사찰운영하실스님
공양주보살, 법당보살, 화주보살, 운전직, 종무직, 신속연결
※ 불교일자리소개전문
현대불사 02)555-0575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 가액: 5억5천만원(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집 주인이 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포교당안내 (싸게 인수 하실 분)

● 위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평수: 45평.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급후불 탱화 3점.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시설비 합 1천3백만원.월세 40만원
016-261-2068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사찰 안내

● 위치 : 가평
● 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8천

● 위치 : 사천
● 부지 : 6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동 52평
● 가액 : 2억 4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내. 대구, 왜관에서 15분 거리
● 대지(밭 같이있음)416평-실제사용600여평
● 대웅전,삼존불,요사채3동 화장실,세면실 주차장 완비 난방시설 : 심야전기보일러 36평2개
● 중계업자 일체사양, 직접운영하실 스님만 전화요망 ※스님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5천만원
010-3542-3203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하단동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055)338-3020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간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 대지: 100평
● 4층 법당 50평
● 2층 요사 50평 3층 요사 50평
● 양도가: 9억

● 위치: 서울시내
● 부지: 1000평
● 법당: 20평
● 요새: 50평
● 양도가: 6억5천
● 산세 및 계곡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법당, 요사채3채, 총 760평
● 창고, 방4개,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 2억 5천만원
011-562-9873
055)883-8846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시설비2,0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약 100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1개,큰방2개,거실,욕실, 도시가스(잘됨해결), 금불상, 삼존불,법단2단 복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700만원. 주차가능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시장 뒷길
● 평수: 약 60평. 2층 방3, 3층방 1개
● 법당, 엠프 에어컨 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843-2403
051)554-2406

암자안내

● 위치 : 구미시 옆 칠곡군 약목면 소재
● 임범당, 정원 밭. 350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년 350만원, 양도도 가능 양도가 1억
017-813-9126

사찰안내

● 위치: 충북 보은
● 건평 60평 대지텃밭 1000평
● 법당 인법당, 육지장보살봉안 지장기도도량으로 조용하게 수행이나 기도하시고자 하는 조계종 스님
● 창고, 하우스, 방7개, 심야 전기보일러, 지하암반수 등
018-227-0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부근
● 4층 법당 45평-삼존불, 엠프시설 등 제반시설완비, 5층 요사채 45평-에어컨 등 모든시설 완비 4,5층옥상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됨. 즉시 법회 가능
● 시설비 절충가능
010-9527-3461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건천 I.C에서 5분거리)
● 평수 : 1161평 중 168평-전용허가 필, 바닥기초공사 완료, 주택 25평, 창고 15평, 건축허가 배산임수, 명당, 경관수려
● 가액 : 7천만원
017-585-4980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중 3층 (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천하요새의 도량
● 사찰 건립 60년된 평수 1천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종각 2평, 요사방6개, 주방시설완벽
● 주차 30대 시설완비
● 가액: 5억
010-4877-5900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30만 신도시 지하철2분거리
● 평수: 100평. 시설최상급
● 가액: 보증금 1천5백만원 월130만원(전,월세도 가능)
● 특징: 10년 운영중 (불교교양대학) 시설비 절충가능
011-9904-6957

포교원안내

● 위치 : 강남
● 요사채 50평, 법당50평
● 보증금 2,500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절충
010-7163-539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대지 235평
● 법당 요사채 각 18평
● 가액: 1억9천만원 상담후 결정(신축건물)

● 위치: 경남 고성읍 죽계리
● 전세 3천만원 월 50만원
011-879-7551

비구니스님으로 아담한 사찰안내

● 전주시 중심 단독상가주택 1층, 2층
● 대지 110평 8×8미터 코너절 건평 120평 1층상가 6개 2층법당 휴블순금탱화 입체 100평, 철정순금탱화 입체 50평, 신중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법당, 흥송조각 3단 15자 부처님 삼신불 4위반 자신있게 갖춘도량임 완벽함
● 1층상가6개에서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가액 4억7천만원중 상가 보증금 빼고 2억6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완료. 융자가능 답사하시여 의논바람
032)667-8485
011-650-8481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청 뒤
● 대지: 약20평 1층요사채 18평, 2층 법당 18평 옛날 기와집
● 가액: 9천5백만원 (융자 3천만원)
● 특징: 국제,새벽,자갈치 시장 5분거리
● 노스님이나 비구니스님께 적합
약20년된 절
0502-244-3888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채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 055)337-860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남부민 1동
● 평수: 약399평
● 법당 15평 방4개, 산신각, 용왕각 화장실, 종각등 시설완비
● 도로에서 30m로 전망 좋은 곳입니다
● 가액: 3억2천만원
011-580-1407

사찰 겸 포교당안내

● 위치: 원주시 반계동 (서울 1시간 거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인구 밀집지역 3층건물중 3층(41평), 옥상사용
● 큰방3개, 큰거실1개, 큰주방1개, 욕실2개, 난방시설: 도시가스
● 삼존불(제약사불) 개금 108불 동불 개금 불상 신중탱화 대산신(단청)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일체 답사후 가액 절충
010-4510-818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 상가건물 53평 옥상 55평 사용가능
● 시설 : 삼존불 외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 2개 시설A급, 시장입구 주차장완비
●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위치좋음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한 분 연락바람
017-508-2675

조용한 암자 운영하실 분

● 위치 : 경기도 양평 청운면
● 평수 30평, 요사채2동, 방5칸
● 특징 : 서울에서 40분거리, 엽불, 기도 포교하실 분에게만 적합함. 흥천방면 큰 대로에 위치하여 교통이 아주 편리함.
● 가액 : 건물만 6천 5백만원(점종가능함)
※ 대지는 안씨종중 땅입 꼭 운영하실분만 연락 바람
017-379-220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명당
● 대지: 5000평 ● 건평: 150평 (1층 100평 2층 대웅전 33평)
● 특징 : 신축불사중 노인전문 요양원, 납골당시설운영가능 관광특구예정지 대구시내전역 40분거리
● 가액: 상담후결정 (꼭 뜻있는분만 전화요망)
● 중개인 절대전화사절
010-2775-0409

사 찰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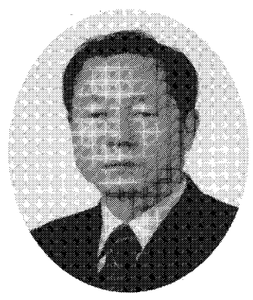
● 위치 : 충북보은 ● 임대 3,000만원
● 건평 60평, 대지텃밭 1000평
● 법당 인법당 육지장보살봉안으로 조용하게 수행이나 기도하시고자 하는 조계종 스님
● 방7개 욕실2개 화장실3개 심야전기보일러 지하암반수 창고 하우스등
018-227-0939

사찰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 건물: 약40평(인법당)
● 법당: 18평, 부지: 약 300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
02)918-1215
016-237-3006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등374-2번지
전화: 062-266-6693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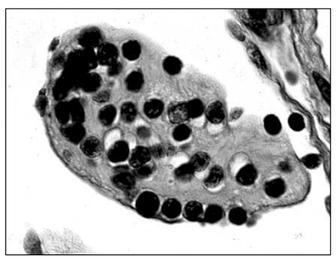
“수행이야말로 참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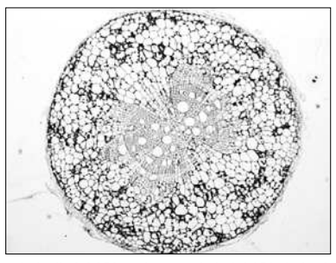
한의학물리硏, 경락 · 경혈 실체 · 기능 속속 밝혀내

현대의학에서 외면 받아온 경락 · 경혈의 해부학적 실체와 기능 · 구조가 서서히 신비의 베일을 벗고 있다. 봉한학설에 입각해 경락 · 경혈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한의학물리연구실 소광섭 교수 연구팀은 최근 봉한계가 제3의 순환계며 식물과 닮은 다발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봉한체계를 통해 생명의 원리를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팀은 내심 정신수행의 신비까지도 과학으로 풀어내겠다는 욕심이어서 불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구팀은 10월 2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재)한국정신과학학회(회장 이종원)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신 연구성과를 공개했다.





여러 개의 봉한소관으로 이뤄진 봉한관의 단면(위) 구조가 식물(아래)과 흡사하다.

■인간의 몸은 소우주

소광섭 교수 연구팀은 봉한관이 식물과 유사한 다발성 구조로 돼 있으며, 그 안에 봉한액이 순환한다는 새로운 실험결과를 소개했다. 봉한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이 의미 있는 까닭은 봉한관이 혈관 · 림프관에 이어 제3의 순환계로서 기능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봉한액의 순환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흰쥐 장기 표면의 봉한관 · 봉한소체에 형광을 띠는 나노입자를 주입하고 흐름을 관찰했다.

그 결과 나노입자가 20여분에 걸쳐 3.5~4cm 진행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로써 봉한관은 봉한액을 갖는 순환계일 가능성이 커졌다. 해부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조직을 발견한 셈이다.

봉한시스템이 순환계라는 사실 못지않게 흥미로운 것은 봉한관이 다발형 구조라는 점이다. 연구팀은 봉한관이 작은 봉한소관의 집합체로, 다발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구조는 단일관인 혈관계 · 림프계와 구별되는 것이다.

다발구조는 물관 · 체관 등으로 이뤄진 식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구조다.

연구팀은 봉한계(경락계)가 식물의 생명유지를 위한 근본구조와 일치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를 부여하며 “우리의 몸이 대우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며 함께 생을 영위하고 있는 소우주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3순환계 가능성 규명, 식물과 닮은 다발형 구조

수행 통해 부교감 신경 활성화 … 세포 재생 왕성

■禪수행과 봉한계

연구팀은 명상과 참선 같은 정신적인 수행을 생리생화학적인 물질 차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참선은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데, 특히 날숨에서 봉한계가 활성화돼 생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재생이 왕성해진다는 것이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몸 구석구석에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봉한관과 봉한소체에 작용해 운동력을 증가시켜 봉한액을 전신에 순환시키며, 봉한액 중에 존재하는 봉한산알(DNA과립)은 세포로 부활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가설이다. 봉한산알이 세포로 성장한다는 이론은 세포분열에 의한 세포생성만을 말한 기존학설과 다른 새로운 세포생성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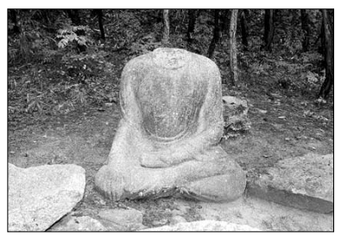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순수한 정신수행인 명상과 참선이 경락을 매개로 생체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선수행자들이 남달리 해맑고 건강한 얼굴을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원리 때문이라는 것.

발표를 맡은 서울대 한의학물리연구실 이병천 박사는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명상과 참선 등 정신적인 수행을 할 때”라며 “자기 몸의 세포를 새로이 생성시키는 수행이야말로 장기대체나 생명조작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의학”이라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봉한학설이란

1960년대 북한의 김봉한 박사가 경혈과 경락의 체계를 해부학적으로 규명해 세운 이론체계. 김봉한 박사는 경혈을 봉한소체, 경락을 봉한관이라 명명하고, 봉한소체와 봉한관으로 이뤄진 봉한계가 피부뿐 아니라 장기 표면 · 혈관 · 림프관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말았다. 40여년이 흐른 지금, 봉한학설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서울대한의학물리연구실에 모여 소광섭 교수를 중심으로 봉한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의 새갓곡 석불좌상.



이번에 새로 발견된 불두.

새갓곡 석불좌상 불두 찾았다

불신(佛身)만 남아있던 경주남산 새갓곡 제3사지 석불좌상이 불두를 찾아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는 경주남산 새갓곡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불두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 새갓곡 제3사지 석불좌상(경북유형문화재 제113호, 열암곡 석불좌상)의 것임을 확인했다.

불두를 처음 발견한 이는 경주남산연구소 회원 임희숙씨로 지난 10월 23일 새갓곡 일대를 답사하던 중 석불좌상 아래쪽 37m 지점에서 불두 형상의 석재를 발견하고 경주시 문화재과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신고함으로써, 새갓곡 석불좌상이 제모습을 찾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발견 당시 불두는 나발이 표현된 뒷머리 일부만 바위틈에 노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불두는 잔존높이 62cm, 너비 41cm, 목지름 33cm 크기로 코와 왼쪽 턱 일부, 목 뒤쪽 일부가 결실된 상태였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측은 “석고틀을 제작해 부착해본 결과 깨진 부분이 일치했으며 암석 성분 역시 흑운모가 많이 함유된 전형적인 남산 화강암으로 불두와 불신이 동일 개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주대학교 임영애 교수(불교조각사 전공)는 “경주 남산에 많은 석불 가운데 불두까지 온전히 갖추고 있는 예는 많지 않다”며 “전체적인 비례가 당당한 8세기 후반의 빼어난 작품인 새갓곡 제3사지 석불좌상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광배 및 대좌 편들에 이어 불두까지 발견됨으로써 이제 완전한 불상이 됐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

‘불교와 생명윤리’ 주제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는 추계학술대회를 ‘불교와 생명윤리’를 주제로 11월 12일 오전 10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의 ‘불교의 생명이해’, 허남결 동국대 교수의 ‘불교와 생명윤리’, 곽만연 동아대 교수의 냉동배아 이용에 대한 불교적 고찰‘, 안옥선 순천대 교수의 ’불교윤리와 현대 윤리학‘이 발표된다.

이중표 회장은 “생명조작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어 생명윤리 확립이 시급하다”며 “불교의 생명관과 생명윤리, 그리고 생명공학에 대한 불교의 관점이 불교윤리학의 지평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0502)408-3280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1>

한국의 10대 기술

최근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 공학한림원이 한국의 10대 기술을 발표했다. 한림원은 각 분야에서 경륜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 사회의 문제점 및 비전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

한림원이 발표한 한국의 10대 기술은 근래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중요한 기술을 선정한 것이다. 기술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DRAM, 플래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반도체 · CDMA · 디스플레이 · 인터넷 온라인 게임 기술 등 4개, 기계 · 조선 분야에서 자동차 · LNG기술, 화공재료분야에서 2차전지(계속 충전 가능한 건전지) · 철강제조기술,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초고층건축 · 한국표준원자력발전기술이 선정됐다. 기타 생명공학 기술 등 훌륭한 과학 기술이 선정되지 못한 것은 기술의 선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세계 수준

불성계발 – 과학기술, 어떻게 볼 것인가

선정된 10대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대단하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투자를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의 기술과의 격차를 고려했을 때, 반도체에 투자를 시작하면 곧 망할 것이라고 반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말 DRAM 분야, 그리고 2000년대 초에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성취했다. 이러한 반도체 기술이 있기에 휴대폰을 비롯한 가전 기술 등이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항공기 분야에서도 앞으로 반정도가 전자 정보 기술이 포함된다고 하니, 타 분야 경쟁력 역시 탄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의 삶뿐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또한 바꾸고 있다. 사진관에 필름 맡기러 간다든가,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줄을 섰던 추억 등이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생명공학과 나노과학의 발전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자가 진단 칩이 나오면, 치료약 역시 맞춤형으로 환자가 스스로 조제하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기술을 발전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팔만대장경에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시에도 홍수에 의한 피해, 전염병에 의한 고통, 그리고 농작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의 영향이 컸을 것임에도 말이다. 기술의 발전이 근본적인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더 큰 진리를 설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셨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쟁과 성장, 그리고 세계화라는 현대의 패러다임이 인간과 지구환경을 끝없이 파괴하는 지금, 탐 · 진 · 치를 제거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계발하는 것이 어떻게 과학기술의 건전한 사용과 연결지을 것인지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우 면 산 수 안 사
회주 세 민
주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전화 02)587-4677, 3213 / 팩스 02)522-5666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회 주 세 민
주 지 현 호
신도회장 심정구
사부대중일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 674 삼영B/D 7층
전화 031)444-5935~6 / 팩스 031)444-5655

일주문



감로계단 보살계 수계법회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은 11월 2~6일 감로사에 '천화율원 감로계단'을 설치하고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한국종교간대화학회 공동대표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가톨릭대 박일영 교수 등과 함께 10월 27일 출범한 한국종교간대화학회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노인 돕기 '일일찻집과 바자회'

통도사 자비원 이사장 현문 스님은 11월 2일 통도사 일주문 앞에서 소외노인 돕기 '일일찻집과 바자회' 행사를 개최했다.



청화 스님 2주기 추모법회

곡성 성륜사 주지 도일 스님은 11월 20일 오전 10시 청화 스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한다.(061)363-0081



신라문화원 초청 법문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11월 11일 오후 6시 30분 신라문화원 초청으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법문을 한다.(054)774-1950



석주당 정일대종사 1주기 법회

온양 보문사 주지 송운 스님은 11월 4일 대웅전에서 석주당 정일대종사 열반 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무의탁 노인 돕기 알뜰바자회

서울 옥수복지관장 상덕 스님은 10월 29일 복지관 주차장에서 무의탁 노인 겨울나기를 위한 알뜰바자회를 개최했다.



비로자나청소년협회장에

진각종 포교부장 회성 정사(대구 불정심인당 주교)는 최근 열린 제16차 정기이사회에서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한국불교학회장 재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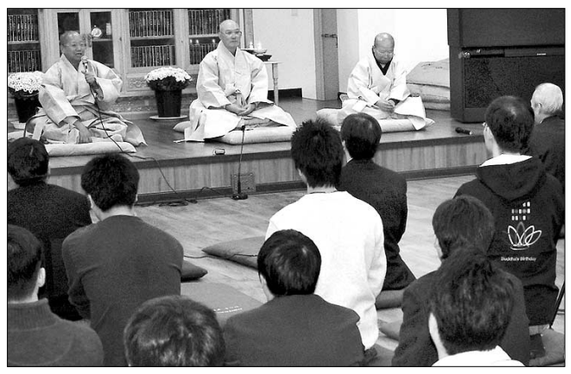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장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과)는 10월 21일 충남대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직후 열린 평회의에서 학회장에 재선출됐다.



출판기념회 개최

경원대 미술대 윤범모 교수(본지 논설위원)는 11월 9일 오후 5시 서울옥션센터에서 <한국미술에 삼가 고함> 등 저서 3권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02)720-1020

조계종 원로의원 지혜·진제·동춘 스님 본사 내방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지혜 스님과 원로의원 동춘 스님, 진제 스님이 11월 3일 현대불교신문사를 내방, 법당에서 김광삼 사장과 100여명의 임직원들에게 격려법문을 했다.

지혜 스님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현대불교'의 공로가 크다"고 치하했고, 진제 스님은 "현대불교가 불자들이 심법을 밝히는데 노력한다면 불법은 저절로 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동춘 스님도 "불교를 바로 알고, 널리 펴는데 매진해달라"고 법문했다.

"내 생의 목표는 난치병 치료 기술 개발"

황우석 교수 전등사서 '불교와의 인연' 밝혀



"18년 전, 사망 확률이 70%가 넘는 중병으로 며칠씩이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할미꽃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문안 온 친구의 제안을 받고 전등사를 찾게 됐습니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사진)가 10월 29일 강화도 전등사(주지 장윤)에서 열린 '2005 삼랑성 문화축제'에 초대받아 800여 사부대중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인기 MC 임백천씨와의 대담형식으로 들려주었다.

"그 때 처음으로 사찰에서 108배를 해봤다"는 황 교수는 "내가 살아난다면 매달 한 번씩 이곳 전등사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러 찾아오기로 다짐했다"고 말해 청중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황 교수는 이어 "매달 꼭 한 번은 전등사를 찾고 있다"며 장기 해외출장 중에도 전등사에 오기 위해 일부러 일시 귀국을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학자로서의 각오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내 육체의 생은 이미 18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역사에 뭔가 의미 있는 한 점을 찍고 떠나라는 부처님의 뜻일 것입니다." 황 교수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남은 생의 유일한 목표"라며 불자학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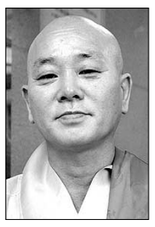
황 교수는 세간의 지나친 관심과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과학계가 많이 어렵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외길을 걷는 심정으로 연구하지만 때때로 자괴감에 빠진다"며 "하지만 세상에 이름이 2배 나면 4배 몸을 낮춰도 부족하고, 2배 지위가 올라가면 6배 겸손해도 공격을 받는다는데 나는 아직도 낮춰야 할게 많다"고 말해 하심(下心)하는 마음자세도 보였다.

황 교수는 "많은 질곡과 장애가 있었지만,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부처님께 보고드릴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30~40년 안으로 우리가 꿈꾸는 건강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명공학 연구의 비전을 설명했다.

대담이 끝난후 황 교수는 전등사 주지 장윤 스님으로부터 금니 약사여래불화를 전달받았다. 장윤 스님은 "통도사 현문 스님이 부탁해 석정 스님이 직접 그린 특별한 약사여래불"이라며 "이 약사여래불을 원불로 모시고 부디 많은 중생들에게 약사여래와 같은 보살핌을 베풀라"고 당부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진주 사원련 회장 불산 스님 취임



"진주 불교의 힘을 결집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교 발전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11월 4일 진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진주시사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불산 스님(토왕암 주지·사진)은 종파를 초월한 화합을 강조했다.

10월 20일, 진주시사원연합회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회장에 선출된 불산 스님은 가장 먼저 회원 사찰의 뜻을 모아 회칙을 제정하고 불교회관에 사무국을 마련했다.

금담 스님, 동봉 스님 등 11명의 고문을 위촉하고 수석부회장에 천태종의 덕해 스님, 부회장에 조계종의 해일 스님 등으로 종파를 초월한 임원단 구성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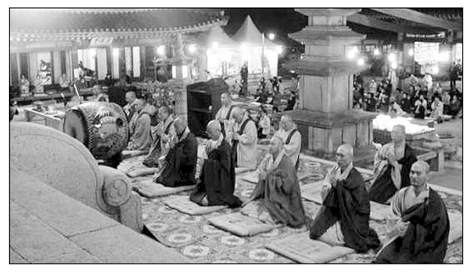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37사단 장병 수계법회



충북 증평 37사단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10월 30일 호국 충용사에서 봉행됐다. 100여 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청주 대림선원 주지 지원 스님은 "불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며 "계를 받은 만큼 불자로서 더 열심히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봉은사 삼천배 철야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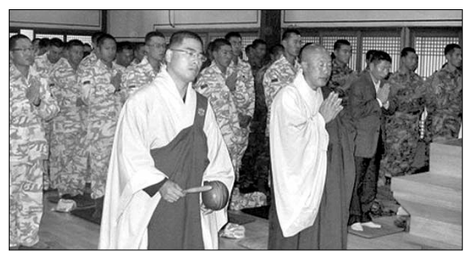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 삼천배 철야정진법회가 10월 29일 2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저녁 7시에 입재한 철야정진법회는 30일 새벽 4시 원혜 스님의 축원과 회향인사를 끝으로 회향됐다. 이날 법회는 연말을 앞두고 한해를 돌아보고 수험생 가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족 청소년 위한 도전 골든벨



금강대는 10월 29~30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 제1중학교 체육관에서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강대학교총장배 종합지능콩클대회(도전 골든벨)>를 개최했다. 조선족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해 어문, 수학, 물리, 화학, 국제 등 50문제를 풀어 제1중학교 3학년 림삼 군이 일등을 차지했다.

자이툰 3진 환송법회



자이툰 3진 환송법회가 10월 23일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과 자이툰 3진으로 파견되는 불자장병 150여 명, 특전교육단 장병 500여 명이 참여했다. 계성 스님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되라"고 격려했다.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 2돌 법회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회장 이판열)는 창립 2주년을 맞아 10월 28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인천교구종무원장 대은 스님, 인천지방경찰청 경승위원장 선일 스님, 중부경찰서 경승고문 능화 스님과 백동산 중부경찰서장, 강화 정도사 합창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佛
眞如聖地巡禮

成道齋日(음 12월 8일)을 맞아 떠나는
부처님의고향 "인도" - 불교 성지순례 -
※모든 식사는 호텔식이고, 입맛에 잘 맞습니다.
창사 기념 11월 한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9일 1,890,000 ▸11/10,17,24
1,990,000 ▸12/1,8,15,22,29 1/5,12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11일 1,990,000 ▸11/13,20,27
2,190,000 ▸12/4,11,18,25 1/1,8

- 여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쿠쉬나가르(1)-파트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1)-샤르나트-바라나시(1)-아그라-델리
- 특징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왕사성,나란다 대학,룸비니,쿠쉬나가르, 열반당,샤르나트,갠지스강,마하보디사원,니련선화 및 수잣타 마을, 등
- 여정 : 델리(1)-파트나(1)-나란다-라지기르(1)-부다가야(2)-샤르나트-바라나시(1)-쿠쉬나가르(1)-룸비니(1)-쉬라바스티(1)-럭나우-델리(1)
- 특징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왕사성,룸비니,쿠쉬나가르,열반당,샤르나트,갠지스강,마하보디사원,니련선화 및 수잣타 마을,죽림정사,다멕스토파, 나란다대학유적지,영취산, 등

☎ 예약 및 문의
02) 2076-9511~2
Valuable Tour 새아침여행(주) Se-A-Chim Travel Co., Ltd.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4번지 고려빌딩 715호

中國 상해/소주/항주 불교 문화탐방 549,000 4일
▸11/14,21,28(매주 월요일)
- 여정 : 인천-상해(1)-소주-항주(1)-상해(1)-인천
-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 특징 : 옥불사,홍구공원,정산사,용화사,서커스관람,영은사,한산사,솔정원,발맛사지체험,서호유람,동방명주탑

中國 북경 불교 문화탐방 549,000 4일
▸11/9,10,14,16,17,21,23,24,28,30 (매주 월요일, 수, 목요일)
- 여정 : 인천-북경(3)-인천
-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 특징 : 자금성, 써커스 관람, 만리장성(케이블카),용경협(유람선),천단공원,이화원,유리창
- 영광사 및 불아사리탑(부처님 치아 사리), 벽운사 및 오백나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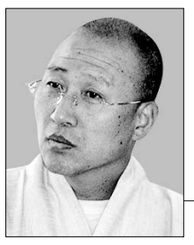
日本 동북 사찰순례 699,000 4일
▸11/14,21,28 (매주 월요일)
- 여정 : 인천-아키다-히라이즈미-하나마키(2)-모리오카-다자와(1)-아키다-인천
-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 특징 : 흑석사,중존사,모월사,금색대관음, 뉴토온천,이와테성 유적지
- 온천호텔 4인1실 기준(2인1실/1인 6만원 추가)

日本 북해도 불교 문화탐방 699,000 4일
▸11/9,13,16,20,23,27,30(수,일)
- 여정 : 인천-치토세-노보리베츠(1)-무로란-토야(1)-오타루-삿포로-죠잔케(1)-삿포로-인천
-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 특징 : 아이누민속촌,지옥계곡,쇼와신산,곰목장, 분화구,토야호수유람선,후키다시약숫물, 무로란 만케지사찰,삿포로 동본원사 사찰
- 온천호텔 4인1실 기준(2인1실/1인 6만원 추가)

中國 성도/낙산/아미산 성지순례 899,000 6일
▸11/10,17,24(매주 목요일)
중국 4대 불교성지 문현보살의 도량 아미산
- 여정 : 인천-성도(1)-낙산-아미산(2)-성도(2)-인천
-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 특징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아미산에서 금정-케이블카 왕복, 만년사-케이블카 편도 포함 보국사, 복호사 관광 포함

中國 성도/낙산, 티벳 성지순례 1,599,000 8일
▸11/8,15,22,29(매주 화요일)
신비의 땅 티벳을 순례하는 희귀 체험
- 여정 : 인천-성도(1)-라싸(1)-시가체(1)-장체(1)-라싸(2)-낙산-성도(1)-인천
-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 특징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라싸(노부린카, 색랍사,철봉사,포활라궁,대소사, 팔각가 순례,) 시가체(자스룬부스 순례), 장체(백거사,얌또흐 순례)

공통사항:15명 이상 출발, 1급이상 호텔 이용, 1억원 배상 여행자 보험, 관광진흥 기금, 전쟁 보험료, 유류할증료 포함, 국적 항공사 이용 / 가이드 및 운전기사, 인솔 안내원 팁 불포함. 여행 불편 신고 전화 : 02-2076-9500



불자 세상보기

효 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화합은 상생의 뿌리

잔치는 끝났다.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갑자기 열반하면서 치러진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종단내외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치러진 선거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지관 스님은 당선소감에서 화합하는 종단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불교계는 국민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장 스님의 갑작스러운 열반의 원인 가운데에는 종단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충격 속에서도 법장 스님의 시신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했다. 특히 총무원 집행부와 법장 스님의 문도들은 평소 생전 스님의 정신과 그 유지를 받들어 시신을 온전하게 병원에 기증했다. 이것은 참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법장 스님의 열반은 우리에게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님의 열반을 통해 불교는 모처럼 불교다운 모습을 국민 대중들에게 보여 주었다.

지금 국민들은 불교가 역시 위대한 종교이며, 스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무원장선거가 진행되었다.

사실 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내내 불안했다. 이번에도 선거가 과열되어 후보들 간에 비난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칫 금전이 오고가기라도 하여 혼탁한 양상을 보이면 그 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청정한 삶을 생명으로 하고 정직함을 무엇보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스님들이지만, 스님도 인간이고 선거는 세속적인 경쟁인데 그 속에서 스님들이라고 어찌 다급한 상황으로 몰리면 혼탁해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몹시 걱정했었다.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간간히 불안한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었다. 유력 후보들 간에 자격시비도 있었고, 약간의 비난성 성명서도 있었다.

하지만 신속히 원로회의 의장스님은 유시를 통하여 선거과열을 냉각시켰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송사를 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래서였을까. 선거는 별 탈 없이 무난히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일이다. 아니 이제 우리는 새로 당선된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종단발전을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다소 과열된 경쟁이 있었고, 그 결과 다소 나쁜 감정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거가 끝난 만큼 모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사실 총무원장에 출마한 후보 스님들은 모두 종단 안팎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스님들이다. 그동안 종단을 위하여 크게 공헌했고, 덕망이 높은 대덕들이다. 그러니 선거기간에도 선거후에도 그 덕망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당선된 지관 스님은 종단을 대표하는 학승이다.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강백을 하셨고, 동국대에서 후학을 가르쳐 왔다. 그동안 오직 학문을 하는 분으로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그 결과 지난 만해축전에서 만해학술상을 수상하셨다. 스님의 학문적 공적이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그런 분이 총무원장을 하게 되었으니 종단으로서는 모처럼 학문과 덕망을 갖춘 대덕종사를 원장으로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다. 그러니 더욱 종도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거두고 화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 원장스님께서도 무엇보다 선거 후유증을 해소하고 큰 덕망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옆에서 스님을 보필하는 분들이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와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과 함께 간화선수행 활성화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시켰다니 대단히 기쁜 일이다. 앞으로 청소년 불자 양성은 불교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간화선이 한국불교 수행전통을 대표한다고 하면서도, 대중적 수행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선방의 스님들과 소수의 신도들에게만 이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불교는 선수행의 맥을 이어온 간화선을 통해 수많은 선지식이 배출되었고 현재도 제방에서 실천되고 있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는 간화선 위기설까지 대두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우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추진단 발족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차세대 간화선 교육 '큰 불사'

우리는 기대속에 추진단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선수행의 체계화이다. 선원에 가면 죽비를 치고 무조건 화두를 '간(看)' 하라고 하는데 이는 수행초심자들의 흥미를 잃게 한다. 일단 일정한 단계를 이해하고 점검하는 지도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지도자의 발굴이다. 조실스님이나 선원장, 혹은 입승이 선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수행과정을 낱낱이 점검해 줄 수 있는 지도 지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침서는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선의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로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집필자는 선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여야 한다. 집필자나 번역자가 간화선 수행을 해보지 않고 단순 지식적 이론만으로 전개한다면 선수행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세심하게 준비한 뒤 대학생 교화를 위한 간화선 프로그램의 개발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간화선은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행복지수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산(동국대 교수)

기고

파키스탄의 '약사보살' 되어

난민들 불안·공포 속 '불교 메디컬 캠프'서 새희망

강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난민구호를 위해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10월 21~27일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벌였다. 의정부 연화복지의원 이건식 원장 등 자원봉사자 15명은 하루 2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며 한국불교계를 대표해 철저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돌아왔다. 의료봉사에 동참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부장이 파키스탄 현지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담을 본지에 보내왔다.



지난 10월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난민들을 위해 의료봉사에 나선 조계종 자원봉사단원.

10월 14일 생면부지의 낯선 땅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또 다른 용기와 미래의 상황에 대한 도전의식이 나를 일깨우는 것 같다.

선발대원으로 함께 파견된 의정부 연화복지의원 이건식 원장과 함께 약간의 비상식량과 파키스탄 지도만을 손에 든 채,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쌀쌀한 새벽공기와 대면했다. 우선 차량과 현지지원요원을 확보하여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둘러 나섰다.

외신을 통해 들은바 와는 달리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너무나 평온했고 피해상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북쪽으로 차량을 이용해 3~4시간 달리자 차차 붕괴된 건물과 이재민들의 텐트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어서 5시간 후부터는 발라코트시내에 들어설 수 있었고 도시전체가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차에서 내리자 사방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났다. 금방 수습된 시신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부상자들의 치료에 거의 넋이 나가다시피 한 의료진들의 모습에서 전쟁터가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히말라야의 K2봉으로 가는 관문에 설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유명한 인구 6만명의 '발라코트'시는 진도 7.8의 강진으로 4만 여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발라코트와 만세라, 아보트바드, 무자파라바드, 바그 등 피해지역들을 하루 17시간동안 차량으로 둘러보는 강행군속에 기초조사를 대략마친 선발대는 종단에 신속한 보고를 통해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본진을 급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내에서 본대파견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선발대는 현지 지원인력을 확보하여 조직화하였고, 그들의 임무는 한국에서 근로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통역요원과 캠프코디네이터, 수송지원반등으로 구분하여 차질 없이 준비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현지에서 거의 동나다시피 한 텐트를 구입하기 위해 수백㎞가 떨어진 곳에서 어렵게 확보한 텐트를 본진이 들어오기 전날 야간작업까지 해가면서 '불교 메디컬 캠프' 설치를 완료하였다.

드디어 본진이 들어온 22일, 곳곳의 처참한 광경과 아직도 계속되는 여진에 본진일행들의 표정은 불안과 공포가 역력해 보였다. 애써 안심을 시키고 도착과 동시에 삼귀의, 반야심경, 희생자에 대한 묵념 등의 순서로 '불교 메디컬 캠프' 개소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대원들은 여법하지 않은 장소였지만 아침, 저녁 이동중간 차량 안에서 조, 석 예불과 천수경, 찬불가 합창 등으로 기도하면서 힘든 고비를 넘기고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약사보살행을 실천하는 한국에서 온 불자들의 모습에서 현지인들은 마치 형제들을 만난 듯한 심정으로 앞 다투어 진료소를 찾아왔고 긴급구호봉사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이들을 치료하고 보살폈다. 우리들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생명의 싹과 희망이 움터 오는 것을 느끼면서 장사진을 친 대기환자들 가운데 우선 아이들과 중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머리가 콘크리트에 부딛쳐 깨진 아이들,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의 끔찍한 부상을 당한 아이들, 손이 모두 잘린 아낙네…. 진료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대원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에 눈물과 땀이 뒤섞이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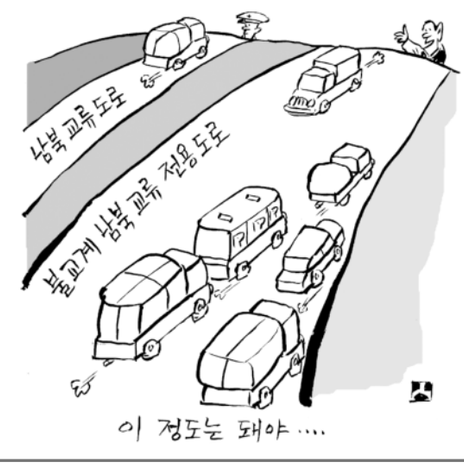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급속히 입소문으로 퍼졌고 결국은 진료 마지막 날까지 몰려드는 환자들로부터 "제발 여기에 남아달라(Keeping Here Please)"라는 부르짖음을 계속 들어야만 했다.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체계적인 의료캠프운영을 유심히 지켜보던 고려대 의료원측과 대한의사협회측에서 우리캠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자리에서 계속 진료를 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린 그때까지 남아있던 약품을 비롯한 모든 의료품목들과 진료용 텐트, 행정용품 일체를 고려대 의료원측에 인계하고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빌라코트를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아직도 진도 6정도의 지진이 계속되고 산간계곡이 무너지고 있는 등 불안한 현장이지만 그속에서 치료하던 일은 우리 '불교 메디컬 캠프'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활동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최종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장)

'현대' 만평

심 민 섭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능 인 선 원
능인불교대학
원장 지광

대한불교 조계종 국녕사·등룡사·용장사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전화 02)577-5800 / 팩스 02)577-0052

민수가 건강해지고 있어요

"6차까지 약물치료를 진행하다보니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본지가 달마도 판매 등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백혈병 환아 민수(4)의 아버지 김형찬씨가 오랜만에 웃음 띤 목소리로 민수의 근황을 전해왔다. 11월 4일 현재 민수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수는 이미 어른도 견디기 힘들다는 약물치료를 5차까지 받은 바 있다. 암세포가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약물은 투여됐고, 자가 생성되어야 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러나 이번 6차 약물치료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고 다른 어느 때보다 민수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 주위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김형찬씨는 "민수가 약물치료를 잘 견디고 있다"고 전하며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 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무의탁 어르신 빨래걱정 끝!

무료세탁 · 배달 서비스 제공하는 복지시설

서울 성동구 왕십리 골목 귀퉁이에는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빛바랜 노란색 간판에 쓰여 있는 이름이 '무료깔끔세탁 · 배달 사업장(시설장 회정, 이하 무료깔끔세탁소)'이다. 진각종 밀각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탁기 소리로 진동한다.

1999년 2월 문을 열어 지금까지 성동구 21개동 어르신들의 빨랫감을 수거해 온 시설인 무료깔끔세탁소. 줄기차게 사용해서 그런지 낡은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그러나 세탁기만은 아직도 건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의 세탁기들은 성동구 무의탁 어르신들의 청결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세탁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6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관리자 배외자(51)보살의 힘이 크다. 배 보살은 "중풍에 걸린 어르신들까지 우리 세탁소에 빨랫감을 맡기려고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무료깔끔세탁소에 흘러들어오는 빨래들은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내놓은 속옷, 겉옷, 이부자리다. 그렇다보니 용변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다. 덕분에 지난 2월부터 무료깔끔세탁소에서 상근 근로하고 있는 이봉자(55)씨가 고생이다.

"그래도 이런 시설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해요. 어려운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세탁기는 고사하고 빨래를 널어 말릴 공간도 없거든요. 이런 시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불교계에는 무료깔끔세탁소 이외에도 몇 군데 지역복지관에서 세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빨래방을 운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형 세탁기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 사업장을 꾸려가기 쉽지 않은 것이다.

세탁기가 없어도 세탁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서울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의 경우 월 1회 인근 구룡마을 저소득 가정의 세탁물을 수거해 결연을 맺고 있는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탁을 하고 있다. 대형 세탁기를 구비한 복지관과의 연대 사업을 통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는 좋은 예다.

한편 불교계 각 복지관에서는 세탁서비스는 하지 않더라도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를 통해 설거지, 빨래 등을 도와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후원이 필요하다면 지역 복지관의 문부터 두드려보는 것이 좋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진각종 밀각복지회에서 서울 성동구 무의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깔끔세탁 · 배달 사업장'의 모습.

세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설 및 복지관

복지관	시행 횟수	연락처
서울 광진종합사회복지관	수시접수	(02)466-6242
서울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월 1회	(02)571-2988
서울 무료깔끔세탁 · 배달 사업장	월~금	(02)2298-0994
서울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수시	(02)817-8052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 1회	(02)929-7950
서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수시접수	(02)3494-4755
수원 서호노인복지회관	수시	(031)291-0911
경북 문경모전사회복지관	수시	(054)555-0108
경산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수시	(053)811-1347~8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싸요, 빨리 사세요." 10월 28일 옥수복지관에서 진행한 바자회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정수암 보살들. 이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복지관 급식봉사도 하고 있다.

옥수복지관 봉사자 정수암 보살들

내실있는 바자회 소문 났어요

"옷 가격 좀 보세요, 튼튼한 스키 바지가 만원이에요."

"모자가 정말 싸요. 모두 다 새 물건이랍니다."

10월 28일 아침 9시 개장한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 바자회. 일대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몰려들었다. 이른 시간이지만 그간 옥수복지관 바자회가 내실 있기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정신없는 '장터'에서 빨간 조끼 부대도 덩달아 바빠졌다. 여기저기서 물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장터 마당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국수를 말아내느라 바쁜 사람들 모두 빨간 조끼를 입고 있다. 이들은 옥수복지관이 개관하면서부터 함께 울고 웃어온 정수암 보살들이다.

복지관이 98년 3월 개관했으니, 이제 정수암 보살들의 활동도 7년을 훌쩍 넘겼다. 모든 보살들이 7년 이상 활동 한 것은 아니지만 '정수암 신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복지관을 지탱해온 것이다.

정수암 신도들의 활동은 옥수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서 볼 수 있다. 수시로 진행되는 바자회, 겨울철 김장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다. 주 1~2회, 개인의 형편이 닿는 대로 복지관 식당에 나와 어르신들 급식과 도시락을 챙기는 것도 정수암 보살들이 하는 일이다.

3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채세희(49) 보살은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왔을 뿐"이라며 겸연쩍어 한다.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스스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힘든 줄 잘 모르겠다"며 웃는다.

윤승희(51) 보살도 "관장 스님께서 어르신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내가 봉사하는 것 보다 배우는 게 더 많다"고 말한다. 윤보살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환한 미소로 표출된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봉사가 즐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수암 보살들은 스스로 봉사의 즐거움을 찾았기에 항상 봉사해도 항상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것이다. **김강진 기자**

겨울옷 후원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옥수복지관 정수암 신도들은 항상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복지관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급식물품과 쌀, 김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수암 보살들은 "이제 겨울이라 어려운 분들에게 드릴 옷가지도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불자들의 나눔 손길을 호소했다. (02)2282-1100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사부대중 일동

부산 (051)583-0993~4 서울 (02)732-0772 뉴욕 212-343-0809 / 홈페이지 http://www.ahnkookgen.org

향기 도반의

사랑의 집짓기 기술봉사

이종환



수많은 문창살 조각 하나하나를 깎고 만드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가 따른다. 하지만 이종한씨는 자신이 만든 문창살들이 모여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으로 만들어질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문창살을 만들기 위해 대패질을 하고 있는 이종한씨.

마음 열면 세상과 통하는 문 열려요

매월 저축금 이자를 불우이웃에 보시
이웃 위한 창문 만들때 행복에 젖어
장기수 찾아 직업교육, 재활에 '큰 힘'
사찰창호 문양 연구 · 보급에도 관심

대구시 동구 괴전동의 한 목공소. 창호 부문 문화재 수리 기능자(제3409호) 이종한(54)씨가 구석구석 세워진 재목들 사이를 누비며 작품 구상중이다. 가죽나무는 붉은 색이 일품이고, 느티나무 괴목은 문양이 화려하다. 나무를 통해 창호의 탄생을 꿰뚫는 눈이 예사롭지 않은 이씨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동네 목공소에서 기술을 익혀온 이 분야 최고의 장인이다. 1968년에는 대구지방 기능대회 1위를 수상했고, 1969년 벨기에서 열린 제18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는 특상을 수상한 경력자로 올해는 전국기능대회 심사장까지 역임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20여년간 꾸준히 저축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저축왕이란 독특한 이력으로 국민훈장 목련장까지 수상했다. 그러나 저축왕이란 타이틀보다 더욱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있다. 저축과 함께 실천해 온 사랑의 보시다.

대구 SOS 어린이 마을에 매월 후원금을 낸 것이 15년을 훌쩍 넘었고, 결핵요양원 '밀알회'와도 13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씨가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에 내는 성금은 1년에 60만원이 넘는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10여 년 넘게 한결같이 이어온 일이기에 더 값지다. 더군다나 수입이 한결같은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겨울철에는 일감이 없어 3~4개월 동안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웠던 이씨다. 그러나 이씨는 오히려 별것 아니라며 손사래를 친다.

"원래 목수는 연장 자루 하나만 놓으면 바로 돈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씨는 결혼 이듬해 겨울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생활비가 똑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난감했다는 이씨는 여름철에 풍족히 쓰다가 일 없는 겨울철에 끼니 걱정하는 선배들의 생활을 되풀이할 수 없어 저축을 시작했다. 그때마다 생기는 원금의 이자를 불로소득이라 생각한 이씨는 그것들을 그냥 가질 수 없어 이웃을 돕는 후원금으로 내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저축하듯 매월 한 구좌씩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씨는 어려운 일이 닥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지하철 참사 희생자 돕기, 태풍 매미 피해자 돕기 등 각종 성금 모금에는 무조건 동참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의 보시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요즘 그에게는 딱 맞는 새로운 일이 있어 더 기쁘다. 2003년부터 동참하기 시작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대구경북지회(이사장 신일희)는 매년 집 없이 어려움을 겪는 4가구가 모여 살수 있는 연립주택 1채씩을 지어 보시한다. 여기서 이씨는 40여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을 발휘해 창호와 문을 만들어 설치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이씨는 "돈으로는 후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기술로도 돈으로 후원하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으니 기쁘고 보람이 큽니다"고 즐거워 한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만들기 시작한 그가 최근 열중하는 일이 또 있다. 대구교도소 장기수들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창을 만드는 일을 넘어 세상으로 소외된 이들이 직접 창을 내고 호흡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씨는 4년째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대구교도소를 방문한다. 그에게 배우는 재소자는 20여명이 넘는다. 전국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감형을 받아 출소한 이도 있다.

"삶의 의미를 잃고 교도소에서 청춘을 소진한 이들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새 일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의 의지를 기르는 이들에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씨는 나무를 만지며 작품을 구상하고 수많은 문창살 조각을 다듬어 짜 맞출 때가 가장 행복하단다. 수많은 문창살 조각 하나하나를 깎고 만드는 과정이 고되고 힘들지만 문창살 조각이 맞춰지면서 완벽한 조화의 미를 이룰 때 이씨는 큰 희열을 느낀다.

전국을 다니며 전통 문양 연구에도 힘쓴 이씨는 전통 사찰 창호에 담긴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씨는 빠르고 편한 것만 찾는 요즘 세상에 오묘한 조화의 미와 세상 진리를 모두 내재하고 있는 전통창호가 사라지고 소외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특히 기술을 전수받겠다는 젊은이가 없어 걱정이다. 혹 관심갖고 찾아온 젊은이가 있다해도 보다 많은 돈과 명예를 좇아 가버리기 일쑤다.

"나는 땀 한 방울 흘리며 한 계단 오르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양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전통창호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씨는 높은 곳만 쳐다보는 젊은이들도 자신의 나이가 될 쯤엔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한걸음씩 차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게 될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평생 나무를 만지며 전통창호를 만들어 온 이씨는 "우리 조상의 얼과 진리의 뜻을 담고 있는 전통창호의 보급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처럼 한결같은 걸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세상과 소통하는 수많은 창호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대구=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본사 동 화 사

조실 법원 진제
주지 일응 지성

부주지 수 성
총 무 선 광
기 획 상 원
교 무 삼 현
재 무 법 경
사 회 대 법
포 교 일 진
호 법 법 해

금당선원
선원장 정봉 지환

승가대학
강 주 원허 지운

종무원 및 신도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053)982-0101~2 / 팩스 053)985-4405 / www.donghwasa.net



10월23일 하와이 무량사에서 '간화선과 대자유 · 행복'을 주제로 법문한 혜국 스님이 법문 중간에 게송을 읊고 있다.

'나'라는 그릇 깨고 '참나'를 보라

하와이 무량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 (5·끝)

주제:간화선과 대자유 · 행복

법주: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간화선 수행법이야말로 인류의 등불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우주를 내 마음속에 담는 화두 수행을 벗 삼아 내 마음의 고향에서 노니는 행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10월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월 24일 오전 5시) 하와이 무량사 설법전에서 열린 선원장 초청 간화선 법회에서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은 간화선 수행으로 우리의 마음 밭을 잘 가꾸어 보자며 법문을 시작했다. 무량사 창건 30주년 · 문화원 준공을 기념하며 9월 25일부터 개최해온 간화선 법회를 회향하는 이날 법회에는 15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혜국 스님은 "문화원이 여러 해 동안 애를 썼다가 완공이 된 것은, 평범한 한 건물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하와이에 큰 우물을 하나 파 놓은 것과 같다"며 "이제 이 커다란 연못에 연꽃을 피우고 잉어가 뛰어 놀도록 참선 수행법으로 마음 농사짓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대중들을 향해 물었다.

"오늘 죽는다면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중이 침묵하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

"내가 만일 지금 죽는다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 그 시간이 가장 억울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빌어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내 인격과 내 마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 농사를 지었던가? 내가 내 인격과 내 주체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번뇌망상, 감정이

번뇌망상의 노예로 살것인가?

하자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슬플 때는 슬픈 놈 하자는 대로, 번뇌망상이 올 때는 번뇌망상의 노예가 되어서 보낸 세월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내 욕망이 하자는 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그것, 그게 가장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희로애락, 탐진치, 시비분별의 크고 작은 파도에 이리 저리 휩쓸리며 살아오지 않은 이가 어디 있을까? 대중들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 앞에 갑자기 세워진 듯 정신이 번쩍 든다.

"내 몸뚱이가 나인줄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이 몸뚱이는 아프지 말라고 해도 아프고, 죽지 말라고 해도 죽어버리니 내가 진정 내 몸뚱이의 주인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뚱이로서의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며 온갖 번뇌와 망상, 슬픔, 원망의 도둑놈에게 내 집을 몽땅 뺏겨 사는 꼴이니 지금이라도 마음 농사를 잘 지어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도록 간화선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 간화선 수행을 해야 하는가? 스님의 법문은 간화선 수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대중들의 심중을 흔들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손가락을 연비하며 몇 백생을 거듭해도 이 길을 가겠노라 발원한 혜국 스님의 원력을 대하며 간화선 수행의 길에 지레 겁을 먹는다. 이런 대중의 마음을 짐작한 듯 스님 법문은 그 두려움마저 녹여버린다.

"처음 화두 참선을 한다고 쳐 앉으면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요. 나도 처음 열 세살에 참선하겠다고 절에 왔을 때, 어찌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망상이 일어나는지 무척 고생을 했어요.

부모 형제 다 버려두고 손가락까지 태웠는데 하도 공부가 안돼서 가야산 마애불 앞에 가서 부처님을 붙들고 엉엉 울고 내려오는데 성철 스님한테 들켜 불호령을 맞았어요. 공부가 안되고 속이 타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석불까지 짊어지고 가느냐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바로 화두 참선법은 모든 근심 걱정뿐 아니라 번뇌망상 모든 욕망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는 공부입니다."

간화선의 수승함을 일깨우는 혜국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자, 대중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간화선의 세계에 들어서고 싶은 발심이 꿈틀거린다.

"화두참선법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게 하고 말하게 하는 주인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수행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제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두란 뭡니까? 화두라는 것은 영어 일어 한국어, 인간 축생… 그러한 모든 것이 태어나기 이전 세계를 말합니다. 즉 우리 주인을 화두라고 합니다. 주인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 주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주인을 찾아 내 마음을 스승삼고 내 마음을 연인 삼고 내 마음을 벗 삼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화두참선법을 찾아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주인을 찾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내 주인이 뭐냐? 그게 바로 화두입니다."

혜국 스님은 "지구라는 별에 올 때 목적 없이 온 사람은 없는 만큼 이 몸뚱이를 빌려 쓰는 동안 화두 수행법으로 내가 지구별에 온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열세 살에 출가하여 화두 공부를 이어가는 동안 겪었던 일화 등을 들려주며 지극하고 간절하게 간화선 수행에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머리로 따지면 좌선해봐야 헛일

"머리로 따져서는 화두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화두 공부에 들어가려면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 전제돼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는 신(信)이 철저해지고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가 하는 의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저승길 갈 때 화두만이 등불이 되어서 나를 안내해 줄 것이니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대분심이 일어야 합니다. 몇 백 생을 태어나더라도 내 마음을 연인삼고, 스승삼고 벗 삼아 걸어가는 화두 정진을 하겠다는 마음이 깊어져서 '왜 정전백수자라 했던가? 어째서~ 어째서~' 하는 의심을 깊이 낼 때, 정신 혁명의 길이 비로소 시작 되는 것입니다."

혜국 스님은 "'나'라는 그릇을 깨버리면 그 그릇 속에 있던 달은 사라지지만 하늘에 둥실 떠있는 달은 여전히 밝게 빛을 발하는 이치와 같아서 나라는 좁은 소견을 깨고 내 영혼의 한계마저 훌쩍 뛰어넘어 나의 마음을 태평양 바다처럼 넓게 만들어버리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대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화두 공부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번뇌와 망상이 보여야 그것을 조복 받을 수 있으며 그릇속의 찌꺼기인 번뇌 망상이 가라앉으면 달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화두수행의 장애인 번뇌와 망상, 졸음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번뇌망상이 쉬었을 때 나타나는 달도 참나는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나라는 그릇을 깨어버리고 전체로 돌아가면 하늘에 있는 달 즉, 전체로서의 부처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공부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나갈 것을 당부했다. 영혼은 따로 따로 있지만 참나는 하나니 둘이니 하기 이전 자리이며 깨달음이란 영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업식까지 뛰어넘는 것임을 분명히 짚었다.

혜국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대중들은 행복해진다. 그렇게도 바라던 행복의 세계는 멀리 있지 않았다.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여기에 행복은 충만해 있었다. 법을 설하는 혜국 스님과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을 맞이한 까닭이다.

대중들은 원력을 세운다. '나'라는 그릇을 깨고 울타리를 벗어나리라. 나를 둘러싼 두꺼운 고정관념, 시비분별의 벽을 부수어 그 벽을 넘어 본래 둥실 떠 있던 밝은 달을 대면하리라.

"마음을 다해 화두 참선을 하십시오. 화두란 바로 내 주인이고 화두를 하는 것은 내 주인을 안고 사는 것이고 잠깐 동안 화두 참선하는 것이야 말로 내 주인 마음 고향에서 노니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 뒤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힘들 때, 고향 생각날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날 때마다 고삐를 다잡아 주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내 마음의 울타리가 우주에 가득 차 결코 남의 밭에 들어가는 일이 없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선의 세계이며 그 걸림 없는 대수용의 맛을 볼 때 참다운 행복이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글 · 사진/하와이=천미희 기자

■ **혜국 스님은** 1961년 해인사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에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은 후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등에서 참선정진했다. 69년 해인사에서 10만배 정진을 마친 뒤 오른손 세 손가락을 연비했으며 이후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 7개월간 눕지 않는 장좌불와로 용맹정진했다. 현재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간화선 법회 회향한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미국땅에 한국불교 깊이 뿌리내리겠다 願 세워

"이번 법회는 도량 불사가 마무리된 무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왜 무량사가 지어졌는가? 이 물음을 화두 삼아 이제부터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달 남짓 이어진 선원장 초청법회를 회향한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사진)은 불사 회향을 계기로 미국인 현지 포교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미국은 불교를 포교하는 입장에서 볼 때 '노다지'입니다. 도량 불사를 마무리했으니 이제부터 미국인의 삶 속에 불교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미국에 한국 불교를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원력하나로 도현 스님의 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이번 간화선 법회로 무량사 불사에 온 정성을 기울여 온 신도들의 내면이 아주 깊어지고 풍성해졌다"는 도현 스님은 "그러한 신도들의 내면 불사는 미국인 포교의 원동력으로 크게 회향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신도들의 수행부터 알뜰하게 챙기면서 미국인 포교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도현 스님의 소신이 묻어난다.

스님은 앞으로 이미 설립 허가를 득한 싯달타대학의 운영을 본격화하며 한국 불교의 정신을 미국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싯달타대학은 무량사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2003년 초 미국 서부사학연합회 실사를 거쳐 4년제 정규대학과 2년제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다.

"불교학과와 불교문화교양학과를 개설하고 미국 현지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할 계획"이라는 도현 스님은 "싯달타대학 졸업생을 한국불교를 알리는 포교사로 활용하면 미국인 포교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의 이러한 계획에는 재정적 어려움과 강사진 확보 등 난제가 뒤따른다. 종단차원의 지원이 아쉽다. 그러나 '어렵지만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에 도현 스님에겐 해야 할 일들만 자꾸 보일 뿐이다.

"선원장 초청 법회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한 스님이 일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는 형식의 법회를 열어 외국인의 참여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한국 간화선의 매력은 미국인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미희 기자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간(肝)이 염 간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

천도재 49재와 곁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향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향금운으로 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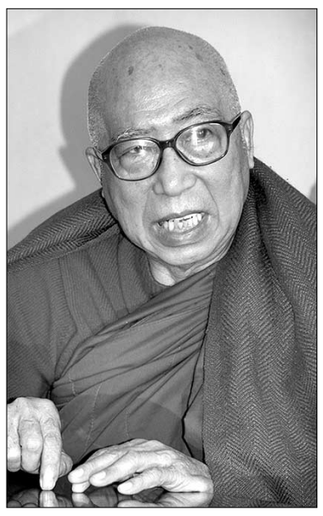
사마타-위빠사나 수행, 외국 고승에게 묻다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해야 하는가, 모든 대상들을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하는가?"

남방불교 초기수행법의 두 축을 이루는 사마타(정신집중 • 止)와 위빠사나(알아차림 • 觀). 최근 잇따라 방한한 미얀마 고승 우 자띨라 스님과 파욱 아친나 스님에게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관계는 어떤지, 대상을 관하는 마음은 둘인지 하나인지, 간화선 수행법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등에 대해 물었다. 우 자띨라 스님은 10월 31일 한국위빠사나선원에서, 파욱 아친나 스님은 11월 1일 서울 홍원사에서 만났다.

"알아차림만 해도 지혜 얻고 열반"

"사마타 거쳐야만 선정 들수 있어"



우 자띨라 스님은 한국 위빠사나 수행자들 사이에서 고승으로 통하는 인물. 현재 미얀마의 마하시 선원에서 수행지도를 맡고 있는 스님은 순간적 정신집중인 '사마타'를 통한 찰나삼매를 거치지 않고 지혜로 곧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 '북과 피아노' vs '외발수레와 두 바퀴 수레'

두 스님에게 곧장 물었다.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관계가 어떤지,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해 달라고 했다.

먼저 자띨라 스님은 "하나의 북만 계속 몰아 칠 것인가, 주변 악기와의 화음을 고려하며 음역이 다른 피아노 건반을 두드릴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마타가 '북'이라면, 위빠사나는 '피아노'라는 것이다.

자띨라 스님은 "사마타 수행은 한 가지 대상을 갖고 몰입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마디(삼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위빠사나는 육근으로 드러나는 모든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일어나는 대상 모두를 관하는 사미디와 정진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북은 한 곳만 계속 치면 되지만, 피아노는 주변 악기의 음률과 순응해야만 화음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아친나 스님은 "불안한 외발수레(위빠사나)를 끌지 말고, 안전한 두 바퀴 수레를 몰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빠사나 수행의 전제조건으로서 사마타를 닦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사마타를 닦는 이유는 선정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지혜라는 빛을 볼 수 있다. 선정의 힘으로 빛이 나온다. 그 빛을 갖고 위빠사나 수행으로 가는 것"이라며 "사마타를 통해 초선(初禪)에 들었을 때, 위빠사나가 그 때 구성하는 선정의 요소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게 한다"고 말했다.

 # 사마타 꼭 거쳐야 할까

마하시 사야도 계열의 위빠사나 수행자인 자띨라 스님은 육근(六根, 눈 · 귀 · 코 · 혀 · 몸 · 의식)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대상을 칸니까 사마디(찰나삼매)로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마타 수행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띨라 스님은 "순수 위빠사나 수행법으로써 법을 얻는 수행자에게 칸니까 사마디가 일어나야 한다. 어떤 하나의 대상에 고정해 긴 시간을 바라봐야 하는 사마타를 거치지 않고, 육근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위빠사나로 알아차려야 한다"며 "위빠사나는 칸니까 사마디로 지혜를 얻게 하고, 결국 열반의 상태로 이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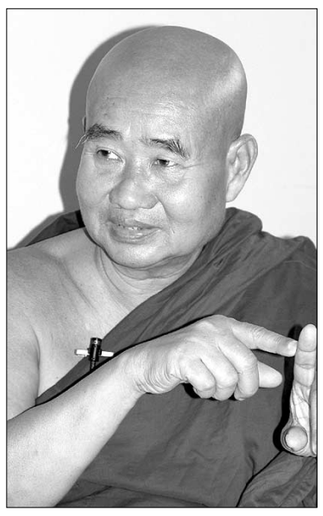
파욱 사야도 계열의 아친나 스님은 다른 시각을 내놓았다. 사마타 수행이 열반을 얻기 위한 선정의 힘을 기르게 하기 때문에, 위빠사나 수행의 시작이 된다는 말이다.

아친나 스님은 "물질과 정신은 위빠사나의 대상이 된다. 실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위빠사나라고 할 수 없다. 선정을 닦고 난 뒤 실재하는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을 봤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위빠사나라 할 수 있다"며 사마타 수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둘인가 하나인가

자띨라 스님은 '하나'라고 말했다. 만약 탐심이 일어났다면, 바로 그 뒤에 있는 평정심이 탐심을 알아차리기에 앞에 탐심이나 뒤에 평정심은 똑 같다는 설명이다. 앞에 탐심을 위빠사나로 관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다르고 저 마음은 다른 상태가 아니다'라는 의미다.

아친나 스님은 '하나일 수도 둘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어떤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역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셈이다.



파욱 아친나 스님 남방불교의 사마타 수행 전통을 되살린 고승. 이번 한국 방문이 처음인 스님은 '사마타' 수행을 바탕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거쳐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24년째 미얀마 '파욱 숲속 수행처'에서 정진 중이다.

아친나 스님은 "'마음을 관찰할 때, 뒤에 마음이 앞에 마음을 관찰하느냐, 아니면 생멸하는 마음 이면에 다음 마음이 관찰하는 것이냐'의 문제"라며 "만약 수행자에게 욕심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뒤에 마음이 오온(五蘊) 가운데, 수(受:받아들이는 마음작용)일 수도 식(識:의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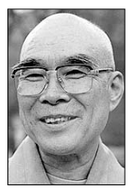
 # '사마타', 화두일념과 같은가 다른가

아친나 스님은 '다르다'라고 단언했다.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하나의 대상만을 갖고 선정을 닦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간화선이 화두 하나의 대상에만 매달린다 해서, 이것을 사마타라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친나 스님은 "부처님은 '청정도론'에서 사마타로 닦는 대상을 몸의 32가지 구성부분과 뼈 등 40개로 정해줬다"며 "그 대상에 들지 않으면 사마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자띨라 스님은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글 · 사진=김철우 기자

■ 선원장 고우 스님이 본 위빠사나와 사마타 — 둘로 보지 말고 함께 해야



"선불교에서는 간화선을 성성적적(惺惺寂寂), 회광반조는 적적성성(寂寂惺惺)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초기불교에 비교한다면, 간화선은 위빠사나, 회광반조는 사마타라고 할 수 있어요. 육조 혜능 스님의 제자인 영가 스님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사진)은 간화선의 입장에서 위빠사나와 사마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상이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는 초기불교의 '본래성불' 사상이 이 같은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위빠사나는 혜(慧)고 사마타는 정(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정혜'를 나눠놓고 보면 안 됩니다. 혜능 스님은 이렇게 보는 것을 <단경>에서 외도라 했습니다. 간화선과 회광반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수행법이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님은, 간화선은 쌍조(雙照)로써 회광반조법은 쌍차(雙遮)로써 수행해야 하는 것과 같이 위빠사나와 사마타 역시 나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2> 인절미 장수 여인

떡장수 노파와 더불어 인절미 파는 여인네까지도 당당하게 납자와 겨루는 것은 근대 중국의 오경웅 박사 표현대로 '선학의 황금시대'에서는 일상화된 일이다.

화두선은 머리카락의 길이에 상관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이 없었던 대중성을 갖춘 까닭에 기존 중원(中原)의 종교사상계를 일거에 평정하고 새로운 주류로 등장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다.

떡과 인절미는 비슷하면서도 또 서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한 떡과 인절미의 차이만큼 두 노파의 고단한 삶의 궤적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노인네 모두 선종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떡과 인절미만큼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다.



금릉 땅에 한 인절미 장수가 있었다. 살림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시골장터에서 그것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거지가 부르는 노래듣고 홀연히 깨친 여인
시장서 납자만 지나가면 불러세워 선문답

그 여인네의 이름은 유도파(兪道婆 · 有道婆)였다. 이름이라기보다는 별호가 더 유명해지면 뒷날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린 경우라고 하겠다. 글자 그대로 '도에 응답한 노파' 내지는 '도가 있는 여인네'였다.

유도파는 임제종 양기파의 낭야계(琅耶啓)선사를 친견한 적이 있다고 선림에 전해져 오며, 위산선사의 상당법문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인절미를 팔면서도 발심하여 일구월심으로 부지런히 화두공부를 지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거리에서 거지가 부르는 연화악(蓮華樂)을 듣게 되었다.

유의가 편지를 전하지 않았는데(不因柳毅傳書信)
무슨 일로 동정호에 왔는가(何緣得到洞庭湖)

이 노래를 듣고 홀연히 느낀 바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껄껄 웃으며 팔고있던 인절미를 던져버리니 시장바닥의 아이들이 앞을 다투어서 주워갔다. 이를 보던 그의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당신 미쳤어?"

그러자 그 여인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이건 당신이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오."

같이 살아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런 부분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화평유지를 위한 불문율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지향점이 다른 부부싸움의 또 다른 일면이기도 하다.

그 때부터 안목이 열려 스님네들이 시장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불러 세워서 한마디씩 던지곤 했다. 하루는 어떤 납자가 지나가는데 노파가 갑자기 "아가야!"하고는 불러 세웠다. 그런데 이 납자도 보통은 넘었던 모양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있소?"

이렇게 대꾸를 하자 그 노파는 몸을 돌리더니 노주(露柱:노천에 있는 돌기둥)에다가 절을 하였다. 그러자 그 납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파를 걷어차서 넘어뜨리고는 말했다.

"난 또 뭐 대단한 것이 있는줄 알았더니…"

누가 더 안목이 있는지 내면살림살이까지는 알 수 없지만 걷어차인 뒤 별다른 답변을 하지못한 걸로 봐서 납자의 판정승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후 아래 사건에서는, 그 사이에 내공(?)을 쌓았는지 노파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

뒷날 어떤 납자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됐다.

"스님은 어디서 왔소?"

"오조사(五祖寺)에서 왔습니다."

"오조사 노장님도 내 아들이다."

그러자 그 납자가 바로 되물었다.

"할머니는 누구의 아이요?"

그러자 그 유도파는 대답했다.

"이 노파가 스님네의 묻는 말에 선 채로 오줌을 싸겠소."

쏴아아~ 쏴아아~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대원불교대학 불교방송 다보빌딩 학사 이전 기념 장학 혜택
대원불교대학이 2006학년도부터 마포 BBS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를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2의 개교를 합니다. 이번 학사이전 기념으로 전 학생 20% 특별 장학 혜택(1학기)를 드립니다.
또한 2006학년도부터 새로이 불교심리상담학과를 개설 운영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단, 장학혜택은 2006년 1월 31일 이전 원서 접수자에 한함)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서울 · 부산)
불교입문과정
• 주, 야간 50명 (주 1회 출석, 6개월 과정)
대 학 과 정
• 불교학과 : 주, 야간 각 100명(주 2회 출석,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 불교심리상담학과 : 주, 야간 각 100명(주 2회 출석,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불교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응시 가능)
• 불교학과 : 야간 30명(주 2회 출석, 오후 7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5년 12월 12일 ~ 2월 20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과정만 해당)
• 합격자 발표 : 2006년 2월 21일(대원불교대학의 전 과정은 서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학과 서울 02)754-1613, 부산 051)583-7811~2 로 해 주십시요.
– 부부 입학 시 1인 50%, 학업우수자 50%, 불교성직자 30% 장학혜택
– 재학생 전원 불교사이버대학 수업료 면제(동영상 강의 시청)
– 졸업 후 소정의 고시를 거쳐 법사 및 불교심리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
학사이전 기념 동문 · 재학생 초청 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
■ 일시 : 2005년 11월 26일(토) 오후 5시
■ 장소 : BBS불교방송 3층 다보원 큰법당
※ 주소가 바뀐 동문님들은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 부산대원불교대학 학사 전경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15강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지

재(在),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번 시간에 내 드린 화두를 점검하기로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객이 오거든 꼭 내다보아야 한다. 그대로 보내서도 안 되고, 뒤따라가다간 맞는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같은 말일까요.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야부는 "여시아문 일시불 재(在)…"의 바로 그 재(在)라는 글자에 대해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9. [在]. 客來須看也. 不得放過, 隨後便打. 獨坐一爐香, 金文誦兩行. 可憐車馬客, 門外任他忙.

뜬금없는 소리 하나 할까요. "客來須看也. 不得放過, 隨後便打"를 처음에는 "客來須看也不得, 放過, 隨後便打"로 읽을까도 했습니다. 그럴 때 뜻은 "객이 온다고 보려 하지만, 그게 어디 되겠느냐. 그냥 보냈다가, 뒤따라가서 패버려라"가 됩니다.

깊은 뜻은 어쨌거나 간에, 이 해석도 그럭저럭 의미가 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번역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고요. 다음은 그 곡절입니다.

재(在),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재'라는 글자는 "있다"는 뜻입니다. 야부는 그 글자를 "부처님께서 어디 어디에 계실 때"의 단순한 장소적 의미로 읽지 않고, 인간이 진정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그 궁극처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화두는 이방의 기독교에도 있었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일은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고투라 아니할 것입니까. 대체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짐작하듯이, 그리고 불교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사람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깨달음을 얻어 밖의 유혹과 안의 마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허가 덧붙인 대로, 그곳은 "고요,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리(寂然不動)"이고, "홀로 암자에 앉아 있으니, 일 없이 적막하다(獨坐庵中寂無事)"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내면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안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이 '고요' 속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간에서도 밥은 짓고 빨래는 해야 하고, 찾아오는 손님 접대도 마다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손님'은 사람과 인연 맺고 세상사를 처리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총칭합니다. 출가자는 이 근본 화두에 응답해야 합니다.

집밖을 나서 길 위에 서기

산 속에서도 수행자들은 승가라는 '집단' 속에 있고, 또 사부대중들과 인연되어 있으며, 또 불교가 사회적 책임을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볼 때도, 산 속에서 새와 다람쥐와만 친구하는 절연된 삶은 진정 불교적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딜레마는 불교, 특히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 부닥친 근본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야부의 해답을 다시 들어봅시다. 위 인용의 번역입니다.

9. "[在]라, 객이 오거든 꼭 내다보아야 한다. 그대로 보내서도 안 되고, 뒤따라가다간 맞는다(客來須看也. 不得放過, 隨後便打)… 홀로 앉아 화로에 향불 하나 피워놓고, 경전 두어 줄을 읊으니, 가련타, 수레 마차를 타고 다니는 이들이여. 문밖이 소란스러워도, 그래도 그냥 둘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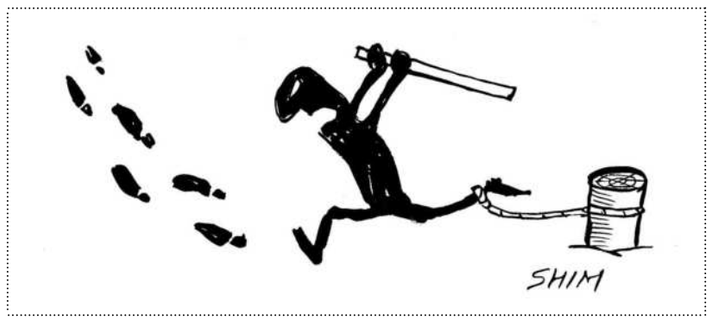
야부의 이 노래에 대해 함허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해 주었습니다.

"若一向坐在家舍, 則途中事闕. 一向行在途中, 則家裡事疏. 要須在家舍而不虧途中事, 在途中而不昧家裡事, 始得. 所以道妙喜豈容無著問, 滉和爭負絶流機."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길 위의 일들이 소홀해지고, 그렇다고 길 위에만 얼쩡대고 있으면 집안 일이 성글어질 것이다. 요컨대 집안에 있으면서도 길 위의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길 위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에 성성(惺惺)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묘희(妙喜)가 어찌 무착(無著)의 물음을 용납하겠으며, 구화(滉和)가 어찌 유기(流機)를 끊는 일을 저버리겠느냐.'

대강 뜻을 짐작하실 줄 압니다. 다만 마지막 구절, "묘희(妙喜)가 어찌 무착(無著)의 물음을 용납하겠으며, 구화(滉和)가 어찌 유기(流機)를 끊는 일을 저버리겠느냐"는 구절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오면 무조건 맞이해라(客來須看也)!" 함허는 이 말이 "만약 손님을 만나면 잘 대접해 드려라(若遇客來須善待)"라는 뜻이라고 명확하게 해 줍니다.

이 구절이 실질 의미하는 바는 그럼 무엇일까요. 함허는 주역(周易)의 말을 빌려, 감이수통(感而遂通), 즉 "인연과 계기가 너를 부를 때, 그때 적극 응답하라"는 뜻이라고 일러줍니다.

손님과 도적을 어떻게 구분하나

여기서 '집안일(家裡事)'이란 자신과 홀로 대면하는 일이고, '길 위의 일(途中事)'란 세상과 더불어 대화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빠져도 안 됩니다.

세속인들은 길 위의 일에 바쁘고, 출가자들은 집안사(?)에 바쁩니다. 야부는 절대 고독 속에서 자기 대면에 치중하고 있는 출가자들에게, 세상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발하고 있습니다!

홀로 고요히 있을 때와 달리, 손님을 나가 맞는 일은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기껏 지켜온 자신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일에 신경 쓰다 보면, 맑게 깨어있던 정신은 혼탁해지고, 내면의 고요는 흐트러지고, 자기 대면의 끈은 어느새 놓치기 십상입니다.

손님은 이때 도적이 됩니다. 이곳을 경계, 또 경계해야 합니다. 이 그물에 걸려 넘어진 선지식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접하려던 손님이 "아차, 도적이구나 싶으면, 바로 나가서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합니다.(是客稍有賊氣在, 知有賊氣, 須打殺)"

그러니, "손님을 뒤따라가지 마십시오!" 뒤꼭지를 보인 손님은 다름아닌 도적이니… 닥친 일에 온 마음으로 집중할 뿐, 그 일의 득실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수연무착(隨緣無著), 그야말로, '인연 따라 응하되, 들러붙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명예와 재산의 물거품, 그림자를 위해 자신의 귀한 불성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래여거(如來如去), 인연이 오면 맞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도록 두십시오.

내가 싫다고 떠나가는 애인의 바지가랑이를 이제 그만 놓아주고, 내 뜻대로 안되는 세상사에 불평불만도 문득 그치고 쥘 이십시오. 그 희망심(希望心)의 흔적들을 태우고, 지금 다가오는 얼굴들과 대면하십시오.

<금강경>의 노래처럼, "과거의 영광도 흘어졌고, 미래의 기대도 환상이며, 현재의 집착도 다만 물거품일 뿐(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⑨1 무염 스님의 '말뚝'

조태호



무염(無染, 800~888): 구산선문 중 하나인 성주산문의 개조. 당으로 건너가 마곡산 보철 스님에게서 법인(法印)을 받음. 국보 제8호로 지정된 스님의 비가 보령 성주사에 남아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의미는?

문 흔히들 연애를 할 때, 이심전심을 잘 해야 한다고 하지요? 불교용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사들이 선문답을 할 때도 이 말을 강조하는데요.(초보연예)

답 1 :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고 할 때 "이심전심이지!"라는 말을 씁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 뜻이 통할 때도 "이심전심이야"라고 하지요. 흔한 말로 '척하면 알았을 때'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전한다' 해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 그리고 직지인심(直指人心)이 수반됩니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고도 하지요. (선수행자)

답 2 : 무엇을 글도 없이 말도 없이 타인의 마음속에 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기록이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 있었던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를 비롯한 삼처전심(三處傳心)입니다.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던 부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빙그레 웃어 보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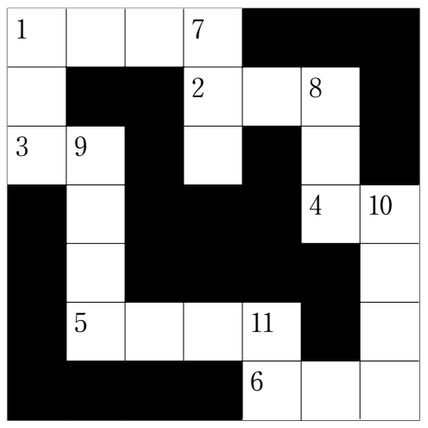
두 번째 이심전심은 부처님께서 죽림정사 다자탑에서 설법하시던 중 남루한 차림으로 찾아와 대중들이 경멸하는 가섭존자에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당신이 앉아 있던 자리의 반을 가섭에게 내어 주십니다.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가섭과 부처님이 분별되지 않음을 봅니다. '다자탑전 반분좌(多子塔前 半分座)'의 이심전심이지요.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찾아온 가섭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인 일입니다. '사라쌍수하 곽시쌍부(娑羅雙樹下 槨示雙趺)'라고 합니다. 굳이 말이 필요없는 사이, 상대의 의중을 헤아려 공감할 수 있을 때 이심전심으로 마음의 화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불학자)

답 3 : 요즈음 우리 사회에 이 마음(心)을 일컫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일컫는 '노심(盧心)' '박심(朴心)'이 그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눈치 빠른 정치인들은 그 '노심'을 파악하느라 정말로 헤아려야 할 민심(民心)은 안중에도 없다보니 정치며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민심과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금강소석)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국화를 비유한 말로 서릿발 속에서도 꼿꼿한 절개를 일컬음 2.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3. 자본과 채무의 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 4.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수행법 5. 적을 이용하여 다른 적을 제어한다는 고사성어 6. 숭례문의 다른 말.

세로 1. 단맛 · 신맛 · 쓴맛 · 짠맛 · 매운맛의 5가지 맛이 난다 하여 붙여진 열매 7.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는 물체 8. 여러 가지 일 9. 고려시대에 비롯돼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 오는 우리고유의 가면극 10.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이나 헌병이 검문하는 일 11. 남한을 이르는 말로 반대말은 이북.



2002 한일 월드컵때 광화문 광장에 모여 응원하고 있는 '붉은악마' 들.



신명나는 한국사
고준환 지음
인간과자연사 펴냄 | 1만8천원



고준환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속 번창의 증거물로 경주 불국사를 으뜸으로 꼽는다. 사진은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국보 23호).

우리 역사… 반만년 대륙의 영광사

한민족의 수호신 '치우천황' 등
단군 고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신명나게 전개된 민족사 정리

'한민족의 역사는 '2천년 반도의 패배사'가 아니라 '반만년 대륙의 영광사' 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점적 통사이다.'

법사학자이자 국사찾기협의회 회장인 고준환 경기대 교수(법학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건 중심으로 정리한 우리나라 역사책을 최근 펴냈다. 제목부터 범상하다. <신명나는 한국사>이다.

이 책의 머릿말에서 지은이는 "우리 국민은 신바람 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속성이 있다"며 "이는 단군성조께서 개천할 때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광명을 본원삼아 신바람 나는 신선한 나라인 고조선을 세웠고 우리 민족은 대륙민족의 영광스런 역사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 제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제목을 의식해서 인지 이 책에는 우리 민족이 신명날 수 있는 사건 중심으로 단군 조선의 건국에서 현재에 이르는 반만년 역사를 시간 흐름에 따라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예를 들면 지은이는 한일 월드컵 축구때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8천만 민족이 하나돼 세계 4강 신화를 이룩한 것을 신명나는 경험으로 꼽고 있다.

그러면서 지은이는 이 책에서 붉은 악마의 모델이 된 한민족의 수호신 '치우천황'을 소개한다. 치우천황은 단군 기원전 374년에 배달국 제 14대 자오지(慈烏志) 천황으로 등극해 동북아시아 대륙에 부국강병의 절정을 이룬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은이는 역사속 번영했던 증거물들인 유물과 유적 등을 구체적 사건과 연계해 소개했다. 독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는게 지은이의 의도다.

그 번창의 증거물로 지은이가 제일 먼저 손에 꼽는 것은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지은이는 특히 석굴암이야말로 신라불교의 흔적이 가장 아름답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문화유물이라며, 보면볼수록 신명나는 우리 역사유물 중 하나라고 극찬한다.

이 책이 기존 역사서들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점이 있다. 바로 역사적인 시대구분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단군조선 · 열국시대(3부여, 남삼한 등), 4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3국 쟁패시대(고구려 백제 신라가 쟁패한 98년간) · 남북국시대(남신라, 북발해) · 고려 · 조선왕조 · 항일독립운동시대(일제강점기) · 남북분단시대 등으로 시대 구분해 서술했다.

특히 이 책에서 지은이는 기존의 삼국시대 구분을 4국시대와 3국 쟁패시대로 나눴다. 가야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제자리에 올려 놓은 것이라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즉 4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가 약 520여년간 공존한 시대이고, 3국 쟁패시대는 가야가 신라에 망하고 이어 백제가 망할때까지 98년간 고구려 백제 신라가 패권다툼을 하던 시대라는 것이다.

지은이가 이 책에서 가야사의 큰 흔적들과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포함시킨 것은 잊혀진 가야사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또 고려시대편에서 지은이는 독립운동가요 민주 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사 연구초>를 인용하며, '묘청의 난' 이야말로 고려와 조선왕조 1천년간에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제 1대 사건이라고 소개한다. 아울러 묘청 대사의 평양 대위국 건설이후 단군조선의 옛 강토를 복구(다물, 多勿)하기 위한 서경천도와 금(金) 정복론 등 자주 북벌 운동에 대한 노력들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중국의 동북공정대비 등 국사학뿐 아니라 '한국영토보전사와 독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등 국토학과 '한글날과 나라글자의 정책' 등 국어학의 뿌리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 정승일 지음
부키 펴냄 | 9천8백원

이 책은 장하준, 정승일 교수의 대화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마치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마치 한 사람의 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는 저성장과 빈부격차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구도라고 한다.

외국자본이 들어와 경제를 혼란 시킬 때 기업은 장기투자를 생각할 수 없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힘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자본에는 국적이 필요하다. 시장은 시장실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는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

지은이들이 한 번에 완성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만남을 가져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내용도 눈에 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책의 내용들이 경제적 사건이 지나가고 사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란 것이다. (실제로 경제학의 약점 중 하나가 그런 '사후약방문' 적인 것이지만)

1997년에 이 땅에는 IMF에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심각한 경제위기가 왔다. 이제는 지나버렸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그 때 우리가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처럼 되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명암

그 당시에는 외자를 끌어와서 급한 불을 끌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전후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 아쉽다.

또한 과연 우리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선택하고 말고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옵션적인 것이냐고 생각하는 데는 의문이 간다. 외교에는 강국과 약소국의 차이가 분명하듯. 우리정부가(설령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도) 과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헤쳐가면서 스웨덴 식의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내부와 외부에서 상상 이상의 저항이 닥쳐올 것이다.

하나의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론이 모든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것 같다. 박정희와 정치적으로 선을 긋기 위해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에서 얻은 부가적인 소득 중 하나다. 이 책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까지 교조적으로 흘러왔던 경제에 대한 시각과 발상을 전환해줄 수 있는 데에 있다.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역동적으로 성장했던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그리워한다. 그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참 잘했었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은이들의 말에 따르면 고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착취와 억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명이라고 한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큰 정부에 의해 자유를 조금 뺏기더라도 고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맡겨 저성장과 고용불안정에 휘둘려야 할 것인가 말이다.

■김동현(서강대 경제학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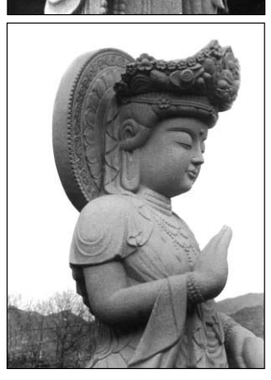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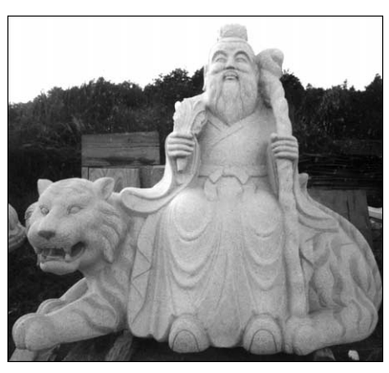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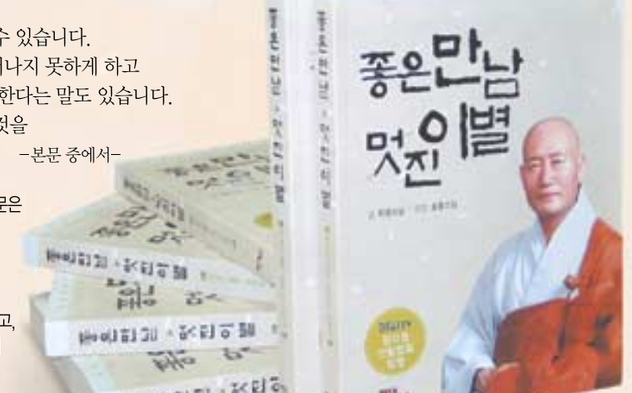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변형국판 240페이지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현재 생명나눔 실천본부 부이사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깨달음의 노래) 출판(근간)

현대북스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세계유산 '직지' 읽어 보셨나요?

조계종, 우리말 번역본 출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전시



직지
동국대역경원 옮김
조계종출판사 | 2만원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줄여 부르는 말인 <직지>는, 백운화상(白雲和尙)이 75세였던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노안을 무릅쓰고 저술한 것을 제자 석찬과 달담이 비구니 묘덕스님의 시주를 받아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 7월에 금속활자로 인쇄했다고 한다. 이는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것으로,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하권(下卷)이 발견됨으로써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평가 외에 <직지>의 내용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그동안 출간된 <직지> 해설본은 각성스님의 번역본(1999년, 현음사)과 박문열씨의 번역본(1998년, 범우사)을 비롯한 몇몇 권에 불과하며 그마저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다. 왜 우리는 <직지>의 세계적 우수성은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등한시 하지 않았을까?

조계종출판사가 펴낸 우리말 번역본 <직지>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영문판과 함께 전시돼 주빈국으로서의 면목을 세우는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직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한 책이라 평할 수 있다.

동국대 역경원의 번역으로 선보인 우리말 <직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청했다. "제가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 선사가 물었다. "죽은 먹었느냐? 아직 먹지 못했느냐?" "먹었습니다." 조주 선사는 말했다. "그러면 발우를 씻거라." 그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 (55조 '조주 종심' 편 중에서)

이처럼 <직지>는 <경덕전등록> <선문염송> <오등회원> 등 여러 불서(佛書) 중에서 선의 요체(要諦)를 깨닫게 하는 게(偈), 송(頌), 찬(讚) 등을 가려 엮은 것이다. 백운 화상은 수행자들을 위해 "일체의 사심과 망념에서 떠난 진실된 마음을 증시하는 무심무념을 궁극의 경지로 삼은 자신의 선풍(禪風)을 펼치기 위해 이 책을 편찬했다"고 밝히고 있다.

'참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직시(直視)하면,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에서 그 이름을 딴 <직지>. 우리말 번역본 출간을 계기로 <직지>가 오늘날의 수행자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마음을 일러주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조계종출판사는 우리말 <직지>를 1,000여 부 한정판매할 예정이다.(02)2011-188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직지는 어떻게 해외로 반출되었을까?

<직지>는 조선시대 고종 때 주한 불란서대리공사로 서울에서 근무했던 꼴랭 드 쁠랑시(Collin de Plancy)가 수집한 후 골동품 수집가였던 앙리베베르(Henry Vever)에게 넘어갔으며, 그가 1950년에 사망하자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상 · 하 2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하권만이 유일하게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다. 하권은 3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장은 없고 2장부터 39장까지 총 38장만이 보존되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직지>를 우리나라에 장기임대, 전시하는 것은 물론 일반에 공개하는 것조차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단체들이 '직지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직지 원본.

새로나온 책



■ **<초발심자경문>**(일휴 스님 옮김, 정우서적, 7천원)=초심 수행자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초발심자경문>을 일휴 스님이 우리말로 옮겼다. <초발심자경문>은 보조국사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야운 선사의 <자경문(自警文)>을 묶은 책으로 오늘날 강원의 필수교재로 쓰이고 있다. 일휴 스님은 "수행자는 지식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실천행을 통해 지식을 체득하는 자"라며 "오늘날 지식과 정보의 양은 넘치지만 정작 <초발심자경문>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이는 드물 것"이라고 출간 의의를 밝히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법회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스님은 지난 3월 전통강원 경산강숙을 개원해 강주를 맡고 있다.



■ **<집으로 가는 길>**(양문규 시집, 시와에세이, 7천5백원)="보살이 부처에게 아침저녁/ 공양 올리듯/ 천 년하고도 수백 년/ 황금가지 잎새의 반짝임으로/ 소신 공양하는 은행나무/ 아직 철야 정진 중이다"('보석사' 전문) 양문규 시인(대전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의 세 번째 시집. '애기똥풀'이나 '봄까치꽃' '쇠똥구리' 등 시 제목만으로도 도시에서 느끼기 힘든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지난 2002년 펴낸 시집 <영국사에는 범종이 없다>에 등장했던 '영국사'는 이번 책에도 시심(詩心)의 근저를 이루고, 쌍봉사 · 운주사 · 화암사 등을 오르는 시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문학평론가 오태호씨는 "양문규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풍경은 자기화된 풍경이기에 곧 사유의 풍경이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



■ **<한국의 인쇄문화>**(박충일 지음, 한국인쇄문화원, 10만원)=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장과 한국인쇄문화원장, 한 · 중 인쇄기술교류협정 한국대표, 범국민직지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위해 힘써온 박충일 회장이 인쇄문화의 역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등을 담은 책.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보협인다라니경> 등 고인쇄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인쇄문화사 연표, 박 회장인 그동안 언론 · 학술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글 등을 엮었다.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숲에서 희망찾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숲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전영우 · 탁광일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와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외 국내 굴지의 숲 전문가 21인의 이구동성 외침이다. 그들이 각자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시각으로 숲을 이야기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제목은 그들의 강한 슬로건인 <숲이 희망이다>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숲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는 것.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점 피폐해져 가는 '인간의 정체성'을 숲에서 되찾자는 생각에서다.

책은 단순히 수필적 성격을 지양한다. 교수, 생태운동가 등 다양한 명함을 가진 23인은 각자의 전문지식을 총동원해 깊이있고 분석적인 숲 이야기를 펼친다. 숲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지식, 그와 더불어 숲을 살려 인간의 삶을 가꾸자는 발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더욱이 숲의 태동과 문명의 박해로 인한 수난, 숲 속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온갖 동식물, 세계사적 시각으로 바라본 숲의 현황 등 지은이 각자의 전공에 따른 다양한 숲 이야기가 간결하고 단순한 문체로 정리돼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은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 숲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지은이 중 한 명인 탁광일 교수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주를 이루는 우리의 숲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싱그러운 우리만의 숲"이라고 강조한다.

생태운동가인 김재일 대표도 책의 말미에 숲 속의 절집을 소개하며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 숲을 결코 해치지 않았다"며 "절집앞의 숲을 훼손하는 것은 삼보를 훼손하는 것과 같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숲이 희망이다
탁광일 외 지음
책씨 | 1만7천5백원

태고 스님의 생애와 사상



태고보우국사
서무공 지음
대한불교
문화태고연구원
2만5천원

태고보우 국사(1301~1382)는 한국불교의 조조이자 종조이며, 중흥조로서 왕사와 국사를 역임한 한국불교의 큰 선지식이다.

태고보우 국사는 신라 삼국통일 직후에 주류를 이뤄왔던 타력적 경향의 미타신행에서 벗어난 자력적 미타신행을 주장했는데 그 정토 자체를 마음에서 구하자는 스님의 해석은 당시 몹시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임제종의 전법을 강조, 간화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임제종의 간화선풍을 도입, 한국적인 선사상을 확립했던 보우 스님의 법맥은 당시 고려불교를 꽃피우고, 환암 돈수를 거쳐 서산과 사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스님의 사상적 전통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전승돼 제방에서 공부하는 선승들의 눈을 밝혀주고 있다.

(사)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4년을 기념해 태고보우 국사의 사상과 법통을 재조명한 <태고보우국사>를 펴냈다. 이 책은 1부 탄생과 출가, 2부 수행과 오도를 비롯해 태고의 선지와 선풍, 보우의 법통과 열반 등 총 9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은 국사의 생애와 사상은 물론 선풍, 법통, 국사와 관련된 논문, 문헌자료 등이 6백페이지 분량에 총 망라돼 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성 명 서

왜 이시기에 불교계가 도덕적 손상을 입어야 하는가?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 사찰인 도봉산 홍법사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지난 2002년 8월 14일 서울고속도로(주)는 해당사찰과 어떠한 협의 없이 공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6일 서울외곽순환도로 제4공구의 건설이 재개되었다. **서울고속도로(주)가 합의사항을 어긴 것 이다.**

홍법사가 도로건설로 인한 사찰부지가 수용 당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이전 협의를 무시한 채 간접 이해당사자인 회룡사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홍법사에는 어떠한 합의사항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자 중앙 일간지 사회면에 "사패산터널 보상금 10억 전용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서울고속도로(주)**는 직접 피해사찰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간접 이해당사자와 먼저 협상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획책이라고 본다. 그리고 **20억이라는 돈으로 불교단체와 환경단체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2002년 8월 14일 작성된 합의서에는 불교환경연대, 의정부 사 · 암 연합회 대표 그리고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한국도로공사 기술본부장까지 연서하였으며, LG건설 대표이사, 조계종 총무부장까지 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러한 합의서야말로 대표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홍법사를 합의에서 배제시킨 저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서울외곽도로공사의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직접 이해 당사자인 홍법사와 이러한 문제를 우선 논의 했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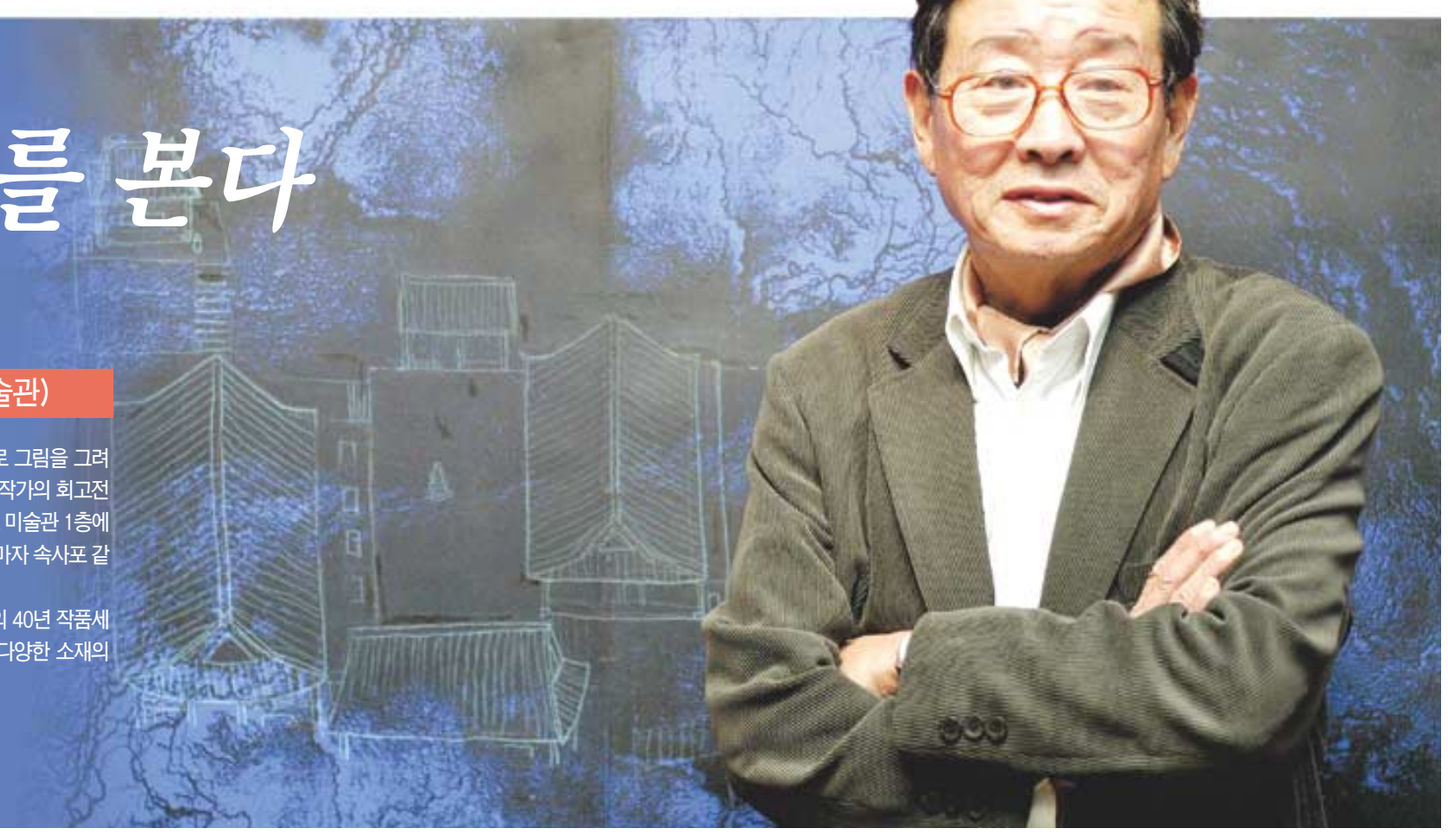
또한 홍법사의 사찰부지 175평이 아무런 합의 없이 무단 등기이전 하여 사찰 토지를 빼앗아 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을 위해 양보하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참아왔다. 건설교통부나 서울고속도로(주)는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공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소로 나와야한다. 또한 홍법사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비슷한 지역의 도봉산 자락에 사찰 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지난 26일 4년여 만에 제4공구 홍법사가 위치한 공사구간에서 공사가 재개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앞서 밝힌 언론보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이해 당사자의 취약한 부분을 언론에 공론화함으로써 홍법사의 입지를 무력화 하는 동시에 환경단체와 불교단체를 농락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수행환경 피해를 이유로 보상금 10억원이 건네졌다는 보도는 의도적 속셈을 드러낸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홍법사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절하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홍법사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단지 적당한 장소로 이전을 요구했을 뿐이다. 국책사업에 동조하기위해 현재의 자리를 떠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의 보도를 이용하여 불교를 왜곡, 폄하하거나, 홍법사를 무력화 시킨다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각 계의 언론 보도로 인해 불교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홍법사와 연관지어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서울고속도로(주)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홍법사를 기필코 지켜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도봉산 홍법사 수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지 섭

사유 통해 우주를 본다



‘우주’ 화가 오경환 회고展(11월 27일 까지, 일민미술관)

난해하다’ ‘추상적이다’ ‘절묘하다’ 다양한 수식어를 몰고 다니며 평생 ‘우주’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 ‘우주 화가’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오경환(65 · 前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씨. 오작가의 회고전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열리는 세종로 일민미술관(02-2020-2055)을 11월 2일 찾았다. 미술관 1층에서 만난 오경환 작가는 소탈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았다. 전시 작품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마자 속사포 같이 쏟아내는 말들에서 작품에 대한 정열과 애정이 물씬 느껴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초기작에서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120여 작품이 전시돼 오경환 작가의 40년 작품세계를 한눈에 아우를 수 있게 한다. 같은 시기 안국동 갤러리175(02-720-9282)에서도 다양한 소재의 일상 소품 위주의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120여 작품 한자리
우주와 일상 나란히 배치 유약한 인간 대비

‘우주를 그리는 화가’하면 단번에 떠오를 정도로 ‘우주’를 주제로 평생을 작업한 오경환 작가. 어릴 때 본 검푸른 우주를 배경으로 한 만화는 그의 일상을 뒤흔들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때의 큰 울림은 평생 그를 우주 속에 빠져들게 했다. 오경환 작가가 우주를 향해 사유하고 관조하고 그들의 상관관계를 풀어나간 작품들은 일민미술관 3개 층을 가득 메웠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가 40여 년 간 천착해왔던 ‘우주’와 그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일상’을 그린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아크릴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해 우주공간을 표현하거나, 가벼운 느낌의 수채풍경화 등은 신비로움과 중후함을 동시에 풍긴다.

3m가 넘는 캔버스에서부터 찻잔의 종이받침, 편지봉투,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종이에 그린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는 캔버스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그의 창작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올해 8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정년퇴임을 앞두고 거제도 장승포에 작업실을 차렸다. 바다가 보이는 작업실에서 몰려드는 파도와 바닷가에 내려앉은 물안개,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해에 이르기까지 밤을 세워가며 그림에 몰두했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 ‘바다, 환상’ ‘천공-안개’ ‘일출’ 등은 요즘 작가가 푹 빠져든 ‘우주’와 ‘일상’의 만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주와 자연을 담은 거대한 그림 곁에 일상을 그린 자그마한 캔버스가 나란히 걸려 끝없는 우주와 유약한 인간의 존재를 대비시킨 2부작으로 완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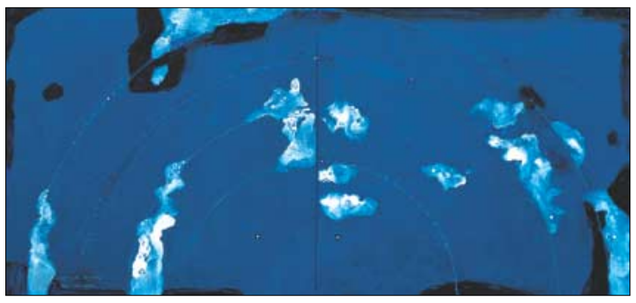
“하나의 사물은 전 우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일체만물은 서로 형제이고 우리는 우주의 자식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생을 금한 것도 모든 만물이 형제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일상의 연결고리를 그림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 나는 별이 좋아 여행한다
> 우주는 리얼한 현실이며
>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
> 불교의 연기이자 공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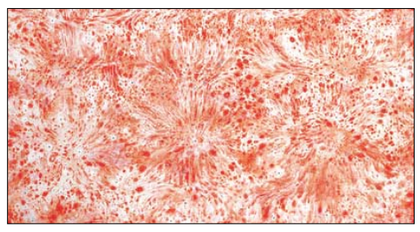


우주 속 유일무이한 존재를 ‘탄생불’로 표현했다.





일상의 안개낀 새벽바다(왼쪽)와 우주(오른쪽)를 나란히 배치해 하나로 얽혀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작품 ‘천공-안개’.



‘유천(流天)’은 삼라만상이 붉게 소용돌이 치는 세계를 형상화했다.

그가 자연과 일상의 조화를 시도한 작품들에 대해 평론가들은 추상과 구상의 만남을 시도했다고 평한다. 그러나 오경환 작가는 자신의 그림은 “구상과 구상의 만남”이라고 말한다. 우주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은 리얼한 현실 그 자체라는 것. 어려서 만화에서 접했던 우주는 이제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 현실 속 우주는 그대로 그의 작품 안에 녹아들었다.

그의 작품을 지탱하는 모티브는 우주와 함께 여행이 한 축을 담당한다. 그에게 여행은 별과 별을 좇아 다니며 사유하는 시간이다. 도시화 현대화로 하늘 볼 시간을 뺏긴 도시인들에게 별을 찾아주고 싶었다. 어렸을 때 밤하늘의 보석 같던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던 그 정서를 그림에 담았다.

우주를 관조하다 보니 불교의 세계관과 철학에도 푹 빠져들었다. 그는 우주에서 상응과 상관, 공허를 본다. 모든 것은 서로 상관관계로 얽혀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불교의 연기(緣起)이자 공(空)이다. 이 같은 그의 사상은 작품 ‘유천(流天)’에서 잘 드러난다. 붉게 소용돌이치는 ‘유천’은 바로 삼라만상의 세계이다.

오경환 작가는 불교 미술의 현대화를 위해 꾸준히 고민해왔다. 한때 단청도 연구하고 현대적 불화를 그리기도 했다. 71년 제2회 불교미술대전에서 입선했고 그게 인연이 되어 심사위원만 6차례 역임했다. 또 동국대에서 20년간 교편을 잡기도 했다.

그는 불교회화의 현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누가 원력을 내서 적당한 사찰을 우리 미술가들에게 맡긴다면 불교의 현대화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오경환 작가는 “현대 건축으로 법당을 건립하고 현대미술가들이 시대를 담은 현대적인 불화를 그려 넣어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사찰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간절한 원을 내비쳤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오원배 교수가 본 오경환의 작품세계

생성, 소멸을 평생 화두로 작업

화가 오경환 선생은 우주를 사유하는 작가이다. 선생은 여행을 통해 작품을 구상한다. 선생이 여행을 다니는 것은 생각을 찾아 여기저기를 방랑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풍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유’하느라 여행을 즐긴다.

여행다니는 지역마다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각각의 사유를 바탕으로 우주를 바라본다. 오선생의 작품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유를 펼쳐낸 다양한 스펙트럼의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런 우주를 진솔하게 담은 작품들이 이번에 전시되는 것이다.

선생은 “어떤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아 절망했노라”고 토로하기도 한다. 그렇게 평생을 생각을 찾아 여행하고, 여행지에서의 생각으로 우주를 바라봤다.

사유하는 것을 즐기는 오경환 선생에게 불교의 세계관은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선생은 생성과 소멸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해왔다. 일상에서 움직이다 보면 선생이 늘 말하는 생성과 소멸의 문제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생성됐다가 소멸된다.

이러한 생성과 소멸의 문제는 선생이 평생 화두로 좇아다닌 것이다. 우주는 생성과 소멸의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세계이다. 선생의 작품은 이러한 불교적인 사유를 그대로 녹여낸다.

(동국대 미술학부교수)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靑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월빙 자연당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월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둥 : 원목 아메존 사용가능

♦원두막 6000×3000×3200[mm] 8000×3000×3200[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형 방가로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820×350[mm]가격:150,000 할인가:120,000
1800×1030×350[mm]가격: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제작한 폴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뒤틀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허 보관 조립이 간단하여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www.bangaro.com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품목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12. 5
월 · 화 반, 수 · 목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동) 발냄새 무좀방지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총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족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8>



"대박을 터뜨리세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나란다성의 한 숲속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성에 '견고'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처님을 매우 존경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부처님과 승단을 좋아하는 만큼 청년의 소망은 오직 하나, 불교의 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어디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메아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부처님이 맨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다니며 가르침을 펼치는 식의 교화법은 얼른 집어치워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인도땅, 나란다성을 불교의 요람으로 만들 것인가…. 청년은 자나깨나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불교의 붐을 일으킬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아주 그럴 듯한 묘안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청년은 부처님을 뵈러 가서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앞으로 승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사람들을 만나면 기적을 보여주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런데 부처님은 청년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고 비구들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여래의 제자들은 오직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고요히 도를 행하고 만일 공덕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숨기며,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부처님의 거절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청년은 그래도 졸라댔습니다.

"부처님, 그러지 마시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스님들에게 명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는 부처님의 법이 얼마나 좋고 훌륭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란다성은 인구도 매우 많고 아주 풍요롭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조금만 기적을 보이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요, 부처님과 승단은 아주 훌륭하게 교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스님들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일러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한가지였습니다.

'기적은 안 된다'는 것….

물론 경전을 읽다보면 부처님도 세 가지 기적(신통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이나 막힘없이 드나들 수 있는 신통력, 상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환히 알아맞히는 신통력, 그리고 다른 이를 깨달음의 경지로 교화하는 신통력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잘못 부려 오히려 부처님에게 크게 야단을 맞는 스님 이야기도 경전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기적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함부로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기적은 아무리 부드럽고 쉬운 말로 타이르고 깨우쳐주어도 그 마음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청년에게 기적을 부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수행한 비구들이야 바른 생각으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겠지만 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이들이 그런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기적 속에 숨은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나도 그런 것 할 줄 안다, 주문만 몇 줄 외면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야말로 참으로 바른 법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장아함 견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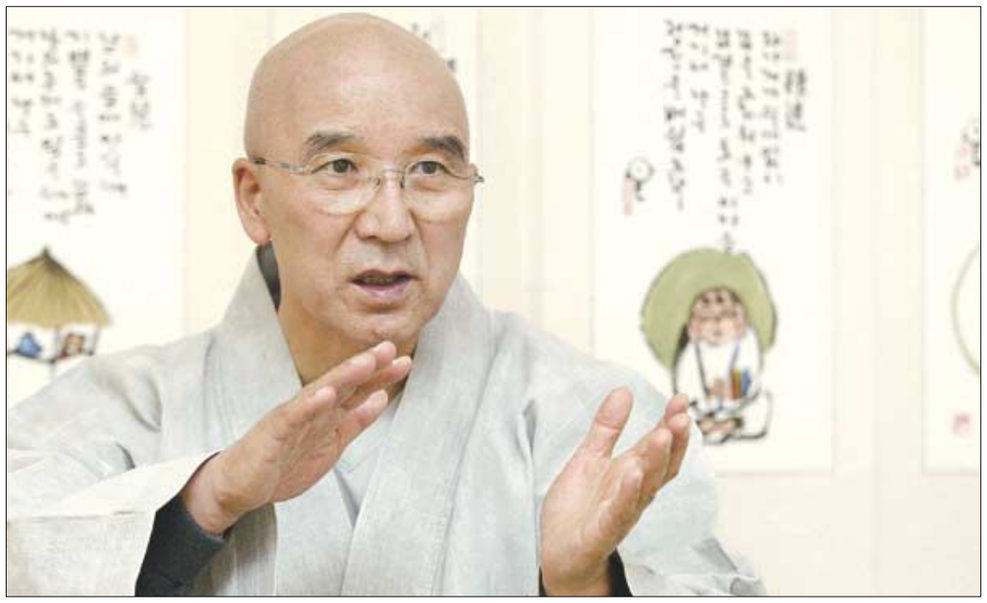
아마 부처님이 인도땅에서 대대적으로 교세확장에 성공할 생각이었다면 분명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불가사의한 힘 앞에서는 기가 팍 죽고 납작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단 신도들을 많이 끌어들여 다시 말해 소위 '대박'을 터뜨린 뒤에 뭔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펼치자는 심리가 종교인들 사이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난 뒤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인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국 정상적인 삶마저도 포기하는 말로를 겪게 되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기적'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부탁하는 사람 앞에 부처님은 '공덕이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감추고,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한 건 제대로 하여 인생을 180도 역전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요즈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어쩐지 시대를 거스르는 당부인 듯 느껴집니다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오래도록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교세확장에 '기적' 이용하자는 제안 끝내 거절
'공덕은 스스로 감추고 잘못은 드러내라' 당부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진철 스님은 '기도' '자비행' 등으로 불자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양의 멋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지상 백고좌

진철 스님
(대전 만불선원 회주)

가을비가 안개처럼 산자락에 내려앉은 10월 28일, 대전 만불선원에서 회주 진철 스님을 뵈었다. 고즈넉한 암자를 생각하고 찾아간 만불선원은 기대와 달리 충남도청 옆, 시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단아한 3층 건물은 산사에서만 생활해 오셨던 스님의 도심포교 원력처럼 보였다.

스님에게 '만불선원(萬佛禪院)'의 뜻을 물었다. 스님은 '만불'이 모든 부처를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부처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며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포교하겠다는 발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진철 스님이 들려준 '불자로 사는 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사회 정화를 위해 불교가 꼭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구성되는 것은 욕망 때문인데 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사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물든 사회를 깨끗하게 할 의무가 불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는 수행자나 재가신도나 다를 바 없이 짊어지고 가야할 의무입니다.

예전에 어떤 불자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에서 사회성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제28에 성취사법(成就四法)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가지 법은 여래 입멸 후에 <법화경>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법 즉 보살 덕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부처님께서 안 계신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도 <법화경>의 구제정신을 터득해 모든 사람에게 <법화경> 성불사상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법의 첫째는 제불호념(諸佛護念)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마음에 받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글만 아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불'은 무엇일까요. 모든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불은 바로 일체중생입니다. 그것을 받들어 모시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이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성입니다.

부처님이 오늘날 살아계셨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인격을 짐해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둘째는 식중덕본(植衆德本)인데 덕의 근본을 중생에게 심으라는 뜻입니다. 불교의 이치와 근본은 수행의 힘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왜 합니까. 수행해서 얻은 모든 것을 중생에게 심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곧 포교 전도하라는 말이지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널리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선언인데 성취사법의 두 번째도 바로 이것에 다름 아닙니다. 포교 전도해서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이지요.

세 번째는 입정정취(入正定聚)입니다. 성불이 결정된 사람들의 모임인 정정취에 들라는 말이지요. 성불이 결정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른 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아는 이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른 법을 세워서 삿되게 가지 말고 향기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성취사법의 제불호념과 식중덕본을 하기 위해서는 정법을 가져야 합니다. 삿되게 빠지지 말고 정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넷째 발구중생지심(發求衆生之心)은 사홍서원과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탑
사진·하지권

크기 | 30.5cm×30.5cm
특징 | 13매 특수고급제본
값 3,500원



2006 CALENDAR
불기 2550년 | 단기 4339년 | 丙戌年

부수 / 달력명	100~500부	501~1000부	1000부이상
탑	1,800원	1,700원	1,600원
색	1,600원	1,500원	1,400원

주문대상 : 개인, 각 사찰 또는 단체
주 문 처 : 불광문화사업부
대표전화 : 02)420 – 3200
팩시전화 : 02)420 – 3400
다량 주문은 다음과 같은할인혜택과 함께 달력 하단에 사찰 및 단체의 홍보 문구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색
사진·이겸



크기 | 30.5cm×22cm
특징 | 13매 특수고급제본
값 3,000원

월간 불광 · 불광문화사업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http://www.bulkwang.or.kr E – mail webmaster@bulkwang.or.kr

갚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생의 마음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라는 뜻이지요.

이 네 가지를 성취하면 <법화경>과 같이 할 수 있고 도인이 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 맞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전 행간에 숨은 의미는 글자풀이만 한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풀이식 경전 해석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기복이나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활과 다른 얘기들이 되풀이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할까요.

불자들은 매일 매일 독경하고 암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내 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경전 속 부처님 말씀이 내 생활과 아무 연관 없다고 느끼게 되면 친근감은 사라지고 내가 불자라는 사명감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경전을 독경하고 염불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불자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전만 외운다고 내 생활이 불자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암송하는 경전의 내용처럼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독경하고 뒤돌아서서 이웃과 싸우거나 가족들에게 분심(忿心)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같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 독경과 독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경전을 외울 시간에 내가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는지 찾아보고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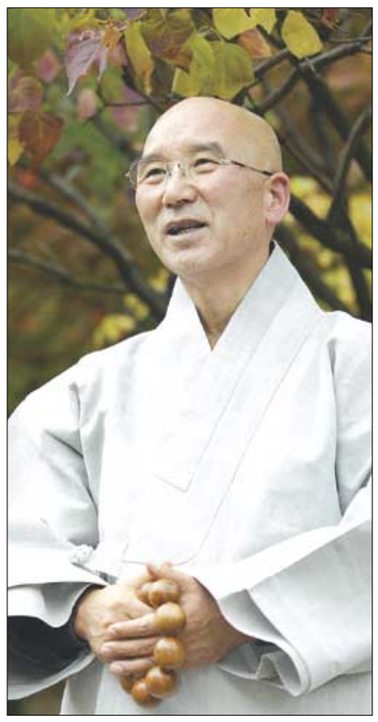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며 내 생활을 불교적으로 이끌었다면 이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욕망에 물든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불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불자들이 대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곧 보시요, 희생은 곧 보살입니다. 요즘은 많은 불자들이 사회복지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욕구와 쾌락을 충족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살면 지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사회참여는 기본입니다. 이 기본권을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너무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불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불자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장을 불교계에서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불자 여러분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대사회문제에 직접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불교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를 알든 모르든 불교유치원만 다녀도 불교에 익숙해지고 친불교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교입니다.

불자들은 자녀들에게 불교를 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자가정에서도 젊은 불자가 나오지 않고 사찰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만불선원이 문을 연지 4개월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청년회도 중 · 고등학생회도 대불련도 아무 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찰이 200개가 넘게 있으면 뭐합니까. 젊은 불자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불자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진철 스님은, 불자라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외적 조건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욕망에 물든 사회 정화하는 것은 불자 의무

사회문제 외면말고 기도 · 자비행 생활화를

어떻게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들은 아침예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야 합니다. 교리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의 불교는 살아있는 불교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아침예불을 통해, 꾸준히 반복되는 일상 속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감을 찾아야 합니다. 신행생활을 하고 아침기도 사시불공 등 자신의 일정에 맞게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요즘은 집에서라도 기도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법하게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불자로서 신념을 느끼게 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신념과 사명감은 교리공부만 해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생활 속 신행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 신념과 사명감이 몸에 밴 불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생겨난 자신감은 불자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고유가, 고금리 등 다양한 생활고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행하다는 것은 행복리듬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을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속에 있습니다. 만족의 기준을 물질 마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복지수는 또 틀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하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렇다기보다 주위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사회적 여건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잘못 세워서 불행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외적 상황에 끄달리지 마십시오. 현재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해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외형적으로만 살아 버릇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맨해튼을 걷든 강남의 신사동 거리를 걷든 외적인 모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세계는 천지차이입니다.

만불선원의 슬로건은 '모양의 멋보다 마음을 아름답게'입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내면의 멋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진철 스님은 진철 스님은 불교의 사회화와 그를 이끌어가기 위한 교육 · 제도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승려교육이 제대로 돼야 불교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이판사판 제도를 삼판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일판, 포교 교육 전담의 이판, 행정 중심의 삼판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삼판은 출 · 재가를 모두 포함해 불교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스님은 불교가 올곧게 서기 위해서라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다.

1940년 태어난 진철 스님은 65년 1월 공주 마곡사에서 득도 수계했다. 이후 해인사에서 자운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통도사에서 월하대종사를 법사로 건당했다.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상원사 법주사 은해사 수덕사 등 제방선원서 안거를 성만했다. 또한 강릉자비원 · 통도사자비원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신라문화원 이사장이자 대전 만불선원(주지 선오)의 회주로 있다.



금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법경 스님 (上)

석주 큰스님의 법상좌인 법경 스님은 나의 도반이자 대학원 동문이다. 그러나 가까운 수도권에 살면서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다.

내가 법경 스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 것은, 90년대 초다. 스님은 방생이 한강 수질을 오염시킨다며 불교계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빗발칠 때 "방생의 근본이 생명존중이라면 물고기가 적응을 못해 죽는다는데 굳이 관습의 틀에 잡혀 비판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라며 물고기 방생을 그만두고 성지순례와 인간방생으로 방향을 바꿨다. 당시 포교당 주지로서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예전 그대로의 방생을 하고 있는데 10여년전에 벌써 그러한 결단을 한 스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림 · 문병성

현재 법경 스님은 서울 광진구에서 포교원 능인정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동 영역은 성동구다. 따라서 양구(兩區)를 다니면서 폭넓은 포교를 하고 있다. 사중 살림이 넉넉한 것 같지도 않은데 독거 노인, 불우 이웃, 청소년 장학금, 군부대 포교 등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돕기에 나선다. 스님의 이러한 활동은 주민과 기관장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것같다. 그렇기에 종교인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서울특별시 민상' 추천을 주민과 단체장들이 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동구 문화원'의 이사로도 모셨다.

이러니 오죽 바쁘겠는가. "건강좀 챙겨라"고 하면, "과거의 법경이는 죽었고, 부처님의 가피로 새 법경이 태어났다"고 말하곤 한다.

법경 스님은 기관지가 안 좋아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의사가 늦었다며 수술을 한다 해도 가망이 50%라며 장담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1년 정도란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단양 원통암을 찾아갔다. 차라리 삶을 회향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관음 100일기도를 하였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던지 회향 3일전인가 비몽사몽간에 어떤 노스님이 나타나 장삼자락을 들추더니 빨간 약주머니를 꺼내 주어서 받았다고 한다.

100일 기도를 회향한 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식욕이 생겼고, 한 달이 지나자 그렇게도 숨차하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3개월이 되자 정상적으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나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병원에 검진을 갔는데, 의사가 완치가 되었다고 깜짝 놀라며 현대의학으로 알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법경 스님은, 약사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불은(佛恩)에 보답하겠다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 평생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는 원을 세웠다. 또 부처님가피로 죽을 병을 극복하고 나니, 이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헤쳐 나갈 자신감도 생겼다.

생사(生死)라는 큰 고비를 극복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남을 돕겠다는 자비심으로 자신을 신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간 것이다.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불행을 겪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때로는 자신을 보다 가치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기회도 되는 것 같다.

불치병 기도로 극복한 후 평생 봉사 원 세우고 혼신

어느 선지식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고뇌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고뇌할 필요가 없고, 방법이 없다면 고뇌하는 것은 무익하다."

언젠가 법경 스님은 서울의 모기관 고급 공무원의 타계로 인해, 도반과 함께 영결식장에 갔다. 영결식장에서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고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 같았다. 그런데 불교의식도 함께 했고 스님의 법문에 이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데 참석자들 사이에서 염불소리가 들려 영결식을 마친후 그 보살들과 차담을 나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인의 집안은 독실한 불교였고, 미망인도 그 보살들과 함께 불교대학을 수료하고 염불팀으로 함께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부인은 몇 개월 전만 해도 다니던 사찰에서 2천여 신도를 리드하던 간부급 신도였다고 한다.

스님은, 그 부인의 병을 고쳐보려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종교까지 버렸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을 빌리면, 마지막 떠나는 길에 종교를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법경 스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제 법당에서 불자 오기를 기다릴게 아니라, 현대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직종에 맞게 그들의 고뇌와 번민을 덜어주며 마음의 평화를 건네 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한다.

■ 남양주 무량사 주지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놀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필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11월 9일 수요일 제 551 호



현재 국화축제를 열고 있는 진도 쌍계사. 국화향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다. 넉넉한 가을, 국화향에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진=이준엽 기자

향에 취하고 색에 반하다

전국서 열리는 국화축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서정주 작 '국화옆에서')

한국의 '대표시'라고 불리는 '국화옆에서'. 이 시를 읽기만 해도 형형색색 피어난 국화가 떠오른다. 가을의 꽃 국화를 볼 수 있는 축제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국화를 보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아치모양 국화로 장엄된 쌍계사 일주문.



국화와 조화를 이룬 미당문학기념관.

●국화로 부처님세상 장엄한 진도 쌍계사

진도 쌍계사(주지 진현)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이 계절을 대표하는 국화가 부처님세상을 장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찰산 초입에서 만난 일주문도 국화로 장식된 아치문을 통해야 지날 수 있다. 꽃 터널을 지나는 동안, 극락세계를 향한 듯 마음과 몸이 모두 흥겹다.

경내에 접어들면 크고 작은 수천송이의 국화가 다양한 모양을 뽐낸다. 종각옆, 대국으로 조성된 일원상 모양의 국화를 접하면 '내 마음도 본래 저렇게 둥글었음'을 느끼게 된다.

대웅전 뜰 방에 서면 아기자기한 꽃장식이 화려하면서도 엄숙하기가 마치 영산회상에 있는 듯하다. 도량 내에 은은하게 풍기는 국화향기는 여느 향내음 못지않다.

법당 입구 양편에 서있는 국화꽃 5층탑은 그대로가 살아있는 '생명탑'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쌍계사 국화축제는 11월 20일까지 이어진다. (061)542-1165

●100억송이 국화꽃에 취하는 고창국화축제 '국화옆에서'를 쓴 미당 서정주 선생이 태어난 전북 고창. 선운사 동백만큼이나 아름다운 국화 100억송이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창국화축제다.

미당 서정주 선생 묘소 인근 4만 여평에 조성된 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고창국화축제는 서해와 변산반도가 내려다보이는 꽃밭에서 국화의 멋과 향을 느낄 수 있는 행사다.

뿐만 아니라 미당의 대표적인 시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미당문학기념관이 국화축제장 바로 앞에 있으며, 가을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선운사도 승용차로 10여분 거리에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선운사, 미당시비, 고인돌유적지, 동학기포지, 모양성, 동리 신재효 고택 등을 돌아보는 문학순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축제는 11월 27일까지. (063)561-0151

●특성화된 국화축제도 많다 두 곳의 축제 외에도 각 지역이나 시설의 특성을 살린 국화축제도 계속되고 있다. 충남 아산 세계꽃식물원(041-544-0746)은 12월 10일까지 '세계국화축제'를 진행한다. 서울대공원 테마가든(02-500-7114)의 '국화작품전시회'와 대전꿈돌이랜드(042-862-4000)의 '국화대축제'는 11월 13일까지 이어지며, 제주 한림공원(064-796-0001)에서는 11월 20일까지 '한림공원 국화축제'가 진행된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이영화 어떠세요?

유머 · 재치 넘치는 좌충우돌 야채도둑 추격전

월래스와 그로밋: 거대토끼의 저주 감독: 닉 파크 목소리: 피터 살리스, 랄프 파인즈 장르: 애니메이션 상영시간: 85분 등급: 연소자 관람가



거대토끼 출현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화려해진 볼거리로 무장한 애니메이션 '월래스와 그로밋: 거대토끼의 저주'. 어떤 언어로 번역되어도 그대로 살아나는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우리나라 어린이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행동파 강아지 '월래스'와 행동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는 사색파 아저씨 '그로밋'의 환상의 콤비플래이는 동심 속 정의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최첨단 발명품으로 무장하고 야채를 훔쳐 먹는 토끼로부터 마을의 보안을 담당하는 최강 콤비 월래스와 그로밋. 곧 있으면 열릴 마을 최대의 축제 '슈퍼 야채 선발대회'로 인해 이들의 토끼 체포 업무는 나날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 마을의 야채를 모두 먹어 치우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 파헤쳐진 야채밭, 거대한 발자국, 무너진 담장, 무시무시한 침입자의 흔적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인다. 특수 요원 월래스와 그로밋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이 '거대 토끼'란 사실을 밝혀낸다. 과연 최강 콤비 월래스와 그로밋은 이 엄청난 놈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인가?

클레이 애니메이션(점토 인형 영화)을 통해 인간과 가장 흡사한 표정을 그려낸 영화 '월래스와 그로밋'. 영화 '태권V' 만큼의 흥분된 아드레날린의 분비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시

하늘과 바다, 경계는 어디인고

전혁림 화백 '구십, 아직은 젊다' 展



전혁림 作 '새 만다라'.

91세 노화백이 올 한해 작업한 신작을 들고 찾아왔다. 한국적 색채화가 전혁림 화백의 신작전 '구십, 아직은 젊다'가 11월 12일~12월 18일 기흥 이영미술관에서 열린다.

12일 오후 3시 정영만의 남해안별신굿을 시작으로 개막하는 이번 전시에는 1년 동안 전 화백이 밤낮없이 작업한 400여점의 신작들을 선보인다.

이영미술관에서 세 번째 열리는 전혁림 화백의 전시회에는 320개의 목기 소반에 그린 '새 만다라(曼荼羅)'를 비롯해 1000호가 넘는 대작 '기둥사이로 보이는 통영항' '한려수도' 등이 전시된다. 이밖에 40여점의 수채화와 목기 · 도자 그림 등도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통 민화에 뿌리를 둔 전혁림 화백의 그림은 맑은 남빛 코발트블루를 주조로 통영의 하늘과 바다를 닮아 푸르다. 거기에 붉고 푸른 원형의 도형들은 민화에서 차용했다. (031)213-8223

강지연 기자

한지에 담은 탄자니아인 삶과 풍광

이호신 화백 '검은 꽃 향기'



이호신 作 '탄자니아'.

한국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문화를 만나자. 한양대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06년 1월 30일까지 '탄자니아 문화 특별전'을 기획전시실 I Ⅱ에서 개최한다.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복권기금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기획된 아프리카 탄자니아 전시다.

탄자니아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유물, 그림, 사진 등이 전시된다. 첫 번째 주제 '이시밀라 아슐리안 문화'에서는 탄자니아의 이시밀라 유적에서 발굴된 석기를, 두 번째 주제 '킬리만자로의 마사이족'에서는 마사이족의 생활상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제 '검은 꽃 향기-한지에 담은 탄자니아'에서는 한국화가 이호신씨의 한지작품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호신 작가는 지난 2000년 탄자니아를 방문해 3개월간 체류하며 탄자니아의 여러 풍광을 화폭에 담았다. 그림들은 탄자니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현지 예술계로부터 높은 평판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전시된 작품과 미공개작품을 모아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02)2220-1396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7일 14:05 낭만라디오
8일 11:05 아름다운 초대
9일 10:05 BBS신행상담실
10일 09:05 행복한 미소
11일 21:05 영화음악실
12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13일 07:05 사랑의 징검다리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7일 21:10 한국의 명찰
8일 02:40 불교TV스페셜
9일 15:50 열린마당
10일 19:30 TV법회
11일 08:20 산중대담
12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13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불교 음악의 세계(11월 11일 18:15~19:00) '세계 불교음악 백화점'에서 불교음악의 모든 것을 만나보는 시간. 찬불국악, 불교관련 명상음악, 찬불동요, 중국 · 티베트 · 베트남 등의 불교관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교음악 한 소절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11월 13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희담석 눈찜질팩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공부를 하다보면 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간다.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현대인의 눈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품 '희담석 눈찜질팩'이 나왔다. 눈찜질팩은 눈의 피로를 자주 느낄 때나 머리가 무거울 때, 공부할 때 사용하면 눈의 피로를 쉽게 풀 수 있다.

평소에는 냉장고의 냉장실에 넣었다 사용하면 좋다. 특히 수험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부도우미'가 될 수 있을 듯. 가격은 1만 6500원.

게시판



요가 · 한지공예 무료체험 서울 조계사는 11월 22일과 24일 각각 요가와 한지공예 무료체험 행사를 마련한다(사진). 프로그램별로 각각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12월부터 3개월간 계속되는 조계사 아카데미의 사전 체험 코너다. (02)725-2114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완주 송광사는 11월 12~13일 양일간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63)243-8091

밀각심인당 바자회 진각종 밀각심인당은 11월 13일 1시부터 심인당 마당에서 한과, 과일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연다. (02)2292-3252

청소년자원봉사상 후보 접수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과 부산일보는 11월 20일까지 '제2회 청소년 자원봉사상'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051)898-2672

무료 한글교육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로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와 프로그램을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함께 모집하고 있다. (051)628-6737

경주문화기행 경지 신라문화원은 11월 13일 동남산 일대를 돌아보는 '11월 경주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연구소장의 안내로 진행되는 이번 기행의 참가비는 1만 5000원. (054)774-1950

20면 상식 퍼즐 정답

오	상	고	절			
미			연	좌	제	
자	산		체		반	
	대				사	불
	놀					심
	이	이	제	이		검
				남	대	문

내생에는 스님되게 하소서 (상)

서진석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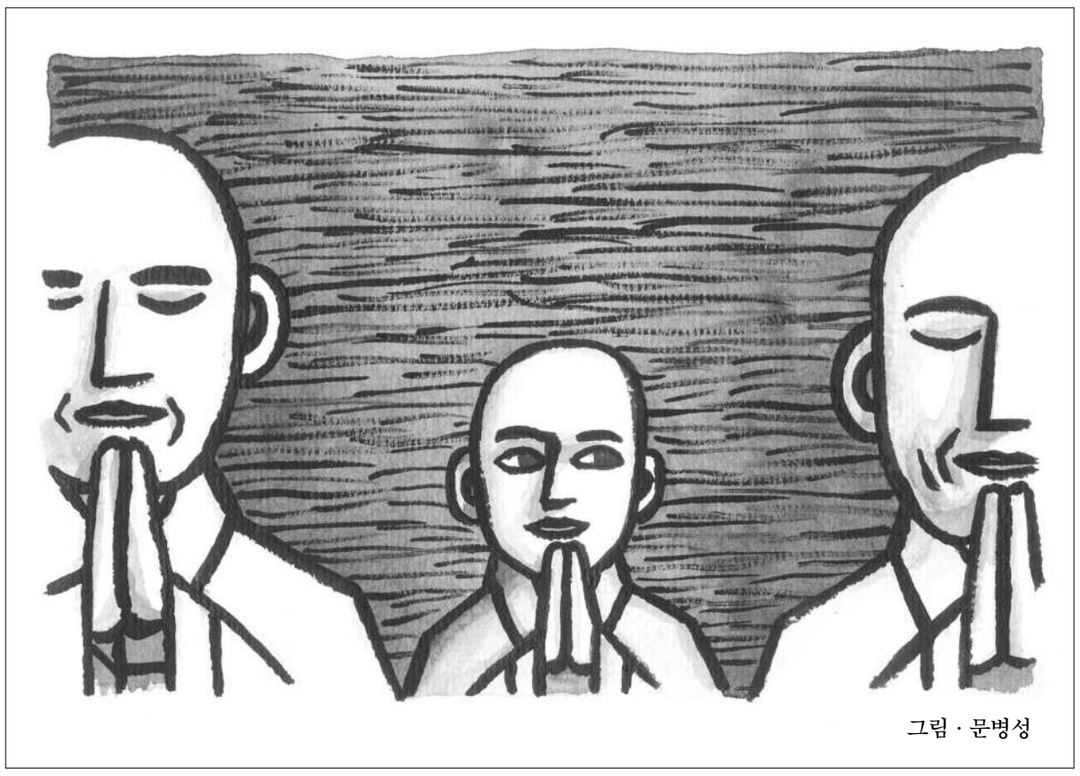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대입모의고사를 마치고 우연히 들른 집 근처의 한 사찰. 고즈넉한 분위기에 간간히 들리는 풍경소리가 수험생인 내겐 무척이나 편안하고 신선한 경험이었기에 법당 앞 툇마루에 걸터앉아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당시 교회에 다니던 나는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고 뭔지 모를 불경스러운 대상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 날의 일 자체가 파격이었고, 지금도 더더욱 부처님과의 인연의 소중함을 실감하는 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날 일로 인해 대학에 들어가 군을 제대할 때까지 사찰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던 중 주지스님의 권유로 지금까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단기출가 생활을 순천 송광사에서 시작하게 됐다.

비록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벽 두시 반부터 밤 아홉시까지 교육과 울력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생활은 그야말로 불교식 '삼청교육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난생 처음 겪는 낯선 환경과 생활, 아무리 신심을 내어 도전했다고는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생활이었다.

더구나 겨울이어서 새벽 3시에 시작하는 예불 때 불전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있으면, 두 손과 발은 이내 벌겋게 얼어붙고, 옷 사이로 칼날 같은 바람들이 스며들어 <예불문>과 <천수경>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온통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윽고 예불이 끝나고 나면 공양간에서 채공과 갱두의 소임을 맡아 아침공양을 준비한다. 아침공양이 끝나면 곧바로 스님들의 교육이 시작되는데 어제 배운 것부터 암기해 시험을 보고나서 그날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후, 한숨 좀 돌릴까 하면 원주스님은 매일매일 행자들이 지루할까 걱정이 되셨는지 다양한 일거리로 잠시의 쉬는 시간도 울력으로 채워주었다.

그러다가 다시 점심공양을 준비하고, 또 울력을 하다가 저녁공양을 준비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한번은 아침공양을 마친 후, 가뜩이나 잠도 많은데 잠을 못 자다 보니 수면부족으로 제 명에 못살겠다 싶어 절에 찾아오는 불자님들 처소 옆에 있는 이불방에 숨어들어 이불사이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점심녘까지 실컷 잠을 잔 기억도 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심하게 혼낼 거라고 생각했던 원주스님이나 다른 행자님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물론 '탈영'을 상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개해 주신 주지스님의 얼굴과 "이런 일조차 이기지 못하면 뭘 하겠냐" 싶은 자존심 때문에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언젠가 끝은 있겠지" 하면서.

사찰 청년회 활동하며 송광사서 단기출가
고된 교육과 울력에 도망칠 생각도
시간 지날수록 '해보자' 하는 마음 생겨

어느덧 한달 정도 시간이 흘러 사회에서 배어들었던 속물근성들이 점점 빠져가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단지 얼마 전 삭발해버린 머리가 계속 눈에 거슬릴 뿐이었다. 하지만 매일매일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번잡하고 복잡하던 머리 속은 실타래가 풀린 양, 명료하고 밝은 느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주변 나무의 향기, 바람 내음, 개울의 물 흐르는 소리 등 옛날에는 지나쳐버린 사소한 것들이 나를 즐겁게 했고,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 그때 내 스스로 '행자생활도 기도도 경전공부도 제대로 해보자'하는 발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이후로 나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녘 차디찬 얼음물로 잠을 깨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예불문>을 독송하고, 108배를 하고 경전을 암송했다. 얼마 전 손끝과 발끝을 얼어붙게 했던 추위는 더 이상 나에게 번뇌와 장애가 아니었다. 아침에 공양을 준비하고 공양을 마친 후 산더미 같은 설거지조차 즐거웠고, 스님께서 일러주시는 경전공부도 소중히 한자 한자 새기면서 울력시간 틈틈이 외우고 새겼다. 또한 계곡 옆 사자루에 모셔진 비로자나부처님께 백팔 배와 기도정진을 했다. 몸은 고단했지만 힘든 줄 몰랐고, 마음은 환희심에 가득 찼다.

주위의 스님들도 그런 나에게 좀더 박차를 가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관음전에서 1000일간 묵언 관음기도를 하셨던 스님이 계셨다. 당시 기도를 시작하신 지 2년째 접어들었는데 매일 '사분정근'으로 거의 10시간 정도를 기도에 매진하셨다.

가끔 스님은 겨울철이라 감기몸살에 목이 잠기고 온 몸이 땀에 절어 매우 편찮으신데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관세음보살님 전을 지키셨다. 지금 기억에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약을 계속 드시는 것 같았는데,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라고 물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수행이 부족해서"라고 글로 써 보이면서 더더욱 기도에 몰두하는 모습이 어린 나에겐 숭고하고 고귀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저러다가 쓰러지시면 어쩌나!"하는 생각과 함께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째 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대단하게 여겨졌다. 분명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하루정도 쉬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 가슴 한 편이 저리면서, 얼마 전 일이 힘들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불방에서 주위를 속이고 게으름을 피운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스님의 천일기도정진으로 송광사 경내는 하루 종일 관음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무명업장의 어리석음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나에겐 큰 가르침이자 경책의 소리였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불자들이 보시해주는 크림빵이나 과일 등을 남몰래 챙겨 드리거나 가끔 스님을 따라 관음기도에 동참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스님이 현봉 스님이다. 아침공양을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뵙던 스님으로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치셨다. 몇 해 전인가 송광사 주지스님 소임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뵌 스님들 중에서 '스님냄새'가 많이 배어나오는 스님중 한 분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구수하고 꾸밈이 없어 하시는 말씀마다 송광사 뒷산인 조계산의 풍광과 참 많이 닮아있었다. 가끔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강훈암에 찾아뵈면 언제든 녹차를 정성스레 다려주시면서 "열심히 행자생활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신도들이 가져온 빵이나 과자 등 간식거리까지 챙겨주셔서 친한 행자들과 나눠 먹던 기억도 난다. 그래서 다른 행자님들과 "현봉 스님이 최고 아니냐" 또는 "너, 현봉스님 상좌해라"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행자들 사이에서도 강훈암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 일순위로 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계속됐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목탁교육



불교기초의식부터 장례의식등 목탁치는 법을 배우고자하는 불자님들에게 무료로 지도해 드립니다.

일 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부터

장 소
금강선문(성수동)
지하철 2호선 7호선 6번출구
(건대입구역 성수동. 영동대교 방향 5분거리 우리은행 옆 건물 3층)

02)465-7530, 011-257-3511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수능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
제 53회 3000배 철야정진

평소 갈고 닦은 실력 100% 발휘를 위한 기도!
수능 고득점, 만점을 위한 기도!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위한 기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성스럽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를 끊임없이 염송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100% 기도 성취의 대 긍정의 감사로 학업성취의 큰 소원을 이뤄냅시다.

- 날 짜 : 2005년 11월 19일(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 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망스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집에서 보고 기르고 마시자



차나무 화분재배에 성공한 최정수 밀림농원 대표가 자신이 화분 재배한 차나무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용 녹차나무 화분 개발한 최정수씨

6년여 걸쳐 시도 화분재배 성공
30cm크기 1년에 12~15회 새순 채취
음식 미용 공기정화 등에 활용 다양
농약 비료 주지 않아 집에서도 안심

"웰빙 식품의 대표주자인 차를 집에서 직접 길러 드세요."

그림같이 아름다운 차밭이나 몸에 좋은 차 음료에 매료된 사람이라면 이제 차를 집에서도 기를 수 있게 됐다. 6년전부터 차나무 화분재배를 시도한 최정수(50) 밀림농원 대표는 최근 차나무를 화분에서 길러 상품화하는데 성공하고, 본격적인 시장 출하를 앞두고 있다.

차나무는 땅 속 1~2m 가량까지 뿌리를 내리는 직근성(直根性) 식물로, 그동안 화분에서 키우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다. 1999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에서 차나무를 화분에 옮겨 키우는 작업을 시작한 최 대표는 차나무의 뿌리를 계속 잘라주어 뿌리가 옆으로 잘게 퍼져나가게 만들어 화분 재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처음엔 차나무의 특성을 잘 몰라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차시험장과 여러 다원에 문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다보니 길이 열리더군요. 그렇게 화분재배에 성공하는데 딱 6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남의 차밭 3만여 평에서 길러낸 차나무 5만여 그루는 현재 하남시 망월동 밀림농원에서 화분에 담겨 막바지 출하를 앞두고 있다. 상품으로 선보일 5년생 차나무는 보통 30cm 크기로, 집안에서 재배할 경우 1년에 12~15회 정도 새순을 딸 수 있다.

"흔히 차는 마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찻잎을 물에 우려마실 경우 차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의 30% 정도 밖에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찻잎을 직접 먹을 때는 찻잎의 영양소를 거의 모두 섭취할 수 있지요."

화분에서 재배해 수확한 찻잎은 가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찻잎에 물을 조금 넣고 갈아 만든 생녹즙은 우유나 요구르트에 섞어 마시고 생잎은 샐러드나 나물, 장아찌, 튀김 등으로 만들어 즐길 수 있다. 또한 찻잎을 갈아 미용재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은 천연의 재료라는 것이 차나무 화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가정에서 키울 경우 신선한 찻잎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시사철 푸른 잎과 10월에 피는 하얀 차꽃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집안 공기까지 맑게 해주니 가족 건강의 파수꾼이 따로 없죠."

'차나무 화분재배'라는 꿈을 이룬 최 대표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차나무를 이용해 가정에 조그만 다원을 꾸미는 조경 사업과 유기농 차밭에서 수확한 '신선한 찻잎'을 각 가정의 식탁에 올리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현재 음료로만 활용되고 있는 차를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심으로써 진정한 '웰빙'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언젠가 찻잎이 영양 가득한 '채소'로 인식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031)792-7616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나무 화분 재배 요령

관상용 화분과 달리 차나무 화분은 '재배'를 해야 하므로 생육환경에 신경 써야 한다.

보통 아파트에서 키울 때는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화분을 두고, 겨울과 초봄 · 늦가을에는 실내에 들여 놓는다. 겨울에는 영하 17℃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해주고 뜨거운 퇴약볕을 직접 쬐지 않도록 한다. 낮에는 베란다 문을 1~2번 정도 열어 환기시키고, 화분을 둔 곳이 건조하다면 화분 주위와 찻잎에 물을 뿌려 습도를 맞춰준다.

물은 4일에 한 번 흠뻑 젖도록 주는데, 새로 나온 순이 있는 여린 가지가 고개를 숙이는 시점에 물을 준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생녹즙**: 생잎을 그대로 갈아 마셔도 좋지만 찻잎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말리면 입자가 곱게 갈린다. 요구르트나 우유 등에 섞어 마신다.

▷ **라면/밥물**: 라면을 끓일 때 70% 정도 익으면 찻잎 3~4 장을 넣는다. 찻잎으로 인해 기름기가 제거돼 개운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밥을 지을 때에도 찻잎을 몇 장 넣으면 향과 맛이 은은하게 배어난다.

▷ **튀김**: 튀김반죽에 찻잎을 묻혀 튀겨낸다. 쓴맛을 내는 찻잎의 카테킨이 튀김의 느끼한 맛을 없애준다.

▷ **쌈/샐러드**: 여러 채소를 넣는 샐러드나 고기 쌈 등에 찻잎을 몇 장 넣어 먹는다.

▷ **나물/장조림/각종 구이**: 어린 찻잎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물기를 짜고 참기름, 깨소금 등으로 양념해 고추장에 무친다. 생선조림이나 구이를 할 때 넣으면 비린내를 제거해 주는 효과도 있다.

조선시대 ㉔

유건집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49)

선가의 차 초의 거쳐 범해, 금명에 만개
유길준 장지연 등이 다사 기록 남겨

고려 이후에 계속된 선가(禪家)의 차는 초의를 거쳐 범해(梵海), 금명(錦溟)에 이어져 만개하는 결실기를 맞는다. 불가(佛家)에서도 박한영, 한용운 등의 스님이 나와 불교 현대화를 위해 설법했고, 새로운 교육체계를 모색하는 시기다. 그 같이 높은 다심(茶心)이 지금의 선가에 다속(茶俗)을 이루고 많은 불자들이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깊은 뜻을 체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때까지도 궁중에서는 의궤(儀軌)에 차가 반드시 들어 있고 다식(茶食)도 빠지지 않았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차 대신 숭늉을 올리더라도 다식만은 꼭 제수로 썼다.

근대적인 개화사상에 젖었던 유길준이나 장지연, 이능화 등이 나와 다사(茶事)를 기록으로 남겼고, 다시를 통해 올바른 차 정신을 노래했다.

① 유길준(兪吉濬, 1856~1914): 개화운동가. 유럽을 여행한 후 〈서유견문록〉을 쓰고 서양인들의 티파티를 소개해 당시 다화회에 영향을 주었다.

② 금명보정(1861~1930): 송광사 스님으로 범해각안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자(字)를 다송자(茶松子)라 했으며 평생 차와 함께 살았고 다시 80여수를 남겼다.

③ 진찬의궤에서 작설차를 썼다고 했다.

④ 이능화(1869~1943): 〈조선불교통사〉에서 장백산에서 백산차(白山茶)가 나온다고 했다.

⑤ 박한영(1870~1948): 법명은 정호(鼎鎬), 한용운 등과 임제종 정통론을 주장하고 조선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지내며 불교강의를 한 차인이다.

⑥ 우리나라 역대 시 모음집으로 다시도 들어있다.

⑦ 권흥(權興)이 쓴 다시로 오국헌의 시가 있다.

⑧ 의식 때 술 대신 차를 쓴다(用茶代酒)고 했다.

⑨ 고종 10년에 자완(磁椀) 20개 및 은다종(銀茶鐘)을 썼으며 차는 내의원에서 관장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⑩ 만해 한용운(1879~1944): 독립운동가이자 스님으로 불교중흥과 청년운동을 주도하며 〈님의 침묵〉 〈흑풍〉 등의 작품을 쓴 차인이다.

⑪ 청대 문인으로 〈속다경(續茶經)〉 20권을 썼다.

⑫ 청대 사람으로 〈기홍애진장설다(記紅崖陳丈說茶)〉를 찬술했다. 그 속에 다화(茶花), 제다(製茶), 배법(焙法), 용화(用火) 등에 관한 기록이 있다.

⑬ 변실제(卞實第)가 찬술한 책으로 여러 곳의 물산차(物産茶)를 썼다.

⑭ 송경탕이 찬술한 책으로 차나무 번식법을 기록했다.

⑮ 필자 미상의 무이차에 관해 기록한 글이다.

16 오창석(1844~1927): 전각서화가로 차를 사랑한 차인이다.

17 경도(京都)에서 유행하던 큰 전다회가 열렸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850 〈서유견문(西遊見聞)〉 ① 1857 세한도(歲寒圖) 초의 추사 영전에 제문을 올림 1861 금명보정(錦溟寶鼎)의 출생 ② 1864 차인 장지연 1866 초의 입적 1868 진찬의궤 ③ 1869 이능화(李能和)의 출생 ④ 1870 박한영(朴漢永)의 출생 ⑤ @ 〈대동시선(大東詩選)〉 ⑥ 1873 어은유고(漁隱遺稿) ⑦ @ 〈농가집성(農家集成)〉 ⑧ 1877 진찬의궤 1878 다완과 은다관 ⑨ 1879 만해 출생 ⑩	청대	@ 미국 '동방호'가 차를 싣고 영국으로 가다 洱 1861 한구(漢口)에 차공장 설치 @ 반사제(潘思齊) ⑪ 1866 장진기 ⑫ 1869 〈민교유헌록(??檜軒錄)〉 ⑬ 1874 〈종다설십조(種茶說十條)〉 ⑭ @ 〈무이기승(武夷紀勝)〉 ⑮ @ 오창석(吳昌碩)의 활동 16 17 경도(京都)에서 유행하던 큰 전다회가 열렸다.	강호시대	1860 미국으로 차 수출 1866 명치유신 1868 왕정 복고 1874 차산업 장려 1875 대전다회(大煎茶會) 17

瑞榮普洱
茶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서영보이, 개명기념 인삼오룡 극품 2만원 한정판매
보이차 전문점 '감로수'가 '서영보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10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FAX 02)737-0855 / H.P 017-411-0882

현불 프리미엄 불교성지 순례 | 부처님의 땅, 인도 -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수준높은 인도 불교 성지순례
'프리미엄 인도 12'
인도 불교 성지순례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델리 도착
제2일 간디 회장터, 자마마스지드(회교사원) 시크교사원, 인도문, 인도정부빌딩
제3일 갠지스강 보팅 녹야원 싸르나트박물관 중국사원
제4일 부다가야 금강보좌 니련전하
제5일 나란다 대학, 라지기르 도착 왕사성 영취산 영산회상, 죽림정사
제6일 유마경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바이샬리 순례
제7일 부처님의 열반지 쿠쉬나가르 열반지 순례 열반지, 다비터
제8일 부처님 성장지 카필라성 룸비니 네팔 관광 | 마야데비사원 구룽못 순례, 아쇼카기둥 순례
제9일 사헤트/마헤트 방문 앙굴리 마라터, 간다쿠티/ 보리수 참배
제10일 아그라 타지마할, 더알박사원
제11일 델리투어 연꽃사원 차탈푸르 흰두교사원,쿠툽탑
제12일 델리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부처님의 발자취 인도 12일
11월 28일 출발 | 접수마감 : 11월 15일
동참금 : 235만원
■ 전일정 특급호텔 투숙
■ 불교를 잘 아는 현대 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의 수준높은 불교성지 순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지마할 아그라 성 싸르나트 마메크탑 부다가야 대탑 쿠쉬나가르 열반당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접수처 : TEL 02)2004-8295~6 | 사업팀 최언규(원각) 팀장 : 018-366-1002
협력사 미문여행사 02)722-8111 / 인솔 법사 : 이선행 스님
■ 지사 / 지국 안내 : 부산지사 051)632-0064 / 대구지사 053)768-8008 / 호남지사 062)375-9986 / 대전 · 충북지사 043)732-5560 / 울산지사 052)272-0909 /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055)547-3469 / 영주지국 054)634-3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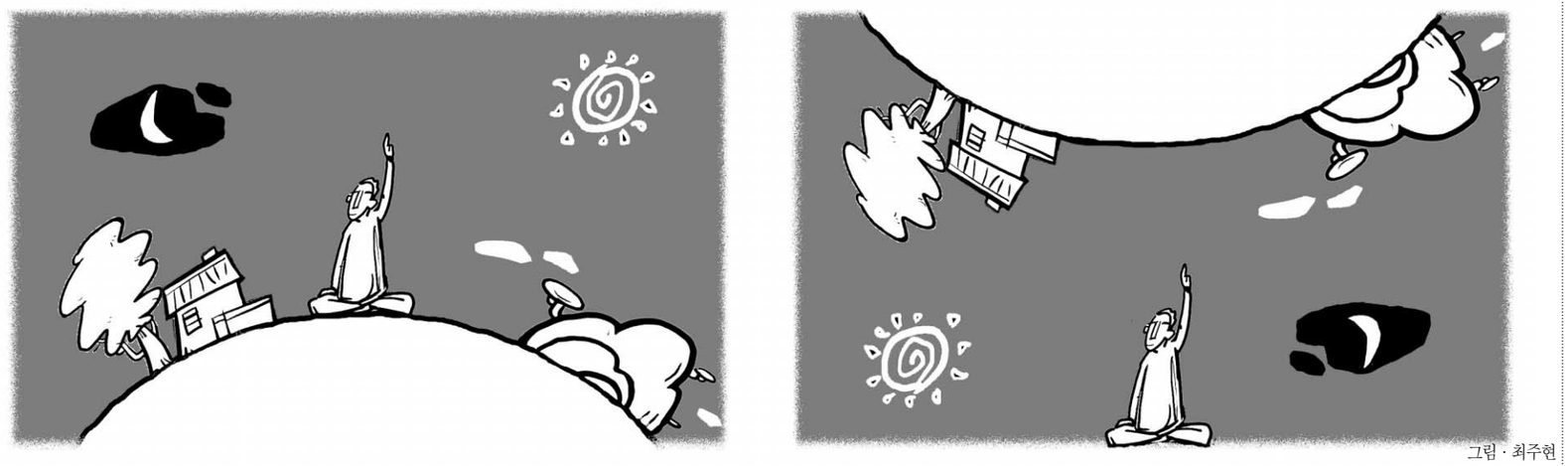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분수를 잘 알고 모든 걸 관하면서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 스님 뵙고 질문드린 지가 오래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명에 젖어서 스님 법문을 받들 때마다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는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웠는데 스님 법문을 대할 때마다 조금씩 그 무명이 벗겨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또 놀라는 것은 제가 스님께 이런 말씀을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이미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정확히 알고 점검을 받아야 되겠기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툰다 하는 것을 저희들 물리학에서 본다면 모든 물질들이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입자들이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 궤도를, 그냥 고정된 궤도를 돌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궤도가 궤도를 옮겼다 고정되지 않고 바꾸면,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광력이라든가 전력 · 통신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어놓은 업식이라든가 또는 무명이라든가 아까 번뇌 망상에 의해서 그런 궤도를 제대로 운행을 못하도록 한다면, 또 뭐 의학적으로 본다면 피가 운행을 몸속 곳곳에 잘 해야 되는데 어떤 한 곳에 막히게 되면 그게 아프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번뇌 망상 또는 업식이 있을 때에 돌아가는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해서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진한다든가 참선한다든가, 또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막히고 제대로 운행을 못하는 것들을 한쪽으로 돌게 만드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힘도 그 힘이 같은 방향으로 또는 힘이 모여져야 큰 힘이 나오지, 그 힘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여러 군데로 같이 방해를 하면 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수행이나 정진은 그런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큰 힘이 나오도록 돌리는 것이 정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스님께서 자동 컴퓨터를 늘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분하고 통신을 할 때는 반드시 다이얼을 돌린다든가 또는 방송을 들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은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그 방송을 듣게 되는데, 주인공 자리라 하면은 자동으로 그것이 주파수가 조절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지금 현상적으로 본다면 KBS 방송을 들으려면 KBS 채널을 맞춰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갖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인공 그 자리는 저희들이 일부러 맞추지 않더라도 관(觀)하면 전체 자동으로 맞춰지는지요.

▲스님: 네. 자동이에요. 지금 로봇을 운행을 한다든가, 또는 방송을 듣는다든가 통신을 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작용하게끔 돌린다든가 이런다면은 뭔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 복잡한 것을 다 착착착착 그냥 일사천리로 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동적인 컴퓨터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컴퓨터가 말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주관적인 데서 모든 배출시키는 거와 모든 통신하는 거 일체, 뭐 지금 물질 컴퓨터에다가는 입력하는 것만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전체, 일체 광대무변한 모두가 전부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에 벌써 그냥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눌러지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걸 생각이나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튼을 눌렀다 다시 끄고, 버튼을 눌렀다 다시 끄고. 하하하. 아! 자꾸 이러니까 이거는 하려다 못하고, 하려다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한생각으로 조달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게 모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 자동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러니 우리가 남을 이렇게 구제하자 하는데, 물질로 구제를 하는 거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발의 피죠!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 하고들 모두 날뛰는데, 한생각이 잘못됐으면 그 악이 퍼져가지고 전부 웬만한 조그만 거는 다 그냥 뭉개져버려요. 못 살게 뭉갠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어떠한 것을 도와야 하느냐 하면, 마음을 도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발전시키고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신계에 진출을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손실이 되는 거죠. 이건 막대합니다, 정말. 반반이에요. 그런데 악이 더 많지 선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의 종자가 천차만별로 종자 종류가 그냥 퍼지는 거죠.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늘 주인공 큰 자리를 불기둥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은 그런 마음들이, 전체 에너지가 모여서 되는 자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스님: 그러니까 찰나찰나 이렇게 전체 모이죠. 찰나에 전체 하나로 되기도 하고, 이건 보이지 않는 데 이치입니다마는 보이는 데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한데 합쳐졌다 또 분리가 돼서 전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도 전부 합쳐지고, 왜 이런 게 있죠. 시장이나 장관이나 모두 일을 보는데 귀정적인 문제는 대통령에게로 전달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또 하달을 하듯이, 이거는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다 댈 게 아니죠. 이거는 자동적입니다. 무슨 이거를 조달을 하느라고 들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로 착착착착 나오듯이 그냥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컴퓨터를 탁 누르면 어느 동네, 또 컴퓨터를 탁 누르면 어떤 사람이 행하고 온 거, 과거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행했고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아이구! 당신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나와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고 살겠고.'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도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거를 이 마음으로써, 자기 한생각으로써 바꿀 수 있으니깐 그거를 자신이 실천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차원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움죽거릴 수 있는 거니까 조그만 거라도 큰 거라도 서슴지 말고 무섭지 않게 생각하고 패기 있게 물러서지 말고, 그대로 하늘이 무너진다, 지금 여기 앉았는데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빙긋이 웃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받칠 수 있으니깐요. 이게 귀중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손가락 하나로 받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손가락 이것도, 즉 말하자면 방편이지, 손가락이라는 건 가리키는 방편이지, 진짜 하늘을 받칠 수 있는 손가락 하나는 그거는 말로 형상이 되고 말로 이름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질문자2(남): 조금 전에도 법문을 설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계속 하나씩하나 사업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공부하고 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가르침과 스님께서 마음을 좀 내주시면 싶어서 제가 스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 심정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공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부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 주인공 힘이 약했는지 답답한 마음일 뿐입니다.

▲스님: 주인공의 힘이 약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약한 거죠. 왜 주인공 탓을 합니까?

▲질문자2(남):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스님: 이거 보세요. 일체 만법을 스스로서 굴린다 그러면 어떤 거는 우리들의 법이 아니고 어떤 거는 우리들의 법이겠습니까? 다 법이지. 그런데 하물며 그 공장을 누가 합니까? 댁에서 하죠? 댁에서 하는데 댁의 자체가 바로 심부름꾼에, 그 공장의 심부름꾼이지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당신의 몸뚱이 속에 모든 생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가운데에 근본 선장입니다. 선장이 바로 그 공장을 하고 다스리고, 또 그 컴퓨터에서 당신을 운행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갑니까?

▲질문자2(남):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서슴지 말고
패기 있게 물러서지 말고

하늘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빙긋이 웃을 정도가 되어야

▲스님: 그런데요, 그렇게 운행을 시키는 그 자가 주인이지 당신의 몸뚱이가 주인이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의 혹성일 뿐이지 자기가 혼자서 그냥 자기가 아니죠. 지금 댁의 몸뚱이 속에도 의식들이, 모습들이,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지금 그 물 한 컵 마신다 하더라도 혼자 마시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공식(共食)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장도 즉 말하자면 주인으로부터 또는 댁의 그 공장장으로부터 모든 직원들이 같이 지금 동일하게, 높고 낮고가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주인공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하는 거지. 나는 더불어 같이 심부름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껴야죠. 그래야 진실하게 그게 알 수 있게끔 되죠.

▲질문자2(남): 제가 처음에 표현을 잘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스님: 아니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표현이….

▲질문자2(남): 단지 그저 스님께서 마음 한번 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 웃음)

▲스님: 이제 말입니다, 컴퓨터에서 책정을 하려면 이 컴퓨터에, 왜 판사가 서류를 침착하게 다 챙겨보고 판정을 내리듯이, 컴퓨터에서 거기다가 말겨서 진정으로 버튼이 눌러졌다면, 그냥 전부 일체가 다 한데 합쳐집니다, 그냥 쫙 그냥. 뭐 거칠 것이 없이 쫙 모여서 그냥 거기서 책정을 금방 내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것 없죠. 사실은 진실히만 버튼이 눌러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깐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주인은 댁 주인공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하하하. 뭐 가지각색의 이름을 다 줏어다대고선 좀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구 참! 나도 참.

▲질문자3(여): 스님, 먼저 주인공에 관하는 공부를 가르쳐주셔서 감사의 큰절 올리려고 포항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법을 만난 지는 이제 겨우 첫돌을 지낸 풋내기 신도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고, 10년 동안 열심히 생활해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모아 4년 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2억 5천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한 채 샀습니다. 건물 전체를 7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모자라는 돈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금도 이자가 월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물 밑에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사업하시는 형님의 은행 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빚이 남편 앞으로 돌아오고 건물도 세 곳에나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하여 그 집에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이지만 '주인공! 그래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잖아!' 하고 관하면서 그 형님이 밉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과 의논 끝에 형님을 찾아가, 우리 집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집문서 내어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시라고 했더니, 형님도 좋아하셨고 저희들도 주인공에 모두 맡기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주인공! 보증 서게 한 것도 너니까, 서로 가장 적게 손해 보는 쪽으로 빨리 이 일을 처리해. 주인공 너만이 이 일이 빨리 해결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맡기고 또 관하고 열심히 관하고 있습니다. 이 법 몰랐으면 병이 나도 단단히 났을 테고 어쩜 형님과 등 돌리고 살지도 몰라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편리하고 좋은 마음 내게 하는 공부 가르쳐주신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지원에 계신 스님께도 거듭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병도 안 나니 좋고, 하하하, 버렸으니 뭐 편안할 거고 먹고 사는

☞30면으로 계속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누굴 믿겠습니까

☞29면에서 계속

데에, 한 생 살아가는 데에 길다고 하면 길지만 짧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영원토록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놓을 때에 그것은 저절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자3(여): 큰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또 살게 되겠죠.

▲질문자4(남): 먼저, 스님께서 한마음의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스님께서 이 세상 만물은 그 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사멸하거나 퇴보한다는 그런 말씀을 잠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는 현재 퇴보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발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 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님: 하하하. 결국은 마음이지 뭘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 불교든지 세계적으로 종교가 어떻게 하고 가느냐 하는 것을 내가 그전부터 외국으로 다니면서 잘 검토했는데요, 전부 이 나무에, 나무라면 전부 자기 뿌리를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 하나님' 하고 바깥으로 전부 찾고요, 부처님 찾는 것도 바깥으로 찾고요, 그러고 있어요. 뭐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일체 배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무시하고 가니까, 그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겠어요? 그리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왜 발전이 없겠느냐 하면 물질적으로는 발전이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정신적으로 발전이 있어야만이 한계가 없이 무한계로다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불국토를 만들 수도 있거니와 세계를 다 혼합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우주와 더불어 이 행성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전부 작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이 세상에서 나쁜 악한 일이 생기고 죽이는 일이 생기고 또 뭐 부모를 죽이는 일이 생기고 또 돈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모두 옆은 돌아다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벌레라고 할까 짐승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답지 않은 행동들을 모두 하게끔 되는 것도 이 마음입니다. 자기를, 자기 분수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그릇이 요만하냐 이만하냐 그거를 알아야 어떠한 거를 그 그릇에 담더라도 자기 분수에 맞게, 그릇에 맞게 담는데 자기 분수를 못 보면 요만한 그릇에다가 큰 거를 갖다가 들쑥 집어넣으면 그거 한데로 다 새니까 그건 사기를 당하고 또 돈을 떼이게 되고 모두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자기 분수를 잘 알고 모든 걸 관하면서 올바른 생각으로 해라 이겁니다. 자기 그릇의 분수도 모르고서 강을 건너가다가 중간에 빠져 죽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가게를 하거나 빚을 내서 공장을 하고 빚을 내서 뭐를 한다고 하는데 그 빚이 한 달에 얼마씩 늘어가며, 먹고 살려면 차라리 빚을 내지 말고 몸뚱이로다가 부대껴서 뭐든지 해서 가늘게 먹고 그냥 살지. 아이,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는 집도 절도 없이 다 없애고는 못 살게 되는 이치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질문자4(남): 다음은요, 후기 산업사회에서 우리 불교가 인류에게 끼칠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스님: 우리가 자기 분수를 첫째 알고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고,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를 알고 실행을 한다면 우리 전체가 불국토가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이 전부 내 일이니까, 내 아픔, 내 일, 내 가정, 내 몸이니깐요, 전체가. 그러니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그 대신에 우주의 모든 보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하는 것
나는 그저 더불어 같이 심부름하는 것뿐

일체가 부처님 일체가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그 마음에 통신이 돼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만큼요.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한마음으로서 어떠한 죽음이 있어도 빈손들이 그냥 허공에 꽉 차서 싹 드러내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질문자5(여): 스님을 찾아뵙게 된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요전』을 두 번째 읽어가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큰스님과 대화하듯이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스님, 이 공부로써 모든 업장이 녹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우리 주변에 딱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 있을는지요? (대중 웃음)

▲스님: 관하는 법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질문자5(여):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대중 웃음)

▲스님: 예. 그렇게 전하시면요, 전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모두 지켜보시면 바로 보살이 전하는 그 장소에는 항상 내가 있고 부처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부탁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 도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모두 정신계에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푼 한 푼 참 어려운 일들을 해서 보시하는 것이 바로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나서서 구독을 해야 여러분이 보시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지, 어떤 개별적인 개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십만 원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져온 걸 알고, 갖다 냈다는 걸 알고 있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돈을 아무개가 가져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죠? 그 아는 마음이 바로 어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깐 누구를 갖다 줬다, 누구를 도와줬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또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좋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가게 물건을 사러 갔는데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돈 값어치 물건을 사러 왔고 그 사람이 물건 값어치 돈을 줬을 뿐이지 누구를 도와준 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생각이 없이 남의 돈을 그냥 가져온 거를 더퍽더퍽 아무렇게나 쓴다거나, 자기가 뺏골 들여서 벌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사치스럽게 자기가 뭉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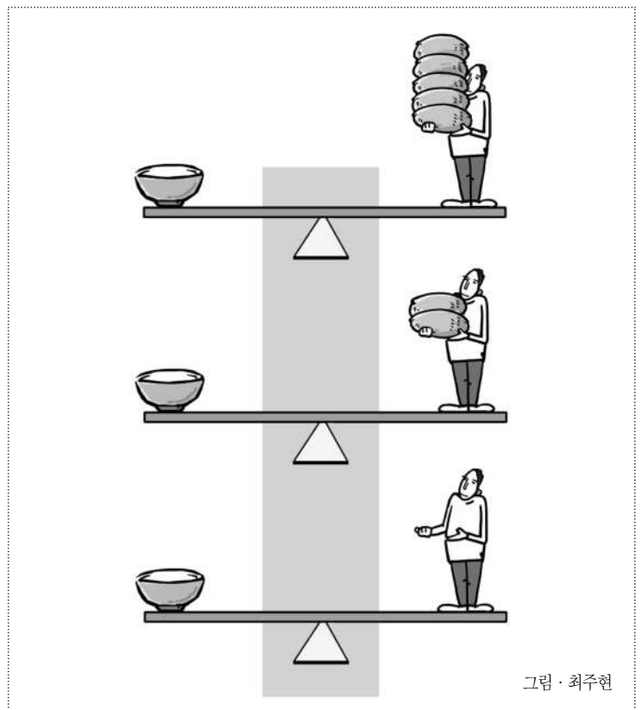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놓고 뭐 개별적으로 땅을 산다거나, 뭐 이렇게 무슨 일들을 한다거나 이런다면, 그거는 컴퓨터에 다 올라가서요, 오히려 속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되죠. 누구도 그것은 용납 못하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조금도 없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렇게 거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허탕 사는 거죠. 자기가 뭐가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진정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스님네들은 자유스러운 게 있죠. 아무리 불상해서 내게 줬다 하더라도 내가 쓴 사이가 없어요. 왜? 그거는 그 사람도 나를 준 게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준 게 없고 그러니깐요. 그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여러분더러 돈 백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누구 친척간이라든가 친구지간이라든가 아주 급해서 돈을 꿔달라고 뭐 그냥 목을 맬 때에, 있으면 그냥, 그냥 줘요. 그 사람이 잘되면 받고 잘못되어 못 받더라도 아예 받으려는 생각은 체념을 하고 아주 그냥 주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를 받으려고 하고 줬다면, 이자에 이자까지 받으려고 했다면 나중에는 그거 돈 못 받게 되면 의리 끊어지고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세세생생에 구르면서 또 지혜롭지 못해서 자식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이 신문사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문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을 모두 전파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한마음 거니까 한마음이 해야죠. 그러니 여러분이 나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더불어 같이 한식구가 같이 해봅시다. 그래야지 나만 어떻게 그러라고 그럽니까? 하하하. 그러니 구독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개인이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무도 대금강문 선요가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뇌와
신체적 질병을 가져 올 수 있는 갖가지 스트레스와
육체의 불균형을 선무도 수련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세계선무도협회 선무도 서울지원
종로 763-2980 · 서초 581-6521 · 방배 599-5554
*선무도 · 선요가 · 선기공 · 선체조 · 선무술"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제4기 영남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본 연구 보존회에서는 영남 범음 · 범패에 뜻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및 축원 송주 등.
● 중급과정 : 신중작법 ,대령관욕, 각단 청, 상주권공, 각종 시식, 다비식,점안의식 등.
● 작 법 반 : 바라 작법, 승무 작법 등.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수시접수함.
제4기 개강일 2005년 11월 28일 (목) 오후 3시
강의일 : 매주 월 · 목(오후 3시)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회 소정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 보존회는 초 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교육원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 문의전화 :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수련일시 : 2005년 11월 22일 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침대 · 황토손 · 황토불판

황토는 오랜 세월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규소성 광물로서 흔히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불립니다.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멍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황토손 · 황토불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여 엄청난 약성을 가진 무병장수의 흙으로 사용되어온 황토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집 건강 지킴이입니다.

사찰에서 가정에 황토방을 시공해 드립니다.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 위에 올려놓은 모습

황토손의 탁월한 효능
1. 정화작용 및 해독제 역할
2. 인체의 순환작용
3. 통증의 완화작용
4. 신진대사 촉진

황토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면 기운이 되살아나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황토불판에서 육즙 요리의 맛을 느껴 보십시오.


황토불판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

● 제품 가격 : · 황 토 침 대 (1인용) : 1,500,000원 · 황토손 + 황토수건 : 20,000원 · 황토불판 + 황토석판 : 25,000원 · 황토손 + 황토불판 셋트 : 45,000원
● 입금 계좌번호 : · 농 협 : 178990-56-003521 (이점숙) · 대구은행 : 023-07-473126-001 (이점숙)
● 구입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43-1 중앙시장 108호 대구 · 경북지사장
011-817-9364 · 017-804-0215 · 053-585-9364 이노사나 합장

性, 우리 아이는 얼마나 알까?

성(性)의 자유방임시대인가. 청소년 10명 중 2명이 성경험이 있다는 통계. 매일 아침 e메일만 열면 넘치는 성관련 스팸 메일로 성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의식이 자칫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청소년 성상담 사이트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익명성을 통해 말 못할 자신의 고민을 속 시원히 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 성상담의 장점. 부모들도 학교나 상담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녀들의 성 고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성교육 관련 서적을 활용하면 건전한 성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청소년들이 성상담을 할수 있는 곳은 어딘지, 관련 도움도서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이젠 터놓고 얘기합시다

□ 성상담 사례와 바람직한 성교육

"H여고 3학년 김보라(19 · 가명)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집에 놀러 온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냥 서로의 성기를 밖에서만 부볐는데 그곳에 정액이 묻었습니다. 혹시 임신이 될까 너무 걱정이 큽니다. 급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보라양. 너무 걱정 마세요. 질내 사정이 아니라면 임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생리주기에 맞춰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해 임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짐작해 봤을 땐 보라양이 걱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으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커피숍이나 극장, 공원 등지에서 건전한 만남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저기, 저는 S고 3학년인데요. 아침에 자위를 하려는데 가끔 발기가 잘 안돼요. 아버지께 여쭤 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걱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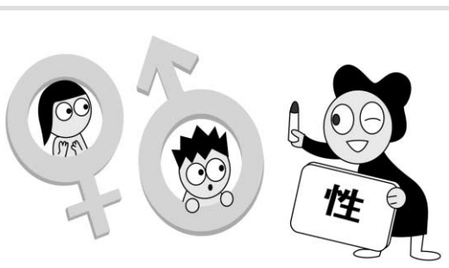
-자신의 성문제를 아버지께 터놓고 말한 것은 참 칭찬할 일이에요. 신체리듬과 건강상태에 따라 성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인 만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수면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버리고 시간 날 때마다 운동도 열심히 하면 금세 괜찮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 청소년 성상담 사이트 '아하! 섹스(www.ahsex.org)'에 자신의 성고민을 문의해 온 상담사례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받아온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구조, 생리, 임신 등 생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래서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시시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 고문은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활발한 성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을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 정확히 의사를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이고문은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똑바로 알게 해줄 수 있는 성교육과 상담이 중요하다"며 "성충동의 감정을 바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성 고민을 끙끙 앓지 말고 인터넷 성상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다. 청소년 성상담 사이트 '아하! 섹스' '구성애의 아우성'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이 그것.

'아하!섹스'의 경우 청소년 성 고민을 자유게시판과 비밀게시판 형식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열린상담방'과 각종 성교육 자료실 그리고 부모를 위한 성교육 자료실 등 다양한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기존 성교육 생리적 수준 머물러
성 행동에 대해 조절토록 도와야
인터넷 상담사이트 수시 활용을
현실성 없는 경험 이야기는 금물

□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너무도 다양한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아들 · 딸들에게 올바른 판단기준을 심어주는 일을 학교 교육에만 미룰 수는 없다.

이제는 부모도 자녀들이 성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를 대비해 언제든지 대답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론의 토대 없이 이렇게 하니까 어떠하더라는 식의 경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겐 현실성 없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성교육은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미 여러 형태의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을 지켜가느냐를 알려주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답답한 현실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성을 하찮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버리듯 자포자기하는 행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후회할 만한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성적인 문제에서 자녀들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성문제와 관련해 부모에게 쌓인 불신감은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글=노병철 기자

도움말=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 고문

청소년 사이버 성상담

상담센터 / 웹주소	전화
아하!섹스 청소년상담실(ahsex.org)	(02)737-7378
구성애의 아우성(9sungae.com)	(02)332-9978
참119(cham119.com)	(02)562-3406
한국청소년상담원(kyci.or.kr)	(02)2253-3811
아하청소년문화센터(aha.ymca.or.kr)	(02)2677-9220
민우회온라인상담실(counsel.womenlink.or.kr)	(02)737-5763
양성평등성상담(equal.chosun.ac.kr)	(062)234-6645
Yline사이버상담실(yline.re.kr)	(02)2634-8213
내일여성센터(ausung.net)	(02)338-7480
포천가족상담센터(pchsvc.com)	(031)542-317

청소년들이 읽어두면 도움이 되는 성지식 관련 책

제목 / 저자	내용
〈쉿! 나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야마모토 나오히데	청소년과 아동 성교육의 지침서
〈정정만 박사의 청소년의 성〉 정정만	편경 속의 성 고민을 가감 없이 실음
〈성의 과학사전〉 오영근	성 관련 모든 용어정리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줘〉 이근후	성적 갈등에 관한 문제를 조명
〈여성과 성〉 김동길	성 윤리를 담아낸 책.
〈10대 자녀들이 성적인 고민에 빠지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 마리온 하워드	10대의 성경험과 관련된 문제 정리
〈청소년이 궁금해하는 77가지 성〉 서울YMCA	학부모들을 위한 성 교육 지침서
〈딸에게 주는 선물 엄마가 이야기 해 주고 싶은 여자의 성〉 정혜원	여자 아이들을 위한 성지침서
〈아들에게 주는 선물 아빠가 이야기 해 주고 싶은 남자의 성〉 정혜원	남자 아이들을 위한 성지침서
〈성! 몽땅 알려 주세요〉 이순열	성교육을 지도하면 느낀 점을 정리 함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37)



아이는 부산하게 움직여야 정상

소아과질환의 둘째 유형은 식이를 잘못하거나 아기를 잘못 다루어 생긴 병들이다. 잘못하여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제 몸도 아직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이를 무리하게 곧추세운다든가 탯줄의 밑동 꼭지를 너무 일찍 떼 낸다거나 잘 보살펴주지 않아 아이가 너무 울어대도 병이 생길 수 있다. 축축한 바닥에 오래두거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너무 열성(熱性)이 강한 우유 크림 양고기 마늘이나 반대로 한성(寒性)이 강한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들을 많이 먹여도 아이에게 탈이 날수 있다. 티베트의서에는 그와 같은 이런저런 원인으로 생기는 소아과질환이 24종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들 24종류의 소아과 질환은 다시 성년기, 미성년기 및 유아기 소아질환들로 세분하고 있다.

흉부감염 폐 간질환 설사 구토 전염성열병 제대감염 그리고 요석증은 성년기소아질환으로 분류되고 목구멍감염 지라 및 쓸개질환 소화 및 결장이상 뇌척수액 누적으로 인한 뇌압상승 상습적으로 점토나 흙을 먹는 토식증 그리고 모유(母乳)감염으로 인한 식증독은 미성년기소아질환으로, 눈병 귓병 구강궤양 분비선염증 척수질환 기생충병 항문농양은 유아기소아질환으로 분류된다.

24종 소아질환은 성년 · 미성년 · 유아기로 분류
갓난아이는 진맥이 어려워 귓볼 핏줄로 진단

젖도 충분히 먹이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채우고 젖니가 날 시기도 아닌데 계속 울을을 그치지 않고 보채면 갓난아이에게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다. 잘 먹지도 않고 축 늘어져 눈도 뜨려않고 통 놀려고도 하지 않은 채 죽은 듯이 가만히 있기만 하여도 정상이 아니라는 신호이다. 아이들은 자고로 부산하게 움직여야 정상이다. 갓난아이를 추켜세워 어떤 부분을 만졌을 때 기겁을 하고 큰 소리로 울어대면 필시 그 부분과 관련된 특정 장기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갓난아이는 손목을 만져 진맥할 수도 없어 진단이 간단치 않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귓볼의 실핏줄을 읽어서 진단하는 티베트 고유의 특별한 진단법을 쓴다. 이 방법은 아기를 빛이나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하도록 엄마 무릎에 앉히고 의사는 아기 뒤쪽에 서서 아기의 귓볼에 드러난 핏줄을 살핀다. 아기의 귓볼은 마치 잎맥이 선명한 나무잎사귀와 외양이 비슷하다. 아기의 오른쪽 귓볼은 세 부위로 나누어 각각 윗부분은 폐와 대장 가운데 부분은 간과 쓸개 그리고 아랫부분은 우측 신장과 방광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진단 준거로 활용된다. 왼쪽 귓볼 역시 세 부위로 나누어 윗부분은 심장과 소장 중간부분은 비장과 위장 그리고 아랫부분은 좌측 신장과 생식기관의 상태를 읽어내는 진단 준거로 삼는다.

귓볼의 어느 부위라도 검붉은 색이면 그 부위와 관련된 해당 장기에 감염이나 염증이 있다는 신호이다. 귓볼이 핏기가 없이 창백하면 한성병(寒性病)과 관련된 질환임을 의미하고 귓볼의 실핏줄이 십자(十字)로 이리저리 서로 교차되어 있으면 귀신에 씐 병임을 뜻한다. 귓볼의 핏줄 문양이 가지런하고 크기가 고르면 생명에 위험 없이 병이 곧 낫게 될 조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귓볼에 핏줄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명(命)이 오래지 않다는 불길한 징조이다. 제목이 <보연화관(寶蓮花冠)>이란 뜻의 티베트의서에는 이런 특수한 진단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기를 진단하는 방법은 그 외에도 뇨진(尿診)과 엄마와의 문진(問診)을 통해 아기의 증상과 병증을 알아보고 아기를 직접 살펴보는 망진(望診)이 있다.

진단이 일단 내려지면 의사는 각각의 병증에 따라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한다. 요즘 아이들은 복용하기 좋게 단맛을 가미한 양약에 길들여져 전통약이나 향약의 씁쓸한 맛을 싫어한다. 그러나 개중에는 씁쓰레한 탕약도 거르지 않고 곧잘 복용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흔한 질병들을 티베트의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가장 흔한 감기에서부터 소아과질환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몇몇 질환만 훑어본 것이다. 다음 회부터는 티베트의학의 독특한 진단기법들과 그 가치 그리고 놀라운 정확성을 소개할 것이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Energy Healing Center
윤·기치유 명상 수련원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모든 증상등을 치유할 수 있다.
- 본 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기치유(에너지치료)는 플 라시보 효과가 아닌 실질적인 치료법으로 근본적인 치유 효과가 있다.

氣는 곧 Energy이다!!!

- 수련만 하여도 중증의 상기병, 삼차신경통, 간경화, 통풍 등 불치 난치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미 국립 보건원 산하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21세기 의학은 기치유가 일반화 되는 시기로 전망하였듯 이 직업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기치유사 26기 수련생 모집

개강일자 : 2개월 과정(8일완성)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2:30~5:00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00~9:20
수 련 비 : 80만원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 치료학과 겸임교수
한국 기치유 연구회 회장 / (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저 서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

문의 www.gichiu.com 02-3482-5032
후원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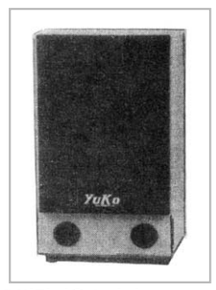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관절염 · 신경통 · 오십견 · 류마티스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우슬, 창출, 당귀, 맥아로 60℃에서 6시간 동안 알콜추출(65브릭스로 농축), 속단, 구판, 홍화자 외 19개 약제를 특수효모와 흑설탕으로 16일간 속성발효하여 몰약을 액상화시켜 丸(환)으로 만든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등에 주효하며 5~7일 정도 복용하면 통증 완화, 부기감소가 나타나며 혈행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 관신환(丸)



윤량한의원 원장 윤 량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제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항암작용이 뛰어난 신비한 약초로 구전되어 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와 그 외 수종의 약제로 만든 기천탕을 처방하여 수년간 기침 · 가래 ·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환자에게 복용시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환자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기천탕(湯)

자 료 제 공
윤량한의원 02-598-9832

맑은 강물·솔바람 소리

옛 풍취는 어디에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8) 여주 신륵사


봉미산은 예전부터 소나무로 유명한 산이었다. 그러나 인근 마을이 개발되면서 소나무 숲은 신륵사 주변에만 남아 있다.

주변 관광지구 난개발로 상가 숙박시설 즐비

여느 절처럼 신륵사 입구도 상가와 숙박시설이 즐비하고, 근래에는 도자기 축제장까지 들어서 어수선하다. 강가에는 수상스키장을 조성하고 황포돛배를 띄워 놓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주5일제 근무' 시행 이후 여주군은 신륵사 일대를 관광지구로 만들기 위해 난개발을 서슴지 않고 있어서 신륵사 강마을 어디에도 이제는 더 이상 고즈넉하고 옛스러움을 찾아보기 어렵다.

강변에는 버드나무들이 풍광 좋게 드리워져 있다. 은백양(銀白楊)에서부터 수양버들에 이르기까지 흔히 '버드나무'로 통칭되는 모든 종류의 버드나무들이 민주공화국을 이루고 있다.

강변 초지에는 박주가리, 갈퀴나물, 부처꽃, 마타리, 고들빼기, 씀바귀, 개맥문동, 고마리, 광이밥, 쥐손이풀, 꼬리조팝, 질경이, 새팥, 석잠풀 등의 꽃들이 가을로 넘어 들어와 피어있다.

신륵사 지역의 남한강은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다. 신륵사 주변엔 낚시꾼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낚시꾼들이 삼삼오오 강 숲에 모여서 잉어, 붕어, 누치 등을 낚아 올린다.

누치는 남한강의 어종 가운데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등은 암갈색이고, 배는 은백색이다. 모래나 자갈이 깔린 바닥층에서 먹이를 구하다보니 잉어처럼 입이 주둥이 밑에 달려 있고 모양도 말굽꼴을 하고 있다. 게다가 뻐끔거리는 입놀림이 느리고 더듬거려서 '눌어(訥魚)'라는 별명이 붙었다.

얼마 전에 신륵사를 비롯해 여주지역의 종교시민단체가 남한강 살리기에 나섰다. 수질과 어류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골재채취 문제 등 당면 문제를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요즘 여주군의 행정도 '잘 사는 여주'에서 '살기 좋은 여주'로 군정의 목표를 바꾸어가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제법 넓은 공간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땅이거나 풀밭이어서 다소 삭막하다는 느낌을 주었는데, 근래 절에서 소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당단풍, 연산홍 등등 갖가지 화목을 심어서 분위기를 일신하였다.

황오색나비가 왕벚나무 줄기에 붙어 진을 빨아먹고 있다. 황오색나비 애벌레는 버드나무 종류의 잎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신륵사 주변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날개를 달고 난 다음에는 참나무나 벚나무 종류의 수액을 즐겨 빨아먹는다.

두 그루의 시무나무는 가시가 있는 느릅나무란 뜻으로 '자유(刺楡)'라고도 한다. 오리나무와 함께 옛날 이정표로 쓰였다. 시무나무는 습기를 좋아해서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서 주로 관찰된다. 5월경에 꽃을 피우고, 10월경에 날개가 달린 시과로 익는다.

신륵사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벽절'이라는 별명이 있다. 이는 은행나무 뒤쪽 동대(東臺)에 우뚝 솟은 다층전탑에서 비롯되었다. 동대는 여강의 거센 물살로부터 신륵사를 지켜주고 있는 수구막이 암벽이다.

현전탑은 이 거대한 동대의 암벽을 지키고자 하는 비원의 결과물이다. 비유컨대, 해마다 홍수해로 백성을 불안케 하는 황룡(여강)을 다스리기 위해 재갈을 물린 비보탑이 아니겠는가.

벽돌에 새겨진 당초(唐草)는 실재하는 식물이 아니라, 포도나 인동 같은 덩굴식물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원래 이집트에서 발원하여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들어와 우리나라로 전수된 문양이다.

신륵사 주변의 조류상은 개체수도 적고 다양성에 서도 크게 떨어진다. 하천을 좋아하는 백로류와 참새나 까치 같은 텃새 정도이다. 굳이 지표가 될 만한 조류를 꼽는다면 후투티 정도가 될 것이다.

봄이면 날아드는 후투티는 지난해(2004년) 전탑 앞 나무 구멍에다 보금자리를 틀고 새끼를 키워냈는데, 올해는 전탑 보수공사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후투티는 전 세계에 1종 밖에 없는 여름철새이다. 인디언 추장의 깃털 장식 같은 긴 우관(羽冠)을 머리에 쓰고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시야가 막힌 산중 절보다는 신륵사 같은 농경지 평지절에서 많이 관찰된다.

신륵사의 가람배치는 다층석탑을 중심으로 극락보전, 적묵당, 심검당, 구룡루가 네모난 중정(中庭)을 만들고 있다. 중정을 둔 가람배치는 조선시대의 전통형식이다. 명부전, 조사당, 칠성각, 봉향각 등은 중정 외곽에 배치되어 있다.

형국은 그리 넓지 않지만, 극락보전이 앉은 자리는 좌청룡과 우백호가 완연한, 봉미산의 중출맥이 내려온 자리이다. 극락보전 어전에 서면 마주한 구룡루 팔작건물 좌우로 여강의 모습이 보인다. 구룡루가 세워지기 전에는 여강이 모두 부처님 품 안이었을 것이다.

경내에는 개맥문동과 월악초 등 몇 종류의 화초들이 눈에 띈다. 때마침 화사하게 꽃을 피운 개맥문동은 절로 난 것으로, 보통 맥문동보다 크기도 작고 꽃색깔도 좀 옅다. 맥문동은 음지쪽에 잘 자라는 데 비해 개맥문동은 햇볕을 좋아하는 편이다.

경내 몇 곳에 심어놓은 월악초는 긴 타원형 연녹색 잎 가장자리가 흰색으로 둘러쳐 있어서 완상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미국 원산의 원예종 초본으로, 잎에 독성물질이 있어서 피부에 알레르기 발진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찰조경에는 부적당한 꽃이다.

조사당 옆으로 보제존자 나옹대사 부도탑으로 가는 돌계단이 나 있다. 부도탑 뒤로 소나무들이 울울창창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약골이다.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저네들끼리 아웅 다웅 다투다가 약골이 된 것이다.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볕을 제대로 못 받으면 아프리카의 빈민국 아이들처럼 영양실조로 피골이 상접해 말라죽는다. 이럴 때는 부득이 인위적인 간섭(임학적 관리)이 필요하다.

봉미산은 예전부터 소나무로 유명한 산이었다. 그래서 지명도 천송리이다. 그러나 천송리 마을이 개발되면서 소나무 숲은 신륵사 주변 밖에 남아있지 않다. 잘만 관리하면 이 숲에서 옛 선사들이 즐겼다는 송뢰(松籟 · 솔바람)를 맞을 수도 있을 터이다. 신륵사 사중에서 관심이 한층 더 필요한 대목이다.

정상에서 오솔길을 따라 인적 없는 강변으로 가면 귀화식물인 가시박이 칡을 대신하여 숲을 뒤덮고 있다. 가시박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봉미산이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쓰레기로 인해 토양에 무기양분이 증가되었을 때 가시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한강 자락에 위치한 강월헌.


누치는 남한강의 어종 가운데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후투티는 전 세계에 1종 밖에 없는 여름철새이다.

동대(東臺)는 홍수로부터 사찰 지켜준 수구막 역할
다층석탑 중심의 가람배치 조선시대 전통양식
부도탑 뒤 소나무 영양결핍으로 인위적 관리 필요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도량

지장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 복원불사 모연문

국내제일의 지장기도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가 집중호우로인해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소실되었습니다.

촛대와 향로 범종마저도 녹아내리는 높은 고열속에서도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은 하나의 손상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가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안중이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직경 2mm-3mm 정도)가 약 5mm-7mm로 두배이상 커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일기도도량의 면모를 굳건히 갖추어 중생포교에 더욱더 큰 불은의 가피력을 주고자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몇몇사찰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증과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부처님진신사리가 커진 사실은 매우 희귀하고 보기드문 일로, 커진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몇생을 거듭 다시 난다해도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커진 사리의 가피와 공덕은 복중의 최고의 복덕이요,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모셔둔 사찰의 영험은 뜻하는바 소원성취가 반듯이 이루어지고, 커진 부처님의 사리는 가피가 뛰어난 매우 진귀한 사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뜻하는바 소원성취를 모두 이루시고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성거사 복원불사 조감도


석가모니부처님


부처님의 커진진신사리

복원불사 동참 목록
• 용마루 : 삼천만원 • 대들보 : 500만원 • 창 방 : 500만원
• 기 둥 : 500만원 • 석가래 : 100만원 • 도 리 : 200만원

불상동참목록
• 아 미 타 불 : 일천만원 • 관세음보살 : 일천만원
• 대세지보살 : 일천만원 • 문 수 보 살 : 일천만원
• 보 현 보 살 : 일천만원

불사동참계좌
• 농협 : 485110-56-018723 / 485049-56-017713 (예금주 : 성거사)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 041)567-6820